책을 내면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우수한 민족어를 가지고있는것을 크나큰 자랑으로 여겨야 하며 그 우수성을 언어생활을 통하여 더욱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예로부터 우수한 우리의 민족어를 언어생활을 통하여 빛내여나가는데서 우리 말 어휘의 뜻과 유래를 잘 아는것이 중요하다. 한것은 그것을 잘 알아야 각이한 정황과 계기에 해당한 어휘를 선택하여 말과 글을 알맞게 사용할수 있으며 언어생활을 보다 원만하게 진행하여나갈수 있기때문이다.

편집부는 독자들에게 우리 말 어휘에 대한 폭넓고 깊이있는 상식을 주기 위하여 상식도서 《우리 말 어휘의 뜻과 유래》를 내놓는다.

책에는 오래전부터 우리 인민이 이 땅에서 살아오면서 만들어내고 사용하여왔으며 리용하고있는 간단한 단어들과 성구 및 속담들의 일부를 편집하였다.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단어편과 성구 및 속담편으로 구분하고 자모순으로 배렬하여 뜻과 유래를 서술하였다.

편 집 부

차　례

단 어 편

ㄴ—ㄹ

ㅁ－ㅅ

ㅈ－ㅎ

ㄲ—ㅇ

성구 및 속담편

단 어 편

ㄱ

가게

지난날에 자그마한 규모로 물건을 차려놓고 파는 집을 이르던 말이다.

《가게》는 옛날말 《가가》가 변화된 말이다.

《가가》에서 앞에 있는 《가》는 거짓 또는 림시라는 뜻이고 뒤에 있는 《가》는 집이란 뜻으로서 결국 림시로 지은 집이란 뜻이다.

가가는 본래 거리에 설치한 상점으로서 옛날에는 주로 관청에 물자를 공급하였다.

《가가》에서 뒤에 있는 《가》가 《게》로 변화되면서 고유조선말 《가게》로 되였다.

가라말

《가라말》이란 털빛이 온통 검은 말을 말한다.

《가라》란 검정빛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옛날말이다.

《로걸대언해》라는 책에서는 《흑마》를 《가라말》이라고 하였다. 결국 《가라말》이란 《검은 말》이란 뜻이다.

가막조개

민물조개의 하나이다.

모양은 세모지고 색은 대체로 검은 밤색인데 검정무늬가 있는것도 있다.

《가막조개》의 《가막》은 《감(다)》의 말뿌리 《감》에 뒤붙이 《악》이 붙은것이다.

《감다》는 《검다》와 같은 어원의 말로서 《가맣다》는 뜻이며 뒤붙이 《악》은 《아기》란 말이 변한것으로서 《작은것》이란 뜻이다.

결국 《가막조개》란 《가맣게 생긴 자그마한 조개》를 말한다.

가물치

성질이 사나운 민물고기의 하나이다.

《가물치》의 옛날말은 《가모티》, 《가몰티》이다.

《아언각비》에서는 《감을치》라 하고있다.

《감(다)》은 검다는 말이고 《치》는 물고기를 나타내는 뒤붙이이다.

따라서 《가물치》란 말은 《검은 물고기》란 뜻이다.

가죽

사람이나 동물의 껍질을 이루고있는 부분을 이르는 말이다.

《가죽》은 겉을 의미하던 《갗》이 변한것이다.

《가죽》은 《거죽》과 같은 어원의 말인데 《갗→갇→

갖》으로 변하면서 뒤붙이 《욱》이 붙어 이루어졌다.
결국 《가죽》은 동물의 겉을 싸고있는 부분이고 《거죽》은 옷이나 이불 등의 겉부분을 말한다.

가야금

우리 나라의 우수한 민족뜯음줄악기의 하나이다.
가야금은 6세기에 락동강류역에 자리잡고있던 가야라는 나라에서 음악가 우륵에 의하여 만들어졌다. 그때부터 그 이름을 가야국에서 만든것이라 하여 《가야금》이라 부르게 되였다.
가야금은 그후 신라를 거쳐 일본으로 넘어가 《신라금》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퍼졌다.

가을

한해의 네 철가운데서 셋째 철 곧 여름 다음에 오고 겨울과 바뀌는 선선한 철을 말한다.
《가을》이라는 말은 처음에는 농작물을 거두어들이는 일을 의미하였다.
낟가리나 로적가리의 《가리》는 《가을》과 어원이 같은 말이다.
《가을》을 사투리로 《갈이》라고 하는데 《갈이》나 《가리》는 곡식단을 거두어 차곡차곡 쌓아올려 더미를 만든다는 뜻을 나타내는 《가리다》에서부터 생긴 말이다.
이로부터 《가을》은 농작물을 거두어들이는 때를 의미하는 가을철의 뜻도 아울러 가지게 되였다.

간석지

밀물때에는 바다물에 잠기고 썰물때에는 드러나는 소금기가 있는 바다가의 개흙이 깔린 땅을 말한다.

《간석지》에서 《간》은 물가라는 의미이고 《석》은 짜다는 뜻이며 《지》는 땅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간석지》란 물가의 짠 땅이라는 뜻이다.

간석지를 개벌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물가의 벌이란 뜻으로서 바다가에 개흙이 깔린 벌판을 말한다.

간지럽다

무엇이 살에 닿아 자극함으로써 몸이 그닐거리는 느낌을 준다는 말이다.

이 단어는 우리 말의 발달된 본딴말에 어원을 두고있다고 볼수 있다. 우리 말의 언어의식에 의하면 《간질간질하다》, 《간질거리다》는 피부에 자극되여 그러한 상태의 느낌을 준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말은 우리 말의 모양본딴말(의태어)에 기초를 두고있다.

이 단어에서 《럽》은 형용사조성의 뒤붙이로서 그러함을 인정하거나 그럴만하다는 뜻을 가진다.

갈등

사상, 립장, 견해, 관점, 리해관계 등이 서로 복잡하게 얽힌것을 이르는 말이다.

《갈등》이란 말은 칡을 의미하는 《갈》자와 등나무를 의미하는 《등》자가 나란히 어울려 이루어진 말이다.

칡과 등나무는 덩굴이 뻗는 식물이기때문에 나란히 있으면 가지와 잎들이 서로 얽히기마련이다. 이렇게 얽힌것은 좀처럼 풀기 어렵다.

이로부터 《갈등》이란 말은 칡과 등나무가 얽히는것과 같이 서로 상반되는 사상, 립장, 견해, 관점, 리해관계 등이 복잡하게 얽히는것을 나타내는 말로 쓰이게 되면서 문학예술부문에도 널리 도입되게 되였다.

갈바람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이르는 말이다.

《갈바람》의 《갈》은 《가을》이 줄어든것이다.

립춘이 지나서부터 쌀쌀하게 불기 시작하여 립하에 멈추고 마파람(남풍)은 거의 립하에 시작하여 훈훈한 더운 기운을 가져오다가 우기를 거쳐 립추에 멈추고 립추부터 마른바람이 불면서 오곡을 여물게 하는데 이것이 갈바람이다. 다시말하면 오곡은 봄에 새바람으로 어루만져주고 여름에 마파람으로 부쩍 자라게 하며 가을에 갈바람으로 익혀준다. 《갈바람》이란 말의 《갈》은 바람의 방향, 바람의 성격을 나타내는것이다.

감자

가지과에 속하는 한해살이작물의 하나이다.

감자는 강냉이와 함께 그 원산지가 안데스산줄기를 끼고 있는 뻬루와 볼리비아로 알려져있다.

조선봉건왕조시기 실학자인 박제가가 쓴 《북학의》라는

책에는 감자가 먹는 문제해결에서 매우 중요한 《구황식품》(지난날에 기근 같은것이 들었을 때 굶주림을 면하도록 구제하는것)이였다고 서술되여있다.

력사기록에 의하면 우리 나라에서 감자를 맨 처음으로 재배한것은 함경북도의 무산지방이였다고 한다.

《감자》란 말은 《감저》가 변한것이다. 《감저》에서 《감》은 달다는 뜻이고 《저》는 마(감자와 비슷한 식물의 한가지)라는 뜻이다.

결국 《감저》란 단맛이 나는 마라는 뜻에서 유래되였는데 그것이 발음상변화를 가져와 《감자》가 되였다.

강

골짜기나 들에 흐르는 큰 물줄기를 이르는 말이다.

강이름가운데는 《강》이라는것과 함께 《천》, 《수》라는 단어도 있다. 《강》은 《천》이나 《수》보다 큰것을 말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지난날에 압록강, 두만강, 락동강, 한강, 대동강을 5대강이라고 하였다. 지금은 금강을 더 포함시켜 6대강이라고 부른다. 10대강이라고 하면 그밖에 림진강, 청천강, 섬진강, 례성강을 더 포함시킨다.

《강》을 고유어로 《가람》이라고 한다.

《가람(갈+암)》에서 《갈》은 갈래라는 뜻을 나타내는 옛날말이며 《암》은 뒤붙이이다.

《가람》은 갈래졌다는 뜻으로서 물줄기의 갈래가 모여 흐르는것을 나타내는 《강》에 대응한 고유어이다.

결국 《강》이란 《물이 갈래져 흐르는것》이라는 말이다.

강호문학

봉건시기 일부 문인들이 사회정치생활과 떨어져 자연속에 묻혀 한가로이 지내면서 강과 호수, 전원(농촌 또는 시골)의 정서를 묘사한 문학 또는 그 류파를 말한다.

강호문학은 말그대로 《강과 호수를 노래한 문학》이란 뜻인데 봉건사회에서 벼슬을 하다가 나이가 들어 물러났거나 지배계급들사이의 세력다툼으로 밀려난 량반출신의 문인들이 전원에 내려가 쓴 문학이라는 뜻에서 이르는 말이다.

거꾸러지다

곤두박히듯 넘어지거나 힘을 잃고 허물어지며 죽음을 욕으로 이르는 말이다.

《거꾸러지다》라는 말은 《것+굴어+디다》와 같이 세개의 단어가 합쳐져 이루어진것이다.

《꺾다》의 옛날말은 《것그다》이고 《지다》의 옛날말은 《디다》이다.

옛날말에 《거꾸러지다》와 같은 뜻을 나타내는 말로 《구러디다》란 말이 있다.

《거꾸러지다》란 본래 《꺾어져 굴러떨어지다.》는 뜻인데 오늘은 《곤두박히듯 넘어지다.》 또는 부정적인 세력이 《힘을 잃고 허물어지거나 망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있다.

겨드랑이

팔이 몸통에 붙은 아래쪽부분의 오목한 곳을 말한다.

《겨드랑이》의 옛날말은 《겯》이다. 《겯》은 사람의 옆에서 가까운데를 이르는 《곁》과 같은 말인데 작다는 뜻을 나타내는 뒤붙이 《랑이》와 어울려 《겯으랑이》로 되였다.

여기서 《으》는 말마디를 결합시키는 이음모음이다. 《겨드랑이》란 사람의 량쪽곁이란 뜻으로서 오목한 곳을 말한다.

겨를

어떤 일을 하는 과정에 다른데 돌릴수 있는 시간적여유를 나타내는 말이다.

《겨를》은 한가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형용사 《겨르롭다》라는 말에서 나온 명사로서 한가한 시간이라는 뜻이다.

《겨르롭다》란 말에서 《…롭다》는 《그렇게 되다》, 《그럴만하다》라는 뜻을 나타낸다.

따라서 《겨를》은 《겨르롭다》의 말뿌리 《겨르》에 규정토 《ㄹ》이 붙어 명사화된것으로서 한가한 시간 즉 짬이란 뜻을 나타낸다.

겨울

한해의 네 철가운데서 넷째 철 즉 가을 다음에 오고 봄과 바뀌는 추운 철을 말한다.

겨울은 4계절중에서 마지막에 오는 추운 계절이다.

지난날 우리 조상들은 계절의 명칭을 농사를 위주로 하여 지어놓았다.

《겨울》은 가을에 곡식까지 걷어들여 한가한 계절이라는

의미에서부터 유래된 말이다.

옛날 농민들에게 있어서 겨울은 한가한 계절로 휴식할 겨를이 있는 때였다.

《겨울》은 바로 《겨를》에서부터 어음변화를 일으켜 생긴 단어이다.

경기체가

우리 나라에서 중세기에 나온 민족적인 정형시가의 한 형태이다.

《경기체가》라는 말은 시가에 《경기하여》라는 문구가 있는데서부터 이름지어진것인데 일명 《한림별곡체가》라고도 한다.

《경기하여》에서 《경》은 경치 또는 광경을 이르고 《기하여》는 과연 어떠한가를 이른다. 그러므로 경기체가를 일명 《경기하여체가》라고도 한다.

경기체가는 우리 나라에서 최초의 정형시가형태로 발생하여 여러 세기동안 퍼진 향가의 형식을 이어 13세기 전반기에 생겨났으며 대체로 16세기경까지 창작되였다.

고드름

물이 우에서 방울져 떨어지다가 얼어붙은 길죽한 얼음을 이르는 말이다.

《고드름》은 본래 굽어져있지 않고 직선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 《곧다》의 규정형 《곧은》에 명사 《얼음》이 합쳐진것으로서 《곧은 얼음》이 줄어든 말이다. 《곧은 얼음》

이 오래동안 내려오는 과정에 말소리가 줄어들면서 《고드름》이 되였다.

고명

맛을 돋구고 빛을 내기 위하여 음식우에 보기 좋게 덧놓거나 뿌려놓는것을 통털어 이르는 말이다.

우리 조상들은 대사음식을 차릴 때 대추를 가지고 떡우에 복을 많이 받으며 오래 살라는 의미에서 《복》자나 《수》자를 새기군 하였는데 이것을 《고명》이라고 하였다. 《떡에다 새긴다.》는 뜻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떡에다 글자를 새기던 관습은 점차 없어져갔으나 《고명》이라는 이름은 그대로 남게 되였다.

그러나 지금 《고명》이라고 할 때 음식우에 덧놓는 버섯, 실고추, 과일쪽, 잣, 닭알채 같은것을 통털어 이르는 말로 쓰이고있다.

고수레

낡은 사회에서 무당이 굿을 하거나 제사를 지낼 때 귀신에게 먼저 바친다는 의미에서 떡이나 밥 같은 음식을 조금씩 떼던지면서 한 소리나 그러한 행동을 이른 말이였다.

이것을 《고수레》라고 하는것은 고시라는 사람의 이름에서 유래된것과 관련되여있다.

단군때 고시라는 사람이 백성들에게 농사짓는 법을 가르쳐주었는데 백성들은 그 고마움의 대가로 농사를 지으면 의례히 음식을 갖추어놓고 자기들이 먹기 전에 먼저 고시를

찾아 대접하군 하였다.

고시가 죽은 다음에도 사람들은 농사가 잘되면 그것은 고시의 덕분이라고 하면서 그의 묘지를 찾아가 먼저 음식을 권하며 《고수레!》(고시에게 먼저 권한다는 뜻)라고 하고서야 자기들도 음식을 먹었다.

여기로부터 후세사람들도 제사를 지내거나 굿을 할 때면 《고수레!》 하면서 귀신에게 먼저 음식을 뿌려주었는데 그 귀신이란 바로 고시의 령혼을 의미하는것이다.

고슴도치

포유동물의 식충목의 하나이다.

《고슴도치》는 옛날말 《고솜돋》이란 말이 변한것이다.

《고솜》이란 《가시》의 옛날말이 변한것이다.

《고슴도치》의 《도치》는 《돋다》의 말뿌리 《돋》에 뒤붙이 《이》가 붙은것인데 입천장소리되기법칙에 의해 변화된것이다.

결국 《고슴도치》라는 말은 《가시가 돋힌것》이란 뜻이다.

고추

가지과에 속하는 열매남새작물의 하나이다.

《고추》는 《고초》가 변한것이다. 《고》는 쓰다는 뜻과 함께 맵다는 뜻도 가지고있다. 그러므로 《고초》는 《매운풀》이라는 뜻으로 된다. 썩 이전에는 《고쵸》라고 하였다.

곤두박질

몸을 번드쳐 갑자기 거꾸로 내리박히는것 또는 좋지 못한 사태나 처지로 내리굴거나 나가떨어지는것을 비겨 이르는 말이다.

《곤두》는 곧다, 《박다》는 꽂히다, 《질》은 현상의 뜻을 가진다.

곰보

얼굴이 얽은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얼굴이 얽게 되는것은 천연두를 앓은 후과인데 이 병에 걸리면 열이 몹시 나고 온몸에 붉은 반점이 생겨나며 심하면 콩알만큼씩 곪아서 얽은 자국을 남긴다.

《곰보》라는 말에서 《곰》은 곪다는 뜻을 나타내고 《보》는 《떡보》, 《심술보》, 《울보》와 같은 뒤붙이이다.

결국 《곰보》란 곪은 사람 다시말하여 곪은 자국이 있는 사람이란 뜻이다.

구두쇠

돈이나 재물을 지나치게 아끼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이 단어는 형용사 《굳다》의 말뿌리에 사람을 가리키는 뒤붙이 《쇠》가 결합되여 이루어진 단어이다.

이로부터 이 단어의 본뜻은 《굳은 사람》이다.

구들

조선식방바닥의 가열시설로서 바닥에 곬을 내고 그우에

돌을 놓아 아궁이에 불을 때여 방을 덥히는 난방장치를 말한다.

《구들》은 《굴돌》에 어원을 두고있다.

《굴돌》의 《굴》은 연기를 표현한것이다.

구름

대기중의 일정한 높이에서 물김이 응집되여 일정한 곳에 떠있는 자연현상이다.

이 말도 《내굴(연기)》의 《굴》에서부터 생긴 단어이다.

우리 조상들은 푸른 하늘을 흐리게 하는 자연현상인 《구름》을 연기와 같은것이 하늘공중에 뭉쳐있는것이라고 하여 《굴음》이라고 하였다.

결국 《구름》은 《내굴다(연기가 피여나다.)》의 《굴》에 명사만들기뒤붙이 《ㅁ》을 붙여 만든 단어이다.

다른 견해도 있다. 《구름》은 본래 검다는 뜻이다. 검은 빛을 뜻하던 옛날말의 변종의 하나인 《구루》에 《ㅁ》이 붙어서 하늘이 검어져 날이 흐리여지게 하는것이 《구룸(구름)》이라는것이다.

《계림류사》에서는 구름을 《굴림》이라 하였고 《훈몽자회》에서는 《구름》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구름》이란 말의 변화과정을 엿볼수 있게 한다.

구실

마땅히 하여야 할 역할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이다.

《구실》은 《구의》라는 옛날말에 어원을 두고있다. 《구

의》는 관청, 관원을 의미하는 고유말이다. 여기에 뒤붙이 《질》이 붙은 《구의질》은 관청에서 하는 일을 나타내였다. 《질》이 《실》로 변하여 이 말은 《구위실》, 《구의실》, 《구우실》로 써왔다.

이 말들은 오늘 《구실》로 변화되였다.

궁합

미신적관념에서 결혼할 남녀의 난 해와 달과 날과 시를 맞추어보아 부부로서의 좋고나쁜것을 안다고 하는 일명 《점치기》를 말한다.

《궁합》이란 말에서 《궁》은 집이란 뜻이고 《합》이란 합친다는 뜻이다.

옛날에 서로 이웃하고있는 국력이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가 있었다.

어느날 강한 나라 왕이 약한 나라 왕의 딸을 자기한테 첩으로 보내라고 통첩해왔다.

약한 나라 왕은 며칠째 고민하다가 신하들에게 자기의 안타까운 마음을 실토하였다. 이때 한 신하가 나서서 자기가 꾀를 한가지 생각해내겠는데 강한 나라 왕의 생년월일을 알아오게 해달라고 하였다. 그의 생일이 언제라는것을 알아낸 신하는 자기 나라 왕의 딸은 범직성이고 강한 나라 왕은 토끼직성이기때문에 그들이 서로 결합하면 석달안으로 강한 나라 왕이 죽을것이라고 하였다.

이 말을 들은 강한 나라 왕은 아연실색하면서 다시는 약한 나라 왕의 딸을 내라는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 이야기가 사람들속에 널리 퍼지면서 시집장가가는 일이 생길 때마다 남녀의 생년월일을 맞추어보고 궁합이 맞는다, 맞지 않는다 하는 말들을 하게 되였다.

궁합이라는 말과 궁합을 보는 법은 이렇게 생겨났다.

그믐

음력으로 그달의 마지막을 이르는 말이다.

《그믐》이란 말은 옛날말 《그믈다》가 전의되면서 명사화된것이다.

《그믈다》는 등잔불이 점차 사그라지듯이 보름달이 점점 작아지다가 나중에는 없어져 캄캄해지는것을 이르는 말이다.

매달 보름때에는 달이 최대로 밝아졌다가 하루, 이틀 지나면서 점점 작아지는데 그달의 마지막날에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캄캄해진다.

그지없다

끝이나 한량이 없고 이루 다 말할수 없음을 이르는 말이다.

《한이 없다.》는 말과 같은 뜻으로 쓰인다.

《그지없다》의 《그지》는 《끝》이나 《갓》과 같은 어원의 말이다.

끝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옛날말 《갓》이 《긑》, 《끝》으로 변한것이다.

그리고 《그지》에서 도움토 《까지》라는 말도 생겼다.

글월

글이나 편지를 이르는 말이다.

《글발》이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은 말이다.

글월이나 글발의 옛날말은 《글왈》이였다.

그러나 오늘 글발은 《글의 발》이란 뜻으로서 적어놓은 글을 이르는 말이고 글월은 글이나 편지, 문장을 이르는 말로 쓰인다.

금강산

금강산은 강원도에 있는 조선의 명산이다.

명산으로서 금강석처럼 아름답다고 한데서 유래되였다고 한다.

유럽사람들은 금강산을 가리켜 《다이야몬드 마운트》 즉 《금강석의 산》이라고 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의 하나로 치고있다.

금강산은 예로부터 아름다운 경치에 따라 그 이름을 금강산, 개골산, 널반산, 봉래산, 풍악산 등으로 불리워왔다.

봄의 금강산은 새싹이 돋아나고 향기그윽한 갖가지 꽃들이 활짝 피여나 마치 가장 아름다운 금강석과 같다 하여 《금강산》이라고 불렀으며 여름의 금강산은 숲이 무성하여 그늘이 좋고 흰구름이 층암절벽을 감돈다 하여 《봉래산》으로 그리고 가을의 금강산은 온산이 단풍으로 붉게 물든다 하여 《풍악산》, 겨울의 금강산은 흰눈이 덮인 여러가지 기암절벽들이 드러나 특이한 경치를 이룬다 하여 《개골산》이라 불렀다. 봉래산, 풍악산, 개골산이란 이름은 금

강산의 별칭이다.

금강산은 지형에 따라서도 여러가지로 불리운다.

조선동해에 면한 곳을 외금강이라 하고 그 반대편 륙지쪽을 내금강이라 한다. 그리고 외금강의 산들이 바다로 밀고나가 산과 바다가 이룬 특이한 풍경을 가진 고성, 통천일대의 해안지대를 해금강이라고 한다.

금강산은 우리 나라 명산들중의 하나일뿐아니라 세계적인 명산으로 알려져있다.

금강초롱

도라지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로서 조선에만 있는 특산식물이다.

8～9월에 줄기끝에 합성색의 긴 종모양의 꽃이 초롱처럼 아래로 드리워서 피는데 매우 아름답다.

1909년에 금강산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였는데 그후 구체적 조사에 의하면 우리 나라 양덕, 맹산, 마식령, 매봉산 등 여러 지역에 분포되여있다.

금강초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전설이 예로부터 전해지고있다.

옛날 비로봉밑 어느 마을에 부모를 잃은 오누이가 다정하게 살고있었다.

오빠는 재간있는 석공으로서 바위돌을 정교하게 다듬어 금강산을 천하명승으로 만들려고 마음먹었다. 그래서 3년후에 돌아오기로 약속하고 사랑하는 누이동생과 헤여졌다.

날과 달이 지나 오빠가 떠난지 3년째 되는 날이 돌아왔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기다리는 오빠는 돌아오지 않았다.

(오빠가 돌아오다 길을 잃고 벼랑에서 굴러떨어지지나 않았을가?) 하는 생각이 든 소녀는 오빠를 찾아 길을 떠났다.

금강산봉우리에는 오빠를 찾는 소녀의 애타는 목소리만 메아리쳤다. 하지만 오빠의 종적은 찾을 길이 없었다.

소녀가 이산저산 헤매는 사이에 어느덧 해가 지고 캄캄한 밤이 되였다.

(야, 이럴 때 초롱불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가!)

소녀는 어둠속에서 발을 구르며 슬피 울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소녀의 눈물이 떨어진 곳마다 초롱처럼 생긴 고운 꽃이 피여나 빨간 불빛으로 한곳을 비쳐주었다.

너무 기뻐 소녀가 꽃송이를 꺾어들고 불빛이 비치는 곳을 따라가니 거기에는 바위돌을 다듬다가 쓰러진 오빠가 있었다.

소녀가 오빠를 붙들고 안타까이 불렀으나 오빠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이때였다. 초롱꽃에서 향기가 풍겨나오더니 오빠가 스르르 눈을 뜨는것이였다.

《아니, 네가 어떻게 왔니?!》

오빠는 너무 반가와 동생을 얼싸안았다.

《오빠, 이 초롱꽃이 오빠를 찾아내고 살려주었어요.》

소녀는 오빠의 손을 잡고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초롱꽃이 밝혀주는 길을 따라 집으로 돌아왔다.

그후부터 오누이는 금강산구경을 왔던 사람들이 길을 잃거나 힘이 진했을 때 이 꽃을 꺾어들라고 금강산 곳곳에 초롱꽃을 심고 가꾸었다.

금강산을 아끼고 사랑해온 오누이의 아름다운 마음이 꽃으로 피여난듯 고운 이 꽃이 금강산에서 피여났다 하여 《금강》, 초롱처럼 생겼다 하여 《금강초롱》이란 이름을 가지게 되였다고 한다.

금슬

부부사이의 다정한 의를 이르는 말이다.

《금슬》의 《금》은 거문고라는 뜻이고 《슬》은 비파라는 뜻이다. 거문고와 비파는 합주를 할 때 두 악기의 소리들이 서로 잘 어울린다. 여기로부터 부부사이에 의가 좋은것을 소리가 잘 어울리는 거문고와 비파에 비겨 《금슬이 좋다.》고 한다. 《금슬》을 《금실》이라고도 하는데 이것들은 다 같은 말들이다.

금잔옥대

수선화꽃을 달리 이르는 말이다.

《금잔옥대》란 금으로 만든 술잔과 옥으로 만든 잔대라는 뜻이다. 수선화꽃을 들여다보면 노란꽃복판은 마치 금술잔같고 하얀 꽃잎은 옥으로 만든 잔대처럼 보인다.

수선화꽃을 《금잔옥대》라고 하는것은 이러한 수선화꽃이 생긴 모양과 색갈에서 유래되였기때문이다.

금은화(인동덩굴)

인동덩굴과에 속하는 식물이다.

밤빛의 짧은 털이 온몸에 덮이고 잎은 마주 붙는다. 이것을 《금은화》라고 하는것은 꽃이 처음에는 은빛에 가까운 흰색을 띠다가 나중에는 금색에 가까운 노란색으로 변하기때문이다.

금은화는 우리 나라와 중국 동북지방에 많이 분포되여있다. 겨울에 추위에도 잘 견딘다고 하여 《인동》이라고도 한다.

기나리

우리 나라 서도민요의 하나이다.

《기나리》라는 말은 《긴아리》가 변한것인데 여기서 《긴》은 길다는 뜻의 말뿌리가 규정형으로 된것이고 《아리》는 《우리》의 《우》가 《아》로 변한것이다.

따라서 《기나리》란 《긴울이》 즉 《길게 뽑는 노래》라는데서 불리워진 이름이다.

서도민요의 대표적작품인 《룡강기나리》의 선률적특징은 길게 뽑는것이라고 할수 있다.

기승전결

시문학작품의 구성원칙을 말한다.

《기승전결》이란 말은 원래 절구의 구성원칙에서 유래되였는데 그후에는 다른 시가작품들에서도 쓰이게 되였다.

절구의 4개 구는 작시법의 견지에서 볼 때 각각 감정정서

발전의 일정한 단계를 특징짓고있다. 4개 구가운데서 1구는 기구, 2구는 승구, 3구는 전구, 4구는 결구이다.

여기서 《기》는 일어나다, 시작하다는 뜻인데 문제의 제기로서 사건발생에 해당하며 《승》은 잇다, 받들다는 뜻으로서 《기》에서 제기된 내용을 이어나가는 사건발전에 해당한다. 《전》은 굴다, 옮기다는 뜻으로서 결정적순간에로 전환시키는 사건의 절정에 해당하고 《결》은 맺는다는 뜻으로서 사건해결에 해당한다.

기쁘다

기분이 좋고 마음이 즐겁다는 말이다.

《기쁘다》의 어원은 《깃다》이다.

《좋아하다》, 《즐거워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옛날말 《깃다》에 뒤붙이 《브》, 《그》가 어울려 《깃브다》, 《깃그다》로 되고 그것이 후에 《기쁘다》, 《기껍다》로 변화되였다.

오늘 흔히 쓰이는 《기쁘다》와 《기껍다》는 어원이 같은 말이다.

《기쁘다》는 기분이 좋고 마음이 즐겁다는 뜻이고 《기껍다》는 속마음이 기쁘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기꺼이》라고 할 때는 《마음속으로부터 기쁘게》라는 뜻을 가진다.

김

논밭에 나는 농작물에 해를 주는 잡풀을 말한다.

《김》은 옛날말 《기슴》이 변화된것이다.

《훈몽자회》에서는 김을 모두 《기슴》이라 새기고있다.

《기슴》은 《길다》는 의미의 옛날말 《깃다》의 말뿌리에 바꿈토 《음》이 붙어 체언화된것이다.

《김》은 뽑아주어도 자꾸 길게 자란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함경도사람들은 지금도 《기슴》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김》의 옛날말흔적이다.

김치

무우, 배추를 비롯한 여러가지 남새와 산나물 등에 양념을 섞어서 미생물의 도움으로 발효시켜 만든 우리 나라의 전통적이며 고유한 민족음식의 하나이다.

김치를 옛날에는 《디히》라고 하였다.

《디히》의 어원은 《짓다》이다.

《훈몽자회》에서는 김치를 《딤치》라고 쓰고있다. 《딤치》는 다시 《짐치》를 거쳐 《김치》로 되였다. 결국 《김치》란 지은것 즉 담근것이란 뜻이다.

개밥바라기

예로부터 우리 인민이 저녁무렵 서쪽하늘에 보이는 별—금성을 가리켜서 부른 말이다. 금성을 《새별》이라고도 한다.

금성을 《개밥바라기》, 《새별》이라고 하는것은 한가지 별에 대한 명명적계기가 다르기때문이다. 새별은 새벽 또는 이른아침에 보이는 금성에 대한 명명이고 《개밥바라기》는 저녁에 보이는 그 별에 대한 명명이다.

《새별》은 새벽에 동쪽(새)하늘에 나타나는 별이라고 하여 지은 이름이고 《개밥바라기》는 저녁때 개에게 개밥을 주는 녀인이 바라보게 되는 별이라고 하여 지은 이름이다.

《개밥바라기》는 저녁에 서쪽하늘에 큰 별(금성)이 나타나기만 하면 영낙없이 개가 주인앞에서 꼬리를 저으며 저녁밥을 바라게 된다는 우리 인민의 오랜 생활체험과 결부된 이름이다.

개성

우리 나라 중부에 자리잡고있다.

개성은 근 500년동안 고려봉건국가의 수도로 되여있었다. 이 고장은 고구려때에 부소갑으로, 후기신라시기에 송악군으로 불리워왔다.

《개성》은 성을 연다는 뜻이고 《부소갑》, 《송악》은 소나무산이란 뜻이다.

919년에 고려가 이곳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개주》라고 하였다. 개성을 《개경》, 《황도》라고도 불렀는데 이것은 수도라는 뜻에서 붙여졌던 이름이다.

귀틀집

굵은 통나무를 사개를 맞추어가면서 벽체를 쌓아올려 지은 집을 말한다.

《귀틀집》에서 《귀》는 어떤 물건의 모서리가 되는 부분을 나타내는 고유조선말인데 여기서는 통나무의 량쪽끝을 의미한다. 《틀》은 엮거나 짜거나 튼다는것을 의미한다.

결국 《귀틀집》이란 통나무의 량쪽 귀를 서로 틀어서 지은 집이라는데서 유래되였다.

광한루

전라북도 남원시에 있는 루정을 말한다.

처음에는 《광통루》로 부르다가 15세기에 고쳐짓고 《광한루》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1597년에 왜적에 의해 불탔던 것을 1626년경에 다시 지었다.

《광한루》란 앞이 활짝 넓게 트이고 찬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온다는 의미에서 불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ㄴ-ㄹ

나그네

일반적으로 떠다니는 사람이나 남자어른을 가리키는 말이다.

《훈몽자회》에서는 《나그네》를 《나가내》라고 쓰고있다. 그런가 하면 《박통사언해》에서는 《나그내》라고 표기하고있다.

결국 《나그네》라는 말은 《나가내》, 《나그내》가 변화된것이라는것을 알수 있다.

《나가내》나 《나그내》는 다같이 나간 사람을 의미한다. 지금은 딴 곳에서 자기 집을 찾아온 사람을 이르기도 한다.

나도밤나무

합다리나무과에 속하는 밤나무와 비슷하게 생긴 나무의 한 종류이다.

이 나무의 이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있다.

16세기의 녀류문장가인 신사임당은 어려서부터 재주가 뛰여난 자기 아들 률곡을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 무척 품을 들였다. 담키우기, 시짓기, 글씨쓰우기 등 여러가지 훈련을 주는 한편 뜻있는 사람들과 아들의 장래를 놓고 의논하기도 하였다.

률곡이 6살 잡힌 해인 어느날 금강산에서 산다는 중이 그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와 그의 재주를 여러가지로 시험해본 후 관상까지 봐주었다.

중은 말하기를 률곡이 큰 인물이 될 기상을 타고났는데 범을 피하기만 하면 된다는것, 그러자면 어디든지 시골댁을 정하고 밤나무 1 000그루를 심어 가꾸며 그 그늘곁에서 자식을 길러야 한다는것이였다. 그러면서 밤나무를 10년동안 길러서 한그루도 죽이지 않으면 범을 피할수 있다는것이였다.

이 말을 들은 후 신사임당은 남편에게 권고하여 서울로부터 푸주밤골동네에 내려가 집을 정하고 주변에 구뎅이를 파고 1 000그루의 밤나무를 줄을 맞추어 심은 다음 죽지 않도록 정성을 다해 키웠다. 률곡의 부모가 밤나무를 가꾸는데 많은 노력을 들인 결과 1 000그루의 밤나무가 잘 자라나 범이 아들을 잡으러 올 때마다 진처럼 막아주어 들어오지 못하였다고 한다.

몇해후 관상을 보았던 중이 다시 찾아와서 률곡 부모의 지성을 시험하려고 그들과 함께 밤나무를 세여보았는데 아무리 세여보아도 999그루밖에 되지 않았다.

률곡의 부모가 너무 안타까와 하늘을 향해 원통해하며 가슴을 쥐여뜯으니 옆에 서있던 밤나무와 비슷하게 생긴 나무 한그루가 《나도 밤나무야.》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나리

낡은 사회에서 권세를 가진 사람을 높여 부르던 말이다. 《나으리》라고도 한다.

《나리》나 《나으리》는 다같이 일정한 대상보다 높다는 뜻을 가진 《낫다》의 옛날말인 《나스다》에 어원을 둔 단어이다.

《나스다》는 《나슬이》가 되였다가 《나으리》로 되였고 다시 《나리》가 되였다.

《나리》나 《나으리》는 본래 봉건사회에서 평민보다 높은 사람들을 이르던 말이다. 한마디로 봉건사회에서 정3품 아래의 벼슬아치를 대접하여 불렀다.

남새

부식물로 먹기 위하여 심어 가꾸는 밭작물을 통털어 이르는 말로서 여기에는 잎남새, 열매남새, 뿌리남새가 있다.

《남새》란 말은 《나물》과 《새》로 이루어진 합친말로서 옛날에는 《나무새》라고 하였다.

사투리에서는 지금도 남새를 《나무새》라고 한다.

《나무새》에서 《나무》는 《나물》이란 말이 변한것으로서 먹을수 있는 풀이라는 의미라면 《새》는 일반적인 풀을 의미한다.

너럭바위

너럭바위란 넓고 평평한 바위를 말한다.

여기서 《너럭》은 《너르(다)》의 말뿌리에 뒤붙이 《억》이 붙어 명사로 된 말이다.

《너르다》는 넓다는 뜻을 나타낸다. 《억》은 《주먹(줌+억)》 등에서 쓰이는것과 같은 뒤붙이이다.

노랗다

색갈을 나타내는 《노랗다》라는 말은 산짐승인 《노루》에 그 어원을 두고있다.

《노르다》는 《노루》란 말보다 후에 생긴 말로서 노루의 색갈에 비겨서 만들어진 단어이다.

따라서 《노르다》는 노루와 같은 빛이란 뜻이다.

《노르다》, 《노랗다》, 《누르다》, 《누렇다》는 말도 다 노루의 색갈과 같은 빛이란 뜻에서부터 생긴 말이다.

녹초

사람이나 어떤 물건이 아주 맥이 풀리여 늘어진 상태를 이르는 말이다.

본래 《녹초》는 《녹은 초》라는 뜻으로서 녹은 초처럼 보잘것없이 된 상태를 말한다.

여기에 비유하여 사람이 아주 피로했거나 술을 너무 마셔 정신이 없는 상태, 물건이 낡고 헐어서 여지없이 된것을 이르기도 한다.

농탁(막걸리)

농사일을 할 때 일을 한 사람들에게 먹이기 위하여 빚은 막걸리를 달리 이르는 말이다.

말하자면 맑지 못하고 흐린 술을 말한다. 《막걸리》라고도 한다.

《농태기》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농탁》에 뒤붙이 《이》가 붙으면서 변화된것이다.

《농탁》이란 말에서 《농》은 농사 또는 농민이란 뜻이고 《탁》은 흐리다, 뿌옇다, 맑지 못하다는 뜻이다.

옛날에는 사람들을 데려다 쓰는 날에는 식사때 그들에게 의례히 막걸리를 대접하였는데 막걸리는 맑지 못하고 흐릿하며 알콜성분이 매우 낮은것이 특징이다. 이것을 농사철에 일시킨 사람들에게 먹이는 술이라고 하여 《농탁》이라고 하였다.

누에

뽕잎을 먹고 고치를 짓는 벌레를 말한다.

《눕다》의 옛날말 《누부다》에 어원을 두고있는 《누에》는 사투리로 《누비》 또는 《누베》라고 한다.

《누에》란 말은 《누워있는것》 또는 《누워있는 벌레》란 뜻이다.

다람쥐

청서과에 속하는 짐승의 한가지이다.

달린다는 뜻을 나타내는 《다람》의 옛날말 《다라다》는 명사로 만들어질 때 《달림》, 《달음질》의 뜻을 나타내게 되였다.

따라서 《다람쥐》는 《달리는 쥐》라는 뜻이다.

다박솔(다복솔)

다보록하게 가지가 퍼진 잔솔을 말한다.

《다복솔》이란 형용사 《다보록하다》에 어원을 둔 말로

서 《다보록하다》의 말뿌리 《다복》에 소나무를 의미하는 《솔》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말이다. 《다보록하다》는 머리털이나 수염 또는 풀이나 작은 나무아지 같은것들이 짧고 배게 돋아서 소담한것을 말한다. 다박솔은 다른 소나무들에 비하여 키가 작고 가지가 다보록하게 퍼져있어 보기에 매우 소담하다.

《다복솔》이란 말은 바로 이 소나무의 생긴 모양에서 유래되였다. 《다복솔》에서 《복》은 《박》으로도 발음된다.

그리하여 지금 《다복솔》이란 말과 함께 《다박솔》이라는 말도 쓰이는데 둘 다 문화어이기는 하지만 생활에서 더 널리 쓰이는것은 《다박솔》이라는 말이다.

달거리

정월부터 섣달까지 매달을 시가의 한 절로 하고 12개의 절로 나누어 만든 독특한 시가형식을 말한다.

《달거리》의 《거리》는 사이, 동안, 시간 등을 나타낸다. 《달거리》는 매달사이라는 뜻으로서 《달풀이》라고도 한다.

《달거리》에서는 매달의 행사와 그달의 자연, 기후상태나 민속 등을 반영하면서 그것을 풀이하고있다.

《농가월령가》, 《동동》, 《관동가》, 《사천가》 등은 달거리형식으로 된 시가들이다.

달맞이꽃

바늘꽃과에 속하는 두해살이먹이풀의 한가지이다.

이 꽃을 《달맞이꽃》이라고 부르는것은 다음과 같은 옛

이야기와 관련되여있다.

고려때 평양에 고향을 둔 김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나라의 중요한 외교사업을 맡아보는 관원이였다.

어느해 그는 볼일이 있어 황초령이북지역으로 가게 되였다. 황초령을 넘어 고원지대를 려행하는 도중에 갖가지 아름다운 꽃들을 보게 되였는데 그가운데서도 고요한 달빛아래 소복단장한 녀인의 모습처럼 독특한 정서미를 자아내는 이름모를 노란 꽃이 그의 마음을 특별히 끌었다.

김괴는 그 꽃의 뿌리를 정히 캐가지고 와서 정성들여 키웠다.

어느날 문사로 자처하는 한 친구가 김괴의 집에 왔다가 처음 보는 그 꽃을 보고 무슨 꽃인가고 물었다.

김괴는 그 꽃을 가져온 사연을 이야기하면서 아직 꽃이름을 짓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그러자 그는 황초령에서 가져왔다는 의미에서 《황초롱꽃》이라고 하는것이 어떤가고 하였다. 김괴는 초롱꽃은 못된다고 하면서 이 꽃은 낮에는 시들었다가도 밤이면 이슬을 머금고 피여나 밝은 달을 마중하는것이 특별히 이채를 띤다고 하였다. 그러자 그 친구는 즉흥시 한수를 읊었다.

달이 떴네 꽃이 웃네
나그네야 가지 말아
유정할손 간절할손
황초령의 달맞이라

시를 듣고있던 김괴는 무릎을 탁 치면서 《달맞이꽃! 참, 그럴듯한 이름이군!》라고 하였다.

그때로부터 이 꽃을 《달맞이꽃》이라고 부르게 되였다고 한다.

닻

바다나 호수, 강하천에서 배 또는 그밖의 물에 띄운 물체가 물결에 밀려가지 않게 하며 편리한 곳에 안전하게 머무르도록 하기 위하여 쓰이는 기구를 말한다.

《훈몽자회》에서는 《닻》을 《닫》이라고 쓰고있으며 《청구영언》에서는 《닷》이라고 쓰고있다.

《닫》은 《닿다》의 옛날말인 《닫다》의 말뿌리가 명사화된것이다.

물체가 마주 닿는다는것을 《닿치다》라고 하는데 옛날말 《닫》은 현대어에 와서 《닻》으로 되였다. 《닻》은 본래 《닿은것》이란 뜻이다.

덕(더기)

주변지대보다 높이 두드러진 평탄한 땅을 말한다.

《덕》이란 《더기》의 준말이다.

홍량호의 《북새기략》에서는 높은 언덕을 《덕》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오늘 《덕》이란 말은 독자적으로는 별로 쓰이지 않고 《덕지대》, 《곤장덕》, 《검덕》, 《오수덕》, 《신덕》 등과 같이 합친말형식으로 일부 쓰인다.

《덕》은 《봉》이나 《악》과는 달리 산둘레의 물매는 급

하지만 산꽉대기는 평평하면서도 높은 산을 가리키는 말이다.

《봉》이라 하는것은 보통 뾰족하고 물매가 급한 산을 말하고 《악》은 《메부리》라는 의미로서 《봉》보다 물매가 더 급하고 험하다는 뜻이다. 《룡악산》, 《송악산》, 《설악산》, 《치악산》의 《악》도 다 메부리라는 뜻이다.

도라지

도라지과에 속하는 산나물의 하나이다.

일명 《길경》이라고도 한다.

초가을에 종모양의 아름다운 꽃이 보라빛 또는 흰빛으로 핀다.

이것을 《도라지》라고 하는것은 다음과 같은 전설과 관련되여있다.

옛날 금강산 어느 골짜기에 화전을 일구어 근근히 살아가는 도가성을 가진 로인과 라지라고 부르는 아름다운 외동딸이 있었다.

로인과 딸은 하루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일했으나 살림은 날로 쪼들리기만 했다. 게다가 3년전 라지의 어머니가 돌아갔을 때 장례를 치르느라고 고개너머 부자놈에게서 꾸어온 돈은 날마다 새끼를 쳐서 리자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부자놈은 처녀의 아름다움을 탐하여 선심이나 쓰듯이 로인이 상처하자 선뜻 변돈을 내여주었던것이다.

마을사람들은 로인가정의 딱한 사정을 두고 자기 일처럼 걱정했으며 특히 뒤집에 사는 나무군총각의 생각은 각별했다. 그 총각으로 말하면 라지와 소꿉시절부터 함께 자란

송아지동무였으며 점차 커가면서 라지와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

어느날 부자놈은 로인을 불러다놓고 어머니의 3년상이 되는 날까지 빚을 갚지 못하면 라지를 자기의 후실로 들여보내야 한다고 을러메고는 계약서에 억지로 손도장을 누르게 하였다.

어머니의 3년상이 되는 날 라지의 집에는 한채의 큰 가마가 나타났다. 라지는 부자집 녀종들이 입혀주는대로 칠보단장을 한 다음 아버지에게 큰절을 올리고 가마에 올랐다. 통곡과 눈물로 부녀간의 리별이 잠시 지체되는듯 하였으나 가마는 곧 뜨락을 나섰다.

가마가 어머니의 무덤이 있는 고개마루에 이르렀을 때였다. 라지는 가마를 세우고 밖에 나섰다. 그런데 그의 몸에는 어느새 칠보단장이 벗겨지고 소복이 걸치여있었다.

라지는 집쪽을 향해 아버지에게 다시한번 절을 올린 다음 길옆에 있는 어머니의 산소앞에 엎드려 다소곳이 절을 하였다.

이윽고 단호한 결심을 품고 결연히 일어선 라지는 하늘을 쳐다보며 《어머니!》 하고 피타게 부르짖더니 무덤옆에 있는 낭떠러지로 몸을 던졌다.

얼마후 마을사람들은 그의 시체를 찾아 어머니의 무덤곁에 나란히 묻어주었다.

이 사실을 뒤늦게야 알게 된 나무군총각이 달려왔을 때 라지의 무덤에는 하얀 꽃 한송이가 곱게 피여나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고있었다. 사랑하는 나무군총각에게 죄스러운

마음으로 얼굴을 내민 라지의 아름다운 모습이런듯…

나무군총각은 아름다운 그 꽃을 무릎을 꿇고 소중히 받쳐안으며 나직한 목소리로 불렀다.

《도라지!》

이때로부터 마을사람들은 그 꽃을 처녀의 성과 이름을 붙여 《도라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으며 그 이름이 오늘도 널리 불리워지고있다.

도루메기

찬물을 좋아하는 바다물고기의 한가지이다.

《은어》라고도 한다. 이 물고기의 본래 이름은 《메기》였다.

그를 《은어》 또는 《도루메기》로 부르게 된데는 다음과 같은 유래가 있다.

옛날 어느 왕이 란리가 나서 동해안지역에 가있었는데 먹을것이 떨어져서 며칠째 배를 곯고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신하들이 바다에서 메기를 잡아다 왕에게 료리를 만들어 대접했더니 왕은 그 맛이 아주 좋다고 하면서 매우 흡족해하였다. 왕은 란리를 만나 고생을 하는 때에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고기이니 그 이름을 《은어》라고 부르도록 하였다.

란리가 평정된 다음 왕궁에 돌아온 임금은 동해안지방에 갔을 때 맛있게 먹던 물고기생각이 나서 은어를 다시 찾았다. 신하들이 은어를 가져다 료리를 잘하여 왕에게 대접하였다.

그런데 왕은 그것을 먹어보더니 란리때에 먹던 은어는 맛이 대단히 좋았는데 이 물고기는 왜 맛이 없는가고 하였다. 동해안지역에서 먹을 때는 란리로 모든것이 다 부족하였기때문에 은어의 맛도 유별나게 좋아보였지만 태평세월에 온갖 진수성찬이 차례지는 왕궁에서 은어 같은것이 어떻게 별맛으로 느껴지겠는가.

실망한 왕은 입이 쓰거운듯 얼굴을 찡그리더니 이것을 《은어》라고 하지 말고 도로 《메기》라고 부르도록 령을 내렸다.

그리하여 동해에서 사는 메기의 이름이 《은어》로 되였다가 다시 《도루메기》로 되였다.

도리여

《어떤 말이나 행동의 결과와는 반대되게》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다.

《도리여》는 동사 《돌다》의 말뿌리에 이음토 《여》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인것으로 하여 반대쪽으로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 《돌다》의 뜻이 그대로 살아있다.

도마뱀

뱀거북류에 속하는 동물의 하나이다.

도마뱀의 특징은 꼬리를 쥐면 토막토막 끊어지는것이다.

《도마뱀》이란 말은 토막토막 끊어지는 뱀이라는 뜻에서 불리워진 이름이다. 《도마》란 《토막》을 의미하던 옛날말인것이다.

도수승

어떤 나쁜 마음을 먹고 부정적인 일을 하려다가 실패하고 갖은 고생을 다하는 사람을 야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도수승》이란 말에서 《도》는 건는다거나 뛴다는 뜻이고 《수》는 물이라는 뜻이며 《승》은 중이라는 뜻으로서 물건느는(물속을 뛰여가는) 중을 말한다.

《도수승》이란 말은 다음과 같은 옛이야기에서 유래되였다.

옛날에 어떤 중 하나가 과부를 살살 꼬여 결국은 그에게 장가를 들게 되였다. 이것은 중으로서 불교의 교리를 어기는 행동이였다.

이것을 아니꼽게 생각한 상좌(스승중의 대를 이을 여러 제자가운데서 높은 지위의 사람)가 중이 녀자네 집에 가는 날 저녁 그를 골탕먹일 작정으로 이렇게 말하였다.

《이보게, 날콩을 갈아 물에 타서 마시면 양기가 좋아진다우.》

중이 그 말을 곧이듣고 그대로 했더니 길에서부터 배가 부글부글 끓었다. 거의 기다싶이 하여 과부의 집에까지 간 중은 방안에 들어가 발뒤꿈치로 홍문을 잔뜩 고이고 앉아 꼼짝달싹하지 못했다. 과부가 그 꼴을 보고 왜 이렇게 제웅(짚으로 만든 사람)처럼 앉아있느냐고 하면서 바로 앉으라고 슬쩍 밀쳐놓았다. 그바람에 배설물이 쫙 나오면서 온 방안에 구린내가 꽉 찼다. 과부네 집식구들은 몽둥이를 들고나와 중을 쫓아버렸다.

과부의 집에서 쫓겨난 중이 밤중에 길을 더듬어오는데 눈

앞에 허연것이 보였다.

《야백수라, 밤에 허옇게 보이는것은 물이라고 했지.》

중은 바지가랭이를 걷고 들어섰는데 그것은 물이 아니라 꽃이 활짝 핀 메밀밭이였다.

중이 화가 나서 걸어오는데 또 허연것이 눈에 보였다.

(다시는 속지 않을테다.)

중은 바지를 입은채로 거기에 들어섰는데 이번에는 진짜 물이였다.

밤새껏 설사하고 옷까지 몽땅 적신데다가 아무것도 먹지 못한 중은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였다. 할수없이 중은 어둠속에서 손더듬으로 마를 찾아 캐먹었다. 별맛이였다.

이때 멀리서 원의 행차가 가까와오는 소리가 들렸다. 중은 얼른 다리밑에 숨었다. 중이 가만히 생각하기를 원에게 마를 대접하면 칭찬도 받고 밥도 얻어먹을수 있을것 같았다.

그래서 원의 행차가 다리에 들어서려고 할 때 중은 벌떡 뛰쳐나갔다. 그바람에 깜짝 놀란 원이 그만 말에서 뚝 떨어졌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오른 원은 중을 개패듯 두들겨놓고 가버렸다.

중이 다리밑에 쓰러져있는데 순행을 돌던 군관들이 《다리밑에 어떤 중놈의 시체가 있네. 우리 무기쓰는 법이나 한번 련습해보세.》라고 하며 다가들었다. 그런데 한놈이 《중놈의 신은 약으로 쓴다지. 내가 베여가야지.》라고 하며 칼을 빼들었다.

급해맞은 중은 비명을 지르며 냅다 뛰였다.

죽기내기로 들고뛰여 절까지 왔으나 문이 닫겨있었다. 중이 큰소리로 상좌를 찾아 문을 열라고 하니 그가 말하기를 《그 스님은 처가집에 가고 없다! 어떤 놈이 밤에 와서 야단이야?!》 하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중은 할수없이 개구멍으로 기여들어가려고 하였다.

그러자 상좌는 《이놈의 개가 어제 밤에도 와서 부처님앞에 놓은 기름을 다 핥아먹더니 오늘 또 왔구나!》 하며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어 중을 두들겨팼다. 중은 과부옆에 앉아보지도 못하고 온밤 봉변만 당하였다.

독도

우리 나라 동쪽으로 가장 멀리 있는 섬의 이름이다.

이 섬의 이름과 관련하여 두가지 이야기가 전해지고있다.

하나는 울릉도사람들이 이 섬을 가리켜 사람도 살지 않는 홀로 외롭게 서있는 섬이라고 한데로부터, 다른 하나는 돌이 많은 섬이라는데로부터 《독도》라고 한다는것이다. 경상도사투리로 돌을 《독》이라고 한다.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해있는데 32개의 바위섬들과 암초로 이루어져있어 농사는 지을수 없다고 한다. 때문에 경상도사람들과 제주도사람들이 봄부터 가을까지 이 섬에 와서 풍막을 쳐놓고 물고기잡이를 하다가 겨울이면 돌아가군 하였다고 한다.

동곳

지난날에 상투가 풀어지지 않게 꽂은 물건이나 비녀를 이

르던 말이다.

《동》은 구리란 뜻이고 《곳》은 뾰족한 부분을 이르는 말이다.

결국 《동곳》이란 《구리로 된 뾰족한것》이라는 뜻이다.

동정

조선옷에서 깃우에 빳빳하고 좁다랗게 흰 천으로 댄것을 말한다.

《동정》은 《동령》이란 말의 발음이 변화된것이다.

《동령》이란 말에서 《동》은 동쪽이라는 뜻으로서 우리 나라를 말한다. 《령》은 거느린다는 뜻과 함께 옷깃이라는 뜻도 가지고있다. 결국 《동령》이란 조선사람들의 옷깃이라는 뜻인데 이 말이 후에 어음변화과정에 《동정》으로 되였다.

조선사람들은 치마나 저고리는 여러가지 색갈로 만들어 입었지만 동정만은 흰 천으로 만들었다. 그것은 흰색이 우리 인민의 순결성을 상징한것이기때문이다.

두더지

두더지과에 속하는 땅속에 사는 작은 짐승의 한가지이다.

《훈몽자회》에서는 《두더지》를 《두디쥐》라고 표현하고 있다.

《두디》는 《뚜지다》의 옛날말인 《두디다》의 말뿌리이다.

《두디》가 《두더》로 되고 《쥐》가 《지》로 된것은 발음상관계이다. 《두더지》는 결국 《땅을 뚜지는 쥐》라는

뜻이다.

두더지의 특성은 볕을 싫어하며 뾰족한 주둥이로 땅을 잘 뚜지는것이다. 《두더지》라는 이름은 이러한 특성으로부터 불리운 이름이다.

두루미

우리 나라 새가운데서 가장 키가 큰 새이다.

두루미를 보통 《학》, 《백학》, 《천학》이라고도 한다.

1527년에 편찬된 《훈몽자회》에는 이 새에 대하여 《학》이란 말과 《두루미》라는 말이 함께 씌여있다. 목과 다리가 긴 새인 두루미는 《뚜름－ 뚜름－》 하며 운다. 그러므로 예로부터 그 울음소리를 본따서 《두루미》라고 하였다.

두메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구석진 산골지방을 이르는 말이다.

《두메》에서 《두》는 땅 또는 산을 의미하는 옛날말 《다나》, 《도노》, 《두누》의 변종으로서 《두던》, 《두듥》과 관련되는 말이다. 이 말들은 옛날말로서 두두룩한 곳이란 뜻이다.

《메》도 산이란 뜻이다.

결국 《두메》란 본래 두두룩한 높은 산이란 의미로서 오늘은 그러한 높은 산이 있는 고장을 말한다.

두봉화

진달래과에 속하는 잎지는 떨기나무이다.

이 꽃나무를 《두봉화》라고 부르는것은 묘향산석탑에 깃든 전설과 관련된다고 한다.

먼 옛날 묘향산 월림마을에 솔이라는 처녀와 석동이라는 총각이 살고있었다.

어느날 마을사람들속에서 오래지 않아 오랑캐놈들이 쳐들어올것이라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보현사의 중들은 보현사를 지은지 오래되였는데 이제 여기다 9층석탑 하나를 더 세우고 부처께 재를 올린다면 오랑캐의 환난을 면할것이라고 하였다.

이 말을 곧이들은 마을사람들은 농사철이 되여오는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석탑을 쌓는데 떨쳐나섰다.

이 광경을 안타깝게 바라보던 석동은 군사와 백성들이 굶고서야 석탑을 쌓은들 어찌 놈들과 싸울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자기 혼자힘으로 100일동안에 석탑을 세워놓겠으니 모두 돌아가 농사에 힘쓰라고 호소하였다. 이리하여 석동은 혼자서 석탑을 쌓는 일을 하게 되였다.

떠나는 날 석동은 옥구슬 10개를 솔이에게 주면서 쉰날이면 기쁜 소식을 전하고 백날이면 돌아오겠으니 열흘에 한번씩 옥구슬을 목에 걸라고 하였다.

그런데 약속한 쉰날이 지나고 일흔날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다. 석동이가 다듬던 석탑지붕돌 2개가 그만 금이 가서 약속한 백날안으로 탑을 세우기 어렵게 되였던것이다. 중들은 부처에게 약속한 날자를 어기면 석동이를 산채로 탑밑에 묻어 부처의 노여움을 풀겠다고 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솔이는 단숨에 보현사로 달려갔다.

그러나 중들은 신성한 탑을 쌓는 곳에 녀자가 가까이 가면 부정을 탄다고 하면서 처녀를 빙 둘러싸고 잡귀를 쫓는 념불을 외우기 시작했다. 솔이는 중들의 눈을 피해 보현사 뒤산으로 올라 먼발치에서 돌을 쫓는 석동이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해는 사정없이 산너머로 저물어버렸다. 날이 어두우니 석동이도 할수없이 일손을 놓고말았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백날안에 석탑쌓기를 끝낼수 없을것은 뻔하였다.

다음날 저녁녘이였다. 솔이는 해가 서산마루로 넘어가려고 할 때 진분홍치마폭을 펼쳐들고 이글거리는 해빛을 휘감아안았다. 그리고는 나는듯이 보현사 뒤산으로 달려가 꽃나무가지에 매달았다. 그러자 어둡던 골짜기는 삽시에 밝아졌다.

신기하게도 해빛을 매단 그 꽃나무에서는 처녀의 치마색갈을 닮은 진분홍빛꽃송이들이 앞을 다투어 피여나기 시작하더니 석탑을 세우는 앞마당을 환히 밝혀주었다. 석동이는 지체없이 돌을 다듬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석탑에 검은 그림자가 얼른거리면서 그의 일손을 방해하고있었다. 향기를 찾아 모여든 수많은 벌과 나비들이 꽃송이를 뒤덮어 해빛을 가리우고있었던것이다. 처녀가 쫓아버리면 저만큼 날아갔다가는 또 날아오군 하였다.

처녀는 너무도 안타까와 꽃나무를 쓸어안으며 《너도 이 나라의 꽃이 아니냐. 향기를 거두어 벌과 나비를 막아다오.》라고 하면서 애절하게 호소하였다.

그러자 그토록 향기를 풍기던 꽃가루들이 부실부실 떨어

지면서 향기는 가뭇없이 사라지고 벌과 나비들도 어데론가 날아가버렸다.

드디여 백날만에 석동은 마지막지붕돌을 다듬어 탑우에 올려놓았다. 그러나 뜨거운 해빛에 온몸을 지지우며 서있던 솔이는 한그루의 꽃나무아래에 고이 쓰러진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였다.

이때로부터 화창한 봄이 오면 묘향산기슭과 바위짬에는 솔이의 넋이 담긴 진분홍빛꽃들이 어김없이 피군 하였는데 사람들은 석탑을 쌓던 날 밤 벌과 나비를 막으려고 꽃가루와 향기를 털어버린 꽃이라는 뜻에서 그 꽃을 《두봉화》라고 부르게 되였다. 《두》는 막는다는 뜻이고 《봉》은 벌이라는 뜻이며 《화》는 꽃이라는 뜻이다.

두꺼비

두꺼비는 개구리와 비슷하나 그보다 크며 살가죽이 두껍고 온몸에 우둘투둘한것이 돋은 량서류의 한가지이다.

두꺼비라는 말은 살가죽이 두껍다는데서부터 생긴 말이다.

옛 국문문헌들에서는 두꺼비를 《두터비》, 《두텁》이라고 했으며 17～18세기에 와서도 그렇게 썼다.

《두터비》도 역시 두터운것이라는 의미로 쓰이면서 변화되여 오늘날의 《두꺼비》로 되였다.

대동문

청류벽을 감돌아 유유히 흐르는 아름다운 대동강기슭에 련광정과 이웃하여 우뚝 솟아있는 평양성의 동쪽문을 말한다.

《대동문》은 대동강기슭에 있다 하여 불리워진 이름이다.

대동문이 건축된것은 6세기 중엽이였는데 그후 여러차례에 걸쳐 다시 지었다. 오늘의 건물은 1635년에 새로 지은 것이다.

평양성의 동쪽문으로 지은 대동문은 일명 《읍호루》라고도 불리워왔는데 《읍》은 뜬다는 뜻이고 《호》는 물이 가없이 넓다는 뜻이며 《루》는 루정이란 뜻으로서 문루란간에서 발밑을 씻을듯 흐르는 맑은 물을 능히 떠올려 마실것만 같다는 대동문의 아름다운 운치를 나타낸데서 온 이름인것이다.

대승폭포

태백산줄기의 설악산과 한계령사이에서 북천과 한계천의 분수령을 이루면서 서쪽으로 뻗어있는 안산 남동비탈면에 있는 폭포이다. 예로부터 우리 나라 3대명폭의 하나로 알려져있다.

폭포이름 《대승》은 크게 이겼다는 뜻이다.

봉건통치시기 사대주의자들은 우리 나라에 이름난 폭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의 폭포들을 첫손가락에 꼽군 하였다.

그런데 이 폭포의 절경으로 우리 나라 폭포의 이름이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고 하여 폭포이름을 《대승폭포》라 하였다고 한다.

대승폭포의 이름과 관련하여 설악산의 전설과도 결부시키고있다.

선녀가 못된짓을 하던 지네와 싸워 크게 이겼다는 전설로부터 대승폭포라 하였다고 한다.

대승폭포는 높이가 100㎜이다. 폭포는 규모가 클뿐아니라 사철 떨어지는 물량도 많다.

대웅전

불교에서 주되는 불상이 있는 법당을 말한다.

《대웅전》이란 말에서 《대》는 크다는 뜻이고 《웅》은 수컷 또는 영웅이란 뜻으로서 결국 《대웅》이란 큰 성인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를 의미한다. 그리고 《전》은 집 또는 건물이란 뜻이다. 따라서 《대웅전》이란 석가모니의 불상이 있는 건물이라는 뜻이다.

《대웅전》을 다른 말로 《대웅보전》이라고도 한다.

불교에서는 부처와 보살을 《대사》라고 높이여 부르는데 석가모니는 불교의 창시자라고 하여 특별히 《큰 성인》이라는 의미를 담아 《대웅대사》라고 한다.

《대웅전》이란 바로 이 대웅대사의 불상이 있는 건물이라는 뜻이다.

《대웅전》은 어느 한 절간에만 있는것이 아니라 묘향산을 비롯하여 우리 나라의 불교사원이 있는 모든 곳에 다 있다.

대원군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죽은 왕의 뒤를 이을 자손이 없어 왕족가운데서 다른 집 자손이 왕으로 되였을 때 그의 친아버지를 높여 이르던 말이다.

《대원위》, 《대원왕》, 《국태공》이라고도 불렀다.

봉건사회에서는 뛰여난 임금을 《대왕》이라 하고 왕후의 몸에서 난 왕자를 《대군》이라 하였으며 왕족의 큰 가문을 《대원》이라 하였다.

《대원군》이란 말에서 《대》는 크다는 뜻이고 《원》은 집이란 뜻이며 《군》은 임금이라는 뜻이다.

결국 《대원군》은 새 임금이 비록 죽은 임금의 친아들은 아니라고 해도 왕족이라는 큰 가문에서 나왔으며 따라서 그의 아버지는 왕족이라는 큰 집안에서 으뜸가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된다.

되박

되를 통속적으로 이르는 말이나 되대신 쓰는 바가지나 그릇을 이르기도 한다.

되박을 《훈민정음해례》에서는 《표주박》이라고 쓰고있다.

표주박은 조롱박이나 둥근 박으로 만든 작은 바가지를 의미한다.

결국 되박은 들인다는 뜻으로서 무엇을 담는 그릇을 말한다.

오늘에 와서 《되》는 《들이》 즉 《들어가는것》이라는 뜻으로서 낟알이나 액체 같은것의 분량을 되여 헤아리는데 쓰는 그릇을 말한다.

《되》는 한말의 10분의 1이다.

그런데 옛날에 《되》는 박으로 만들었기때문에 《되박》이라고 하였다.

뒤웅박

쪼개지 않고 속을 파낸 박을 말한다.

《뒤웅박》의 《뒤》는 들인다는 뜻으로서 무엇을 담는 그릇을 말한다.

무엇을 들이는것이란 뜻을 나타내는 《되웅》은 말소리조화현상에 의하여 《뒤웅》으로 변하였다.

《뒤웅박》은 《무엇을 들이는 박》이란 뜻이다.

돼지

《돼지》라는 단어는 돼지가 내는 소리로부터 유래된것이다.

이 짐승의 이름이 없던 옛날에는 이 동물을 부를 때 그것이 우는 소리를 따서 《도도》 또는 《돌돌》이라고 하였다. 지금도 지방에 따라 이 짐승이 내는 소리를 《두두》, 《도도》, 《돌돌》이라고 한다.

그러나 겉으로 나온다는 《돋다》의 《돋》에서 생긴 말로 보는것이 더 유력하다. 《도도》, 《두두》와 같은 짐승소리가 《돋》으로 되기는 어렵다. 돼지주둥이가 특별히 뭉특하게 돋아나왔기때문에 생긴 말로 보인다.

《토끼》도 귀가 특별히 돋아나왔기때문에 생긴 말이고 《귀뚜라미》도 귀가 련속 돋아났다는 특성에서 붙인 이름이다.

《돼지》라는 말이 고구려시기에는 《돗》으로 불리우다가 고려와 조선봉건왕조시기를 거쳐 《돋》 또는 《돌》으로 불리웠다.

력사기록에는 돼지를 《돌아지》라고 하였으며 지금도 일부 지방에서는 《도야지》라고도 한다.

락동강

강원도(남) 태백시 함백산에서 발원하여 경상북도, 경상남도를 지나 부산시에서 조선남해로 흘러드는 강으로서 우리 나라에서 세번째로 긴 강이다.

락동강은 세나라시기 이 류역에 자리잡고있던 봉건국가인 가락국의 동쪽에 있는 강이라고 하여 붙인 이름이다.

락화암

《꽃이 떨어진 바위》라는 뜻인데 백제가 망할 때 궁녀들이 백마강에 몸을 던져 자결하였다는데서부터 유래되였다.

충청남도 부여군의 옛 백제의 수도였던 부여읍에는 백마강(금강이라고도 함.)이 흐르고있으며 강기슭에는 높지 않은 부소산이라는 봉우리가 있는데 여기에 락화암이 있다.

660년에 소정방을 괴수로 하는 당나라침략군이 신라와 야합하여 백제의 왕궁이 자리잡고있던 사비성을 불의에 공격하였다. 왕은 비겁하게 도주하였으나 궁녀들은 당나라침략군에게 포로되느니 차라리 자결을 택하고 부소산의 벼랑에 올라 백마강에 몸을 던졌다. 이때부터 궁녀들이 몸을 던진 벼랑을 《락화암》이라고 하였다. 《락》이란 떨어진다는 뜻이고 《화》는 꽃에 비긴 궁녀들을 의미하며 《암》은 바위라는 뜻이다.

량반

고려와 조선봉건왕조시기 지배계급으로서 특권을 가지고 인민들을 억압착취하는 상류계층을 말한다.

이 단어의 본뜻은 봉건사회에서 문반과 무반을 통털어 이르는 말이였는데 그후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였다.

왕이 조회를 받거나 모임을 가질 때 량쪽에 관리들을 앉히였는데 동쪽에는 문관들을, 서쪽에는 무관들을 앉히였다.

이로부터 문관들은 동반 또는 문반이라 하고 무관들은 서반 또는 무반이라 하였으며 이를 통털어 《반렬》이라 하였는데 이 두 반렬을 일러 《량반》이라 불렀다.

이때의 량반은 순전히 관제상 문무량반을 가리키는 말로서 신분적개념을 가지고있지 않았다. 그러던것이 11세기 중엽에 이르러 관제상의 문무량반과 함께 신분지배층을 가리키는 신분적개념으로 쓰이게 되였다.

롱간

자기의 리속을 차리기 위해 남을 속이거나 또는 남의 일을 그르치게 하려고 간사히 꾀하는것을 이르는 말이다.

《롱간》은 《롱단》이란 말이 점차 변하여 생겨났다. 이 말은 《깎아지른듯 한 밭언덕》이라는 뜻이다.

《롱간》이란 말과 관련하여 이런 일화가 전해지고있다.

옛날 어떤 장사치가 깎아지른듯 한 밭언덕에 올라 그아래에 펼쳐진 장마당을 유심히 살피다가 수요가 제일 높은 물건이 눈에 띄우면 즉시 달려가서 그것을 모조리 사들였다. 후에 그는 사람들이 그 물건을 애타게 찾으면 몇배나

비싼값으로 팔아 큰 리득을 보군 하였다. 이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무슨 일에서나 저 혼자 리득을 보려고 꾀하는것을 《롱단》이라고 하였는데 이 말이 점차 변하여 《롱간》으로 되였다고 한다.

지금도 시장을 제멋대로 좌지우지하며 리익을 독차지하는 행위를 두고 《롱단한다》고도 말한다.

룡문대굴

평안북도 구장군의 룡문산기슭에 있는 지하의 명승지이다.

룡문대굴은 1959년에 룡문탄광 로동자들에 의하여 발견되였다.

그후 위대한 장군님께서 룡문대굴을 세계적인 명승지로서의 풍격을 더 잘 갖추도록 훌륭히 꾸릴데 대하여 주신 교시를 높이 받들고 힘찬 투쟁을 벌려 1995년말에 준공되였다.

수십만년전에 형성된 룡문대굴은 당시 발굴된 굴의 총면적이 6만㎡, 총길이는 6㎞에 달하며 원굴에 수십여개의 아지굴과 풍년동, 석화동, 백화동, 천상락원동, 장석동을 비롯한 20여곳의 명소들을 가지고있다. 옛날 이 고장에서 룡이 나왔다고 하여 《룡문대굴》이라고 한다.

룡악산

평양시 만경대구역에 있는 산이름이다.

《룡악산》이란 메부리가 룡처럼 생긴 산이란 뜻과 룡이 순화강에 꼬리를 드리우고 방금 하늘로 솟아오르는듯 한 위용있고 웅장한 모습을 하고있다 하여 불리워진 이름이다.

산에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사랑과 령도의 자욱 그리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께서 남기신 불멸의 발자취가 아로새겨져있다.

룡올림

더미구름으로부터 물면까지 내리드리운 깔때기모양의 센 공기회리를 말한다.

더운 여름철에 열대공기떼에서 잘 나타난다. 직경은 수m로부터 수백m에 이르며 높이는 수백m, 때로는 1 500m정도에까지 이른다.

이것을 《룡올림》이라고 하는것은 그것이 룡이 하늘로 날아올라가는 모양과 비슷하다는데서 유래되였다.

류두

음력 6월 15일을 민속명절로 이르는 말이다.

《류두》는 《동류두목욕》이란 말이 줄어든 말인데 《동류》란 동쪽으로 흘러내린다는 뜻이고 《두》란 머리라는 뜻이며 《목》은 머리를 감는다는 뜻이고 《욕》은 몸을 씻는다는 뜻이다.

류두날에는 시내나 강가 등 흐르는 물에 가서 머리를 감고 몸도 씻으며 재앙을 막는 술도 마시면서 즐겼다고 한다.

륙혈포

구식권총의 한가지이다.

《륙혈포》라는 이름은 총알을 재우는 구멍이 여섯개로 되

여있다는데서부터 유래되였다.

룩혈포를 일명 《룩혈권총》이라고도 한다.

릉라도

평양의 모란봉을 한옆에 끼고 흐르는 대동강의 한가운데 길게 뻗어있는 섬이다.

이 섬을 《릉라도》라고 하는것은 대동강의 푸른 물에 꽃바구니마냥 두둥실 떠있어 마치 비단을 펼친것 같이 경치가 아름답다고 하여 불리워지게 되였다.

여기서 《릉》은 얇은 비단천, 《라》는 두꺼운 비단천을 나타낸다.

릉라도는 반월도와 하나로 련결되여있다.

전설에 의하면 릉라도는 원래 평안남도 성천에 있었는데 어느해 장마때 평양에 떠내려왔다고 한다.

하루밤사이에 전에 없던 큰 섬이 대동강에 생겼다는 소식은 삽시에 평양장안에 퍼졌고 곧 평안감사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한편 성천에서는 대동강의 지류인 비류강가운데 있던 섬이 밤사이에 없어져 큰 소동이 벌어졌다. 성천부사는 노발대발하여 섬을 빨리 찾으라고 고아댔다. 그것은 섬에서 농사짓고 고기잡이하던 백성들에게서 조세를 받을수 없게 되기때문이였다. 퍽 후에야 섬이 평양에 떠내려갔다는것을 안 성천부사는 거기까지 따라와 조세를 받아가군 하였다. 섬사람들은 평양땅이건 성천땅이건 조세를 물기는 마찬가지이지만 그것을 지고 먼 성천까지 가자니 정말 고생이 막심하였

다. 그래서 섬사람들은 평안감사에게 이 섬을 평양땅으로 만들어달라고 제기하였다. 평안감사는 제놈대로 속생각이 있는지라 이 섬을 당장 평양에 귀속시킬것을 성천부사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욕심이 곰발바닥같은 성천부사가 그 요구를 접수할리가 만무했다. 그러자 평안감사는 이 섬을 당장 평양에서 옮겨가라고 하였다. 평양까지 찾아와 조세를 받아내는 성천부사였지만 섬을 가져갈 재간만은 없었다. 그래서 릉라도는 마침내 평양땅이 되였다고 한다.

ㅁㅡㅅ

마가리

막처럼 비바람이나 막을수 있게 간단히 지은 집을 말한다.

《마가리》는 《막+아리》로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막》은 동사 《막다》의 말뿌리이고 《아리》는 작은것을 의미하는 뒤붙이이다.

《마가리(막아리)》는 《자그마하게 막은것》이라는 뜻으로서 영구건물이 아니라 비바람이나 막을수 있을 정도로 자그마하게 림시 지은 집을 말한다.

마분지

얇은 판대기처럼 만든 두꺼운 종이를 말한다.

《마분지》란 《말똥종이》라는 뜻이다.

마분지는 모조지나 아트지처럼 희지도 못하고 매끈하지도 못하며 얇지도 못하여 포장함이나 책표지, 공업제품을 만드는데서는 일정하게 쓰이지만 필기나 인쇄용종이로는 쓸수 없으며 더우기 색갈이 누런색을 띠는것으로 하여 사람들에게 주는 감흥이 좋지 못하다.

이런데로부터 일부 사람들은 그 종이를 나쁜 종이라는 감정을 담아 마분지라고 하였다.

종이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것들은 다 쓰이는 목적이 서로 다르다. 마분지를 말똥종이라고 하는것은 종이의

용도를 잘 모르는데서 붙여진 비속화된 표현이다. 이런 사람들의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지금은 마분지를 《판종이》라고 고쳐 부르고있다.

만병초

진달래과에 속하는 사철 푸른 넓은잎떨기나무의 하나이다.

백두산일대를 비롯하여 우리 나라의 북부와 높은산지대에서 자라며 잎은 약재로 쓴다.

만병초의 잎에는 안드로메도톡신, 플라보노이드, 우르솔산등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달여먹으면 혈압을 낮추고 염증을 없애는데 좋다고 한다. 또한 관절염, 관절붓기, 신경통 등에도 잎을 달여먹으면 효과가 높다고 한다.

달여먹으면 만가지 병이 다 낫는다고 하여 이름을 《만병초》라고 지었다고 전해온다.

만폭동

글자그대로 수많은 폭포들이 련이어 있는 골짜기란 뜻이다.

《만폭동》이란 이름은 금강산에도 있고 묘향산에도 있다.

금강산의 만폭동은 표훈사를 지나 청학대아래에 있는 금강문(원하문) 다음에 있다. 층암절벽과 폭포, 소들이 련달아 있는 만폭동은 봄철의 꽃, 여름철의 록음, 가을철의 단풍, 겨울철의 눈경치 등 어느것이나 그냥 지나버릴수 없는 절경이다. 그러므로 백개도 넘게 흐르는 물이 골짜기로 넘쳐나오고 만가지 폭포가 있다고 하여 《만폭동》이라 하였다.

망장천

금강산 만물상구역에 있는 샘이름이다.

이 샘물이 《망장천》으로 불리워지게 된것은 그 맛이 하도 시원하고 향기로와 한모금만 마셔도 온몸에 기운이 뻗쳐 지팽이를 짚고 올라왔던 늙은이들도 이 물만 마시면 굽었던 허리가 펴지고 지팽이도 버리고 간다는 뜻에서부터 유래되였다.

《망장천》이란 말에서 《망》은 잊는다는 뜻이고 《장》은 지팽이라는 뜻이며 《천》은 샘이란 뜻이다.

옛날에 금강산기슭에 마음씨 착하고 부지런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있었다. 어느날 지팽이를 짚고 산삼과 약초를 캐러 떠났던 할아버지가 이 샘물을 발견하고 목이 마른김에 한모금 마셨는데 50년전 장가갈 때처럼 주름이 없어지고 허리를 곧게 폈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지팽이를 버리고 나는듯이 산발을 타고넘어 집에까지 왔다. 그런데 할머니는 이 젊은 《총각》이 어째 여기에 왔느냐고 하면서 쫓아버리려 하였다. 할머니는 《총각》이 내보이는 점심밥그릇과 자기가 지어준 옷을 보고서야 비로소 자기 령감이라는것을 알게 되였다. 할아버지는 새파랗게 젊은 자기와 파파 늙은 할머니가 함께 산다는것이 쑥스러운지라 다음날 할머니를 데리고 그 샘으로 다시 찾아갔다. 샘물을 한모금 마신 할머니 역시 처음 시집올 때처럼 꽃나이처녀가 되였다고 한다.

그때로부터 이 샘물을 《망장천》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멱

동물의 목의 안쪽이라는 뜻으로, 장기를 둘 때 장기쪽들

이 다닐수 있는 길목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멱이 차다.》라고 하는 성구에 쓰인 《멱》은 《목》이라는 말에서 유래되였다. 그러므로 《멱을 딴다.》고 할 때에는 죽인다는 뜻이고 《멱이 찼다.》고 할 때에는 목이 찼다는 뜻으로서 그 이상 더 할수 없다는 말이다. 오늘 《멱》이란 말은 일반적인 목의 뜻이 아니라 동물의 목 앞쪽을 이르는 말로 되였다.

명태

명태는 대구과에 속하는 바다물고기의 한가지이다.

이 물고기를 《명태》라고 하는데는 다음과 같은 유래가 있다.

옛날 함경도 명천에 태가성을 가진 어부가 살고있었다. 어느날 그는 낚시질을 하다가 보지 않던 이상한 물고기를 잡았는데 처음 보는 물고기인지라 사람들에게 물었으나 누구도 그 이름을 몰랐다.

그래서 그 고을사람들은 명천에서 잡았다고 하여 《명》자를 따고 그 고기를 처음으로 잡은 사람의 성인 《태》자를 붙여 《명태》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이 물고기를 강원도앞바다에서 잡은것은 《강태》라고도 부르며 겨울에 잡아 통채로 얼군것은 《동태》라고 한다. 밸을 따서 말린것은 《건태》 혹은 《북어》라고 한다. 그리고 명태의 배를 쭉 째서 밸을 꺼내고 소금에 절구어 넙적하게 말리운것을 《짝태》 또는 《짝명태》라고 한다.

따라서 《명태》라는 말은 이 여러가지 명칭을 통털어 이

르는 말로도 쓰인다.

모란봉

평양시 금수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를 말한다.

《모란봉》이란 그 생김새가 마치 모란꽃처럼 기묘한 봉우리라고 하여 불리운 이름이다.

모란봉을 금수산이라고도 한다.

《금수산》이란 《비단실로 수를 놓은것 같이 아름다운 산》이라는 뜻이다. 《금수산》이란 이름은 모란봉의 경치가 삼천리금수강산을 한자리에 모아놓은것 같이 다채롭고 아름답다고 하여 부르게 된것이다.

원래 금수산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를 그 생김생김이 마치 모란꽃이 피여오르는듯 하다고 하여 《모란봉》이라 하던것이 지금은 모란봉이 산전체의 대명사처럼 되였다.

모란봉을 옛날에는 《함박뫼》라고도 하였다. 《함박뫼》에서 《함박》은 《함박꽃》을 말하는데 함박꽃도 모란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꽃나무로서 모양이 모란꽃과 비슷하다. 그리고 《뫼》는 산이란 뜻이다. 결국 《함박뫼》나 《모란봉》이나 뜻이 같은 말인것이다.

모래부리

바다가에서 물결에 밀려 쌓인 좁고 긴 모래언덕을 말한다.

《모래부리》에서 《부리》는 본래 새의 주둥이를 이르는 말이였는데 추상화되여 《뾰족한 부분》을 의미하게 되였다.

결국 《모래부리》란 모래가 새의 주둥이처럼 좁고 길게

쪽 뻗어있는것을 말한다. 《모래부리》를 《모래불》 또는 《모래톱》이라고도 한다. 《모래불》은 《모래부리》의 준말이며 《모래톱》은 《모래돕》이 변한것이다.

옛날에는 《손톱》, 《발톱》이라고 할 때의 《톱》을 《돕》이라고 하였다.

《모래톱》은 모래가 도드라진 곳을 의미한다. 《돕》은 동사 《돋다(돗다)》의 말뿌리가 명사화된것이다.

《모래불》은 《모래부리》를 이르기도 하지만 바다가나 강가에 모래가 넓게 깔려있는 곳을 이르는 《백사장》을 말하기도 한다.

목가적

넓은 들판에서 짐승떼를 몰면서 한가로이 노래나 부르는 것과 같다는 뜻으로 안온하고 한가로운것을 비겨 이르는 말이다.

《목가적》이란 말은 《목가》 즉 《목동의 노래》라는 말에 어원을 두고있다.

목동들은 넓은 들판에 집짐승무리들을 몰고 나가 풀판에 놓아 먹이면서 긴긴 하루해를 보내다가 돌아온다. 짐승들이 풀을 뜯어먹는 벌판에는 인적도 없고 소음도 없다. 이따금씩 불어오는 바람에 풀대들이 하느적거리며 춤을 추고 풀벌레들의 울음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며 어느 골짜기에선가 흘러내리는 물소리가 가락맞게 들려온다. 목동들은 짐승들이 풀을 뜯어먹는 동안 아름다운 자연에 심취되여 자연풍경을 미화하는 노래를 부르며 한가로이 하루해를 보낸다.

안온하고 한가로운것을 《목가적》이라고 하는것은 바로 여기에서 유래되였다.

몽금포

황해남도 룡연군의 서해안기슭에 자리잡고있는 명승지를 말한다.

경치좋은 곳으로 이름이 높다.

《몽금포》란 이름은 황금무지우에서 꿈을 꾸었다는 전설에서 유래되였다.

기슭을 치는 푸른 물결과 바다가에 펼쳐진 은가루같이 흰 모래밭, 모래산뒤에 있는 울창한 소나무숲과 모래밭에 붉게 핀 해당화는 서로 조화롭게 잘 어울려 그 모습은 실로 아름답기 그지없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런 곳은 꿈에서나 볼수 있는 아름다운 곳이라 하여 《몽금포》라고 이름지어 전해오고있다.

《몽금포》에 《금》자를 쓴것은 넓은 구간에 은가루같은 흰색의 보드라운 모래가 백금처럼 펼쳐져있기때문이다.

몽금포에는 길이 7～8리, 폭 3～4리어간에 은가루같이 흰색의 보드라운 모래가 물결처럼 펼쳐져있다.

묘향산

평안북도 향산군과 구장군, 평안남도 녕원군, 자강도 희천시의 넓은 지역을 포괄하고있는 해발 1 909㎧의 높고 웅장한 산을 말한다.

《묘향산》에서 《묘》는 묘하다는 뜻이고 《향》은 향기

라는 뜻이다.

결국 《묘향산》이란 기묘하고 향기가 그윽한 산이란 뜻이다.

묘향산을 일명 《향산》이라고도 한다.

《산에는 향기나는 나무들이 많고 나무들은 겨울에도 푸르다.》라는 옛날기록과 같이 묘향산에는 목련화, 정향나무 등 꽃향기를 풍기는 나무들이 많아 산에 들어서면 향기가 그윽하므로 그렇게 부른다.

묘향산은 또한 산의 자태가 웅장하고 경치가 으뜸이라고 하여 《태백산》이라고도 불리웠다.

아득한 옛날 단군의 아버지인 환웅이 자기 아버지 환인의 명령에 따라 하늘로부터 처음으로 세상에 내려온 곳이 태백산이라고 한다. 그 산이 바로 오늘의 묘향산이다.

묘향산에는 단군이 살았다는 《단군굴》이 있으며 단군이 활쏘기를 했다는 《단군대》가 있다.

옛 기록에 의하면 묘향산은 산이 크고 웅대하기가 비할데 없는데 그것은 묘향산이 백두산에서 갈라져나온것이기때문이라고 하면서 묘향산을 백두산의 한줄기라고 하였다.

묘향산은 우리 나라의 서부지대에 있다고 하여 《서산》(서산대사의 《서산》은 묘향산을 말한다.)이라고도 불렀다.

《묘향산》이란 이름은 11세기초부터 쓰이기 시작하였다.

무릉도원

신선이 살았다고 하는 복숭아꽃이 아름답게 피는 고장으로서 착취와 압박이 없고 사람들이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리상향을 이르는 말이다.

이 단어와 관련한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전해지고있다.

옛날 멀고먼 어느 한 지역에 무릉이라는 지방이 있었는데 거기에 고기잡이를 업으로 하는 한 어부가 살고있었다.

그는 어느날 고기를 잡으며 강물을 거슬러 그냥 올라가다가 사방을 돌아다보며 두리번거렸는데 갑자기 강기슭에 복숭아꽃이 활짝 핀 고장이 나타났다.

다른 나무는 한그루도 없이 온통 복숭아나무뿐이고 거기에 꽃이 만발하여 황홀하기 이를데없었다. 하도 신기하여 어부가 다가가니 복숭아꽃은 구름처럼 사라지고 큰 산이 우뚝 막아섰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 산에 큰 동굴이 하나 있었는데 그속에서 눈부신 빛발이 쏟아져나왔다.

어부는 동굴속으로 들어가보았다.

겨우 한사람이 들어갈만큼 좁던 동굴이 차츰 넓어지면서 앞이 탁 트이고 처음 보는 별천지가 펼쳐졌다. 병풍처럼 둘러선 야산에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고 기름진 벌판에는 오곡백과가 무르익었으며 그 한가운데 오붓한 마을이 자리잡고있었다.

이 마을사람들은 한가정처럼 화목하고 평등하게 근심걱정을 모르고 풍족하게 살고있었다. 그들은 어부가 나타나자 크게 놀라며 어디서 왔는가고 물었고 바깥세상에서 왔다고 하자 저마다 어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떡을 친다, 닭을 잡는다 하면서 푸짐하게 대접하였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온갖 란을 피하며 이곳에 들어와 4백～5백년을 살아왔기때

문에 바깥세상형편을 전혀 모른다고 하였다.

마을의 좌상인 늙은이는 어부를 친절히 데리고 다니며 자기네 별천지세상을 다 구경시켰다.

끝없는 황홀경에 빠져 그 고장을 다 돌아본 어부는 좌상늙은이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약소하지만 사례금을 받아달라고 하면서 주머니속의 몇푼의 돈을 꺼냈다.

그러자 로인은 웃으며 말하기를 여기서는 이미 돈이라는 것이 없어진지 오래다, 돈이란 세상에서 제일 더럽고 천한 것이다, 돈은 사람을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며 슬프게도 만들고 비굴하게도 만든다, 여기서는 돈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며 아무 쓸모도 없으니 도로 가지고 가라고 하였다.

한편 이 마을사람들은 떠나가는 그에게 이제 집에 가거든 절대로 이 고장이야기를 꺼내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였다.

어부는 그들의 따뜻한 전송을 받으며 바깥세상으로 나오면서 그곳으로 가는 길에 표식을 해놓고 집에 돌아오자바람에 그간의 사연을 태수에게 사실그대로 아뢰였다.

어부는 그후 그곳을 찾아 다시 떠났으나 그만 중도에서 길을 잃고 끝내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한다.

그때로부터 《무릉도원》은 별천지, 사람들의 리상사회의 대명사로 되였다.

무지개

공기가운데 떠도는 수많은 물방울들에 반사되는 빛의 꺾임으로 하여 공중에 아름다운 일곱가지 빛갈이 층을 이루

어 활등모양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무지개》라는 말은 《무+지개》로 이루어진 합친말인데 옛날말은 《므지게》이다.

《훈몽자회》에서는 《무지개》라는 뜻을 《므지게》라고 새기고있다.

《무지개》의 《무》는 일정한 합친말안에서 《물》의 《ㄹ》받침이 빠진 형태이다.

《무지개》에서 《지개》는 동사 《지다(없어지다)》의 말뿌리에 명사조성의 뒤붙이 《개》가 합쳐져 이루어졌다고 본다. 즉 무지개를 물이 없어지는 현상으로 보는 견해이다.

물레, 무명

물레는 솜이나 털 같은것을 자아내서 실을 뽑는 재래식의 간단한 수공업적인 기구를 말하고 무명은 물레로 자아내 뽑은 목화실을 원료로 하여 재래식베틀로 짠 천을 말한다.

《물레》와 《무명》은 사람의 이름에서부터 유래되였다.

고려때 문익점이란 사람이 이웃나라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마음으로 국외로 내가는것을 금지하고있던 속에서도 목화씨 십여알을 몰래 붓대속에 감추어가지고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왔다.

그는 이 귀중한 목화씨를 그의 장인 정천익과 함께 마른곳, 젖은 곳 또는 모래땅, 진흙땅에 갈라 심어놓고 고심하여 가끈 끝에 겨우 한포기만 살려냈다. 끝내 목화재배에 성공한 후에도 그는 씨를 뽑고 천을 짜는 기계를 만들기 위하여 자손들까지 이 일에 나서도록 하였다. 그렇게 힘쓴 결과

손자들인 문래는 목화에서 씨를 뽑는 기계인 씨아를 만들었고 문래의 동생인 문영은 천짜는 방법을 연구하게 되였다.

사람들은 민족앞에 이룩한 그들의 공적을 높이 찬양하고 길이 전하기 위해서 만든 사람들의 이름을 따 목화에서 실을 뽑는 기구를 《문래》로, 그 실로 짠 천은 《문영》으로 불렀다.

그러던것이 오랜 세월 사람들의 입으로 불리워지는 과정에 어음변화를 일으켜 《물레》와 《무명》으로 되였다.

물부리

담배를 피울 때 쓰는 물건이다.

《물부리》란 말에서 《물》은 문다는 의미이고 《부리》는 뾰족하다는 의미이다. 결국 《물부리》란 말은 입에 무는 뾰족한 물건이라는 뜻이다.

보통 《담배물부리》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담배를 끼워서 입에 물고 빠는 물건이라는 뜻이다.

다른 말로 《물주리》, 《빨주리》라고 하는것은 사투리들이다. 《주리》는 주둥이라는 말이 변한것으로서 《부리》와 같은 뜻의 말이다. 《물주리》는 입에 무는 뾰족한 물건이란 말이고 《빨주리》는 입으로 빠는 물건이란 말이다.

미루벌

황해북도 신계, 곡산에 있는 벌을 이르는 말이다.

옛날부터 이 벌에서는 농사를 지었으나 해마다 큰 가물이 들어 종자도 건지지 못하고 가을에는 타버린 밭뙈기만 밀어

던지군 하였다 한다. 그리하여 《밀어버린 벌》이라는 뜻에서 《미루벌》이라고 불렀다.

오늘 미루벌에는 신곡저수지(《신계》와 《곡산》의 첫 글자들을 따서)가 건설되여 이 벌은 옥토로 전변되였다.

미꾸라지

도랑이나 웅뎅이의 흙바닥속에 사는 물고기의 한가지이다.

《미꾸라지》는 《미꿀》과 명사만들기뒤붙이 《아지》를 합쳐 만든 단어로서 무엇이 밀려나거나 빠져나가는 성질을 상징한 말이다.

《아지》는 새 단어를 만들 때 쓰이는 뒤붙이이다.

미꾸라지를 《추어》라고도 한다.

두부와 함께 끓인 미꾸라지탕을 《추어탕》이라고 한다.

미시가루

낟알을 닦아서 볶은 가루를 말한다.

우리 말에서 《미시가루》의 《미시》는 본래 쪄서 말린 보리가루를 의미하였다.

《훈몽자회》에서는 보리가루라는 뜻의 글을 《미시》라고 쓰고있다.

《미시》는 보리의 매우 작은 알갱이 즉 가루라는 말이다.

동어반복으로서 같은 말 되풀이법으로 《미시가루》란 말이 생겼다. 결국 《미시가루》는 말 그대로의 의미로 《보리가루》란 뜻이다.

오늘 《미시가루》는 보리뿐만아니라 찹쌀, 멥쌀 등 낟알

을 닦아 볶은 가루를 나타낸다.

밀월

본래의 의미로는 결혼하여 즐거운 신혼생활을 하는 한달을 말한다.

《밀월》이란 말에서 《밀》은 꿀 또는 꿀처럼 달다는 뜻이고 《월》은 한달, 두달 할 때의 달을 의미한다.

지금은 그 쓰임의 폭이 넓어져서 사람들 호상간 또는 나라들 호상간에 적대적이거나 랭랭하던 지난날의 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들어섰을 때를 가리켜 표현한다.

밑지다

들인 노력이나 본전에 비해 얻는것이 적어 손해를 본다는 말이다.

《밑지다》는 명사 《밑》과 동사 《지다》가 합쳐진 말이다.

여기서 《밑》은 본바탕이나 본래 마련되여있는것을 뜻하고 《지다》는 없어지거나 사라진다는것을 뜻한다.

이 단어와 관련한 또 다른 견해도 있다.

《밑지다》의 옛날말은 《밋디다》이다.

《밑》의 옛날말인 《밋》은 본래 나무뿌리를 의미하였지만 점차 의미가 넓어져 《자본》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지다》의 옛날말인 《디다》는 본래 잎이나 꽃 같은것이 떨어진다는것을 의미하였다.

《디다》는 《지다》로 변하면서 떨어진다는 뜻뿐아니라 점

차 없어진다는것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결국 《밑지다》라는 말은 나무뿌리가 없어지는것을 의미하는 말에서 유래되여 오늘은 지금의 의미로 쓰이고있다.

밑천

장사나 기업에 들이는 자금이나 재산을 이르는 말이다.

《밑천》은 《밑전》이 어음변화를 가져온 단어이다.

《밑천》에서 《밑》(밋)은 나무뿌리 또는 그 어떤 바탕을 의미하며 《천》은 돈을 의미하는 《전》이 변한것이다.

결국 《밑천》은 《밑돈》, 《깔고있는 돈》에서부터 유래되였다.

매미

매미과에 속하는 벌레를 통털어 이르는 말이다.

《매미》는 매미의 울음소리를 본따서 나온 말이다.

그 울음소리 《맴맴》에서 《맴》을 따고 거기에 명사만들기뒤붙이 《이》를 붙여 《맴이(매미)》로 되였다.

메기

대가리는 넙적하고 아가리가 크며 몸에 비늘이 없고 끈끈한 진이 있으며 입아귀에 한쌍의 수염이 있는 민물고기의 한가지이다.

《메기》의 옛날말은 《메유기》이다.

《메기》를 사투리로 《메사구》 또는 《며기》라고도 한다.

《메유기》는 개구리의 사투리인 《멱장구》에서 《멱》과

같은 어원에서부터 유래되였다.

《멱》은 《목》이란 말의 옛날형태 그대로이다. 《멱장구》란 목에서 소리를 낸다는데로부터 붙은 이름이고 《메기》는 《며기(멱이)》가 변한것으로서 목이 큰것이라는데서부터 유래된 말이다.

뫼

사람의 무덤이나 산을 옛스럽게 이르는 말이다.

《뫼》는 산이라는 뜻으로서 《모로》, 《모퉁이》와 같은 옛날말에서 유래되였다.

《모로》는 본래 《묘, 묘지, 분묘》를 가리키는 말이였다. 모로(묘)가 산처럼 불룩하게 솟았다 하여 《산》과 함께 쓰이였다. 지금도 추석날 《산에 간다.》고 하면 묘(뫼) 보러 간다는 말로도 리해한다.

바늘

일반적으로 실을 꿰여 옷이나 그밖의 물건을 짓거나 만들거나 깁는데 쓰는 물건을 이르지만 뜨개질, 시계, 주사, 축음기 등에서도 쓰이게 되는 물건을 말한다.

《바늘》이라는 말에서 《바》는 《베》가 어음변화를 가져온것이다.

《베》를 가리켜 《룡비어천가》에서는 《뵈》라 하고 《계림류사》에서는 《배》라고 하였다. 이 《뵈》와 《배》가 력사적으로 내려오면서 《바》로 변하였다.

《늘》은 《날》이 변한것이다. 《월인석보》와 《훈몽자

회》에서는 다같이 《날》이라고 새기고있다.

결국 《바늘》은 베에 쓰는 연장이란 뜻이다. 그런데 오늘 《바늘》은 사용용도와 분야에 따라 그 뜻이 넓어졌다.

바다

지구의 겉면에서 륙지를 제외한 매우 큰 넓이로 짠물이 차있는 부분을 이르는 말이다.

《뭍》과 대응되는 말인 《바다》의 옛날말은 《바라》이다.

《훈몽자회》에서는 《바다》를 《바라》라고 새기고있다.

《바라》는 파랗다는 뜻을 가진 형용사 《바라다》가 명사화된것이다.

《바라》는 후에 《바다》, 《파랗다》로 변한 말로서 결국 《바다》란 말은 물이 파랗다는데로부터 붙은것이다.

바보

무능력하여 아무것도 할줄 모르는 사람, 어리석고 둔하여 못난짓만 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

《바보》라는 말의 어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두가지 설이 전해지고있다.

그 하나는 《밥보》(밥만 먹을줄 알고 아무것도 할줄 모르는 사람)에서 생겼다는것이다.

《밥》에서 《ㅂ》이 탈락되여 《바》가 되고 《보》는 일정한 명사의 뒤에 붙어서 사람을 나타내는 뒤붙이이다.

다른 하나는 《반보》가 변한것이라는것이다.

이때의 《반》은 절반이란 뜻이고 《보》는 뒤붙이이다.

결국 《바보》란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절반짜리밖에 못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있다.

박연폭포

개성시 북부 박연리에 있는 폭포를 말한다.

《박연폭포》란 천마산과 성거산의 크고작은 물줄기들이 대흥산성의 북문앞 오른쪽에 있는 박연이라는 못에 모였다 떨어지며 폭포를 이룬다 하여 불리워지게 된 이름이다.

《박연》은 큰 바위가 《바가지모양으로 패인 기묘하게 생긴 늪》이라는 뜻이다. 박연의 직경은 8㎙이다.

《박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지고있다.

옛날에 박진사라는 피리를 잘 부는 총각이 있었다. 그가 어느날 밝은 달밤에 이 폭포에 놀러 왔다가 그 장쾌한 풍경에 너무 감탄해서 피리를 멋지게 불었는데 그 은은한 피리소리에 마음이 끌려 웃못에 살던 룡녀가 내려와 박진사를 사모하게 되였다. 그후 그들은 부부가 되여 물속에 들어가 살았다고 한다. 한편 박진사의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찾으러 온 천마산을 다 헤매였다. 하지만 어머니의 안타까운 심정과는 달리 아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찾을 길이 없어서 내려오던 어머니는 늪속에서 아들의 모습이 나타나자 두팔을 벌리고 들어섰다가 그만 물에 빠져죽었다고 한다. 그후부터 박진사의 이름을 따서 늪이름을 《박연》(박진사의 《박》자와 늪이라는 뜻의 《연》자를 따서)이라 하였고 폭포는 《박연폭포》라고 부르게 되였으며 그우에 있는 못을 돌아간 어머니의 구슬픈 이야기가 깃들어있다고 하

여 《고모담》이라 이름짓게 되였다고 한다.

반디벌레

여름에 풀숲에 살면서 배끝에서 빛을 내는 반디과에 속하는 벌레들을 통털어 이르는 말이다.

그저 《반디》라고도 한다.

《반디》란 《반찍》의 옛날말이 변한것으로서 반짝반짝 빛을 내는 벌레라는 뜻에서 불리워진 이름이다. 반디벌레의 배부위에서 내비치는 불빛을 《반디불》이라고 한다.

반디벌레를 불을 켜는 벌레라 하여 《화충》 또는 《명화충》이라고도 한다.

방아쇠

격침으로 뢰관을 쳐서 탄알을 발사시키는 격동기의 한 부분을 말한다.

《방아쇠》는 《방화쇠》란 말이 변한것이다. 《방화쇠》란 말에서 《방》은 놓는다는 뜻이고 《화》는 불이라는 뜻이며 《쇠》는 철이라는 뜻의 고유조선어로서 불을 붙이는데 쓰는 쇠라는 뜻이다.

《방화쇠》란 말은 지난날 의병들이 만들어 쓰던 화승총의 발사원리에서 유래되였다. 이것은 《불을 붙이는 쇠》라는 뜻이다.

버선

천으로 발에 맞게 만들어 신는것으로서 양말과 비슷한 사

명을 수행하는 피복류의 한가지이다.

《계림류사》라는 책에는 《버선》을 《배셩》이라고 씌여 있다. 《배셩》이란 말에서 《배》는 베를 말하며 《셩》은 신을 말한다.

그러므로 어원적으로 보면 《버선》이란 말은 《베신》 곧 《베로 만든 신》이란 뜻이다.

목화가 없었던 옛날에는 일상생활에서 베천이 많이 쓰이였을뿐아니라 발에 신는것까지 무명과 같은 좋은 천으로 할수 없었기때문에 버선도 베로 만들어 신었다.

벌

벌과에 속하는 날벌레를 통털어 이르는 말이다.

사투리로 《부어리》 또는 《부얼》이라고도 한다.

《붕붕》 소리를 낸다고 하여 《붕어리》(부어리)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말소리가 줄어들면서 《부얼》, 《벌》로 되였다.

지금도 아동심리에 맞는 단어로서 벌을 가리켜 《붕붕이》라고 말한다.

《따벌》은 땅속에 집을 짓고 사는 《땅벌》에서 《ㅇ》이 빠진 말이다. 《왕벌》과 《말벌》에서 《왕》이나 《말》은 크다는 뜻을 가진다.

벌레

곤충, 기생충 등 하등동물을 두루 이르는 말이다.

《벌레》의 옛날말은 《벌에》이다.

《벌에》는 본딴말 《벌벌》의 한 부분에 뒤붙이 《에》

가 붙어 이루어진 말로서 《벌벌 기는것》이라는 뜻이다.

《벌레》의 사투리로서 《버러지(벌+어지)》, 《벌기》, 《벌게》 등 여러가지 말도 있는데 역시 《벌벌 기는것》이라는 뜻을 가진다.

범

고양이과에 속하는 사나운 산짐승의 하나이다.

《범》이라는 말은 역시 그 짐승의 우는 소리에서부터 유래된것이다.

옛날에 범을 《웜》, 《뷤》이라고 불렀다.

《훈몽자회》에서는 《갈범》을 《갈웜》으로, 《표범》을 《표웜》으로 새기고있으며 《룡비어천가》에서는 《범》을 《뷤》이라고 표기하고있다.

이러한 기록을 미루어보아 《범》이란 말은 울음소리에 의해 불리워진것이라고 볼수 있다.

범을 《호랑이》라고도 한다.

보가지

보가지과에 속하는 바다고기의 한가지이다.

보가지란 배가 불룩한 물고기라는 뜻에서 지어진 말이다.

보가지는 《복아지》가 발음그대로 쓰인 단어이다.

《복아지》에서 《복》은 지난날 볼록한것(불룩한것), 둥그런것을 나타내던 말이였다. 베틀의 부분품인 《북》과 악기의 갈래인 《북》도 결국은 불룩하다는데서부터 생겨난 단어이다.

보가지를 지난날에는 《불룩한것》이라고 하여 《복》이라는 한마디로 표현하였다.

《훈몽자회》에서는 이 고기이름을 고유말로 《복》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복》 한마디면 복이 있다거나 차례진다는 말과 혼돈될수 있으므로 《아지》를 덧붙여 《복아지→보가지》라고 하였다고 볼수 있다. 보가지를 글말에서 《복어》라고도 하였다.

보부상

지난날에 보짐장사와 등짐장사를 함께 이르던 말이다.

《보부상》이란 말에서 《보》는 보자기라는 뜻이고 《부》는 등에 진다는 뜻이며 《상》은 장사군이란 뜻이다.

따라서 이 말은 물건을 보자기에 싸서 손에 들거나 어깨에 걸치고 다니면서 파는 보상과 물건을 지게 같은데 올려놓거나 멜끈을 하여 지고 다니면서 파는 부상을 다같이 이르는 말로 된다.

쉽게는 보상을 보짐장사라고 하고 부상은 등짐장사라고 한다.

볼장

《볼장》이란 하여야 할 일이나 하고저 하는바를 이르는 말이다.

《볼장》은 동사 《보다》의 규정형 《볼》에 시장을 의미하는 《장》이 붙어 이루어진 합성어로서 본래의 뜻은 《보

아야 할 장》을 이르는 말이였다.

그러나 오늘 《장》이라는 말이 뒤붙이로 변하면서 《볼장》이라는 말은 《자기가 하고저 하는바를 이루다.》는 의미로 쓰이게 되였다.

봉화

불을 지펴올리는것 또는 지펴올린 불을 이르는 말이다.

봉화는 원래 옛날에 외적의 침입이나 기타의 급한 병란이나 사변이 있을 때에 이웃고을에 련락하는 신호로 산봉우리우에서 불을 올리던데로부터 유래되였다.

밤에는 불을 올리지만 낮에는 불이 잘 보이지 않으므로 연기(봉수)를 올렸다. 봉화대에서 피우는 불을 《랑화》라고 한다. 여기서 《랑》은 산짐승의 하나인 이리를 말하는데 일명 개승냥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화》는 불이라는 뜻이다. 봉화대에서 불을 피울 때 땔감으로는 짚, 나무 등을 썼는데 불이나 연기가 곧추 올라가게 하기 위하여 여기에 이리의 똥을 섞어서 리용하였다고 한다.

오늘 봉화는 어떤 선구자적인 발기나 시작을 비유하여 쓰인다.

부루나

《평양》의 옛날말이다.

《평양》은 원래 고구려 수도의 옛 이름인 《부루나》의 리두식표기이다. 《평》은 《벌》의 옛 형태인 《부루/바라/버러》에 대한 리두식표기이다. 《양》은 땅을 의미하는 옛

날말의 하나인 《나》에 대한 리두식표기이다.

부벽루

평양 모란봉의 청류벽우에 있는 루정으로서 고구려시기에 지은것이다.

원래 고구려시기인 393년에 세운 절인 영명사의 부속건물로서 《영명루》라 하던것을 거울같이 맑고 푸른 물이 감돌아흐르는 청류벽우에 둥실 떠있는듯 한 루정이라는 뜻에서 12세기초부터 《부벽루》라고 고쳐 부르게 되였다. 여기서 《부》는 뜬다는 뜻이고 《벽》은 바위로 된 벽이란 뜻이며 《루》란 다락이라는 뜻으로서 결국 《부벽루》란 구슬같이 맑고 푸른 대동강우에 둥실 떠있는 다락이라는 뜻이다.

부벽루는 우리 나라 루정가운데서도 이채를 띠는 대표적인 건물의 하나로서 모란봉일대의 그림같이 아름다운 경치와 잘 조화를 이루고있다. 때문에 《부벽루의 달맞이》는 평양팔경의 하나로 꼽히였다.

부시

마른 쑥잎이나 취잎 같은것을 닦아서 비빈 다음 그것을 차돌 같은것에 대고 쳐서 불을 일구는 도구를 말한다.

주로 쇠붙이 같은것으로 만든다.

《부시》의 유래에 대한 두가지 견해가 있다.

우선 《부시》라는 말이 우리 민족의 원시조인 단군의 둘째아들의 이름 《부소》에서 유래되였다는것이다.

단군이 살던 때에는 사나운 짐승들이 많아서 마을로 싸

다니며 사람들도 해치고 농작물에도 피해를 입히군 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함부로 나다니기를 꺼려하였으며 농사도 마음놓고 지을수 없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짐승들의 피해를 입지 않고 마음놓고 농사를 잘 지을수 있게 하겠는가 하는것을 생각하던 부소는 쑥잎이나 취잎 같은것을 닦아가지고 그것을 잘 비빈 다음 차돌에 대고 쳐서 불을 얻는 방법을 연구하게 되였다.

부소는 이렇게 얻어낸 불로 산과 들에 있는 나무와 풀들을 태워버렸다. 이렇게 되자 짐승들은 민가에 함부로 내려오지 못하고 깊은 산으로 도망쳐버렸으며 사람도 농작물도 피해를 받는 일이 드물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그 불을 얻는 도구를 그것을 연구한 부소의 이름을 붙여 《부소》라고 부르게 되였다.

결국 《부소》라는 말이 오래동안 써내려오는 과정에 《부시》로 발음이 달라지게 되였다는것이다.

다른 한 견해는 《부시》라는 말이 불의 옛 표기형태인 《붓》에 어원을 두고있다는것이다.

《훈몽자회》에서는 《불꽃》이라는 뜻을 그 옛날말인 《붓곳》이라고 쓰고있다.

말하자면 《붓》에 뒤붙이 《이》가 붙어 이루어졌는데 점차 받침이 뒤음절로 넘어가면서 《부시》로 되였다는것이다.

부전령

함경남도 신흥군의 북부 부전군과의 경계에 있는 령이다. 해발높이는 1 355m이다.

고려시기와 조선봉건왕조시기 이 지역은 북방종족들의 침입을 자주 받았다. 이로부터 많은 군사들이 이곳을 지키려고 왔는데 그들을 흔히 부방(옛날에 변경이나 요충지대에 나가는 수자리)온 군사 또는 부전(싸우기 위해 온 사람)온 군사라고 불렀다.

《부전령》이란 바로 싸움하러 온 군사들이 있는 령(산)이라는 뜻이다.

이 령의 이름을 따서 부전이라는 고장이름도 나왔고 산줄기이름과 고원이름도 나왔다.

북두칠성

북쪽하늘에 국자모양으로 자리잡고있는 뚜렷이 빛나는 일곱개의 별을 말한다.

《북두칠성》의 《북두》는 북쪽에 있는 별자리의 하나를 말하고 《칠성》은 일곱개의 별이란 뜻이다.

북쪽하늘의 첫 별자리에 있는것으로서 일곱개의 별로 이루어져있다. 그러므로 이 별자리를 예로부터 《북두》 또는 《북두칠성》이라고 한다.

《북두칠성》을 《북두성》이라고도 한다.

북어

밸을 딴 다음 소금을 치지 않고 얼녹이면서 말린 명태를 이르는 말이다.

건태 또는 건명태라고도 한다.

《북어국》, 《북어무침》, 《북어자반》, 《북어꿰미》라는

말들은 다 마른명태와 관련되는 합성단어이다.

마른명태를 《북어》라고 한것은 봉건시기 남쪽에서 산 량반사대부들이 북쪽에서 보내온 진상품속의 물고기라고 붙인 말이다. 사실 남쪽사람들은 북쪽에서 잡는 생명태를 거의나 보지 못하고 마른명태만 보게 되여 그렇게 불렀던것이다. 나중에는 명태고장인 북쪽의 동해바다가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북어》라고 부르게 되였다.

불모지

사회력사적진보가 조장발전될수 있는 요인들이 여지없이 짓밟히는 고장을 이르는 말이다.

《불모지》란 말에서 《불》은 《아니다》, 《없다》는 뜻이다. 《모》는 털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동물들의 몸에 나는 털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라 땅우에서 자라는 나무, 곡식, 풀 등을 털에 비기여 형상적으로 표현한것이다. 그리고 《지》는 땅이란 뜻이다.

결국 《불모지》란 나무나 곡식, 풀을 비롯한 그 어떤 식물도 자라지 못하는 메마른 땅이란 뜻이다. 여기에 비유하여 정치생활에서 《불모지》라고 쓰이고있다.

빙어

빙어과에 속하는 찬물을 좋아하는 물고기의 한가지이다.

빙어란 얼음물고기라는 뜻이다. 이 물고기의 특성으로 보아 얼음과 관련된 점이 많다. 몸색갈자체가 얼음처럼 흰데다가 얼음밑에서 많이 잡힌다.

빙어는 한해살이물고기이며 새끼가 알에서 까나온 후 1년이 되면 죽는다.

서해로 흘러드는 강하천상류와 호수 및 저수지들에서 사는 빙어는 북부내륙지대의 빙어를 옮겨다 번식시킨것이다.

따라서 딴데서 온 손님고기라는 뜻에서 《빈어》라고도 한다.

배추

배추과에 속하는 한해살이남새작물을 말한다.

학자들은 우리 나라에서 배추를 오래전부터 가꾸어온것으로 보고있다. 국문문헌들에 쓰인 배추의 첫 이름은 《배채》였다. 《백채》라고도 불렀다.

《백채》라는 말에서 《백》은 희다는 뜻이고 《채》는 남새라는 뜻이다. 배추의 줄기와 속이 희다는데로부터 흰 남새라는 의미로 불리웠다.

《배채》가 19세기무렵에 이르러서는 《배차》로 쓰이기 시작했다.

《배차》라는 말은 그후 《고추, 당추, 후추》 등 다른 남새들의 이름이 《추》로 끝나는것을 본따 19세기말～20세기초부터 그 발음이 점차 《배추》로 바뀌면서 고유조선말처럼 되여버렸다.

지금도 함경도사람들은 배추를 《배채》라고 하는데 이것도 《백채》라는 말이 변화된것이다.

백두산천지

량강도 삼지연시 백두산마루에 있는 자연호수이다.

천지는 백두화산이 분출할 때 생긴 분화구에 물이 고여 이루어진 화구호이다.

옛날부터 우리 선조들은 이 호수를 큰못이라는 뜻에서 《대택》, 《대지》라고 불렀고 그 존재가 성스럽게 생각되고 높은 곳에 있기때문에 하늘에 있는 못이라는 뜻에서 《천지》라고 불렀으며 이 세상 모든 못들가운데서 가장 크고 모든것을 다스린다는 환상적동물인 룡 또는 룡왕이 사는 못이라고 하여 《룡담》, 《룡왕담》이라고도 불렀다.

천지의 제일 깊은 곳은 384㎙나 된다.

천지둘레에는 장군봉을 비롯하여 높이 2 000㎙이상 되는 봉우리들이 솟아있다.

백병전

칼이나 창, 총창 같은것을 가지고 서로 맞붙어서 싸우는 것을 말한다.

《백병전》이란 말에서 《백》은 희다는 뜻이고 《병》은 군사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무기라는 뜻으로 쓰이였다. 그리고 《전》은 싸움 또는 전투라는 뜻이다.

지난날에 화약을 쓰는 무기들은 불을 뿜는다고 하여 《화기》라고 하였고 창이나 칼, 총창은 높이 추켜들면 해빛을 받아 하얗게 번쩍번쩍 빛난다고 하여 《백병》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때는 그것을 《백병전》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았다. 이 말은 화약무기가 발명된 이후부터 쓰이기 시작하였는데 화약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전투와 창이나 칼을 가지고 싸우는 전투를 서로 구별하기 위하여 화력전에 대응하

는 개념으로서 새로 쓰이게 되였다.

백상루

평안남도 안주시 청천강기슭 언덕우에 자리잡고있는 옛 안주성 장대터에 세운 루정이다.

이 루정을 《백상루》라고 하는것은 여기에 오르면 백가지 아름다운 경치를 다 볼수 있다는 의미에서이다.

T자형으로 생긴 《백상루》는 사방이 트이여 여기에 오르면 굽이쳐흐르는 청천강과 안주평야를 비롯하여 백가지 경치를 다 볼수 있다.

백상루는 우리 나라 관서팔경의 하나로 꼽히는 명승고적이다.

백일홍

국화과에 속하는 한해살이꽃나무의 한가지이다.

우리 나라 민화중에는 백일홍꽃의 이름과 관련한 이런 이야기가 있다.

동해바다가의 어느 한 작은 마을에 사는 처녀들은 하나같이 곱게 생기고 마음도 고왔다. 사철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미역도 따는 부모들을 도와 처녀들은 일도 걸싸게 잘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보다도 웃음이 많은 처녀시절에 얼굴에는 노상 그늘이 짙게 서려있었다.

그것은 해마다 한명의 처녀가 어김없이 바다속 깊은 곳에 있는 커다란 뱀한테 먹이로 바쳐져야 했기때문이였다.

이 처녀들속에는 몽실이라고 부르는 한 어부의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는 용모나 품성에서도 이 마을에서 제일가는 처녀였다.

《이번에는 몽실이 차례래.》

동네처녀들은 물론 온 마을사람들도 자기가 직접 당한 불행처럼 여기며 밤잠을 못 이루었다.

(내가 죽는것보다 의지가지없는 부모님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것 같구나. 죽기 전에 불쌍한 아버지, 어머니의 옷이라도 깨끗이 손질해놓자.)

몽실이는 마을끝에 있는 개울가에 나가 줄줄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섞으며 빨래를 하고있었다.

이때 나무짐을 진 한 총각이 여기를 지나게 되였다. 키꼴이 우람차고 장대한데다가 활과 칼을 잘 다룬다고 널리 소문이 난 이 총각은 딴 고장에서 살다가 며칠전에 여기로 이사를 왔는데 이름은 바우라고 하였다.

《무슨 말 못할 일이라도 있는것이 아니요? 내가 할수 있는것이면 힘껏 도와드리리다. …》

목소리도 우람찬 바우는 나무지게를 벗어놓고 몽실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놈에 대한 말은 나도 들은바가 있소. 정작 이 마을에 와서 살면서 그 말을 들으니… 걱정마오. 내가 그놈을 단칼에 해치우려우.》

바우는 주먹을 으스러지게 쥐더니 자리를 뜨려고 하였다.

몽실이는 마음씨 또한 고왔던지라 생명을 내대야 하는 곳에 가려는 총각에게 절대로 그놈한테 가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말렸다.

그러나 억센데다가 악한것을 보면 참을줄을 모르는 바우였던지라 어쩔수가 없었다.

바우는 몽실이에게 자기가 뱀을 죽이면 흰 돛을 단 배를 타고 오고 잘못되면 검은 돛을 단 배를 띄워보내겠다는 약속까지 하였다.

바우가 뱀과 싸우러 떠나자 몽실이는 바다가 멀리까지 보이는 높은 곳에 올라가 밤낮으로 기다렸다.

총각이 떠난 후 바다는 무섭게 뒤설레이고 시커먼 바다물이 타래쳐 허공중에 솟구치며 요동쳤다. 하늘에서는 뢰성벽력이 그칠새 없고 창살같은 비줄기가 쏟아져내렸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100일째가 되는 날 먹장구름은 씻은듯 가셔지고 하늘은 맑게 개였다.

《저기 배가 보인다!》

마을사람들이 떨쳐나 환성을 올렸다.

몽실이는 눈을 비비며 바라보았다. 그런데 점점 가까이 오는 배에는 검은 돛이 달려있는것이였다.

그 순간 몽실이는 그 자리에 쓰러져 더는 일어나지 못했다. 바우는 뱀을 죽인 기쁨에 그만 돛에 그놈의 피가 물들여진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던것이다.

바우와 마을사람들은 몽실이를 그가 100날이나 하루같이 서있던 곳에 묻었다. 그런데 묘옆에 한그루의 꽃나무가 자라 연분홍색의 꽃들이 피여나더니 100일만에 지는것이였다. 그래서 이 꽃의 이름을 《백일홍》이라고 부르게 되였다.

사간

《죽음의 말》 또는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말》이란 뜻으로서 봉건사회에서 신하들이 임금이 옳지 못한 일을 하거나 잘하지 못하는 일에 대하여 강경히 충고를 주는것을 말한다.

봉건사회에서 대체로 임금이란 백성우에 군림하면서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온갖 횡포무도한짓을 다할뿐아니라 제가 하는 일에 대해 충고를 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누구이든 가차없이 목을 치거나 벼슬자리에서 떼버리였다. 더우기 그 충고가 처음으로 주는것이 아니고 두번, 세번 반복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였다. 때문에 임금에게 두번째로 충고를 줄 때는 벌써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간》이란 말은 이런 과정에서 유래되였다.

사돈

혼인한 두 집안사이의 관계나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이르는 말이다.

《사돈》이란 말에서 《사》는 원래 살핀다는 뜻인데 나무그루터기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그리고 《돈》은 머리를 조아린다는 말로서 결국 《사돈》의 본래의 의미는 나무그루터기에 앉아 머리를 조아리는 사람이라는것이다.

이 단어의 유래와 관련하여 아래의 이야기가 전해지고있다.

고려때 윤관과 오연총은 그 이름만 들어도 외적들이 벌벌 떠는 용맹한 장수들이였을뿐아니라 이 두 집안은 서로 혼인한 사이이기도 하였다.

그들은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 자기 진영을 돌아보면서 적정이 없는가를 확인하군 하였다. 그 과정에 그들은 서로 오가면서 자주 만나게 되였다. 그때마다 그들은 자주 강가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한담도 하고 작전토의도 하였다.

그런데 한번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강을 건늘수 없게 되였다. 할수없이 두사람은 강을 사이에 두고 먼발치에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는 각기 자기쪽 나무그루터기에 마주앉아 함께 술을 마시는 심정으로 서로 상대방에게 머리를 조아려 정중히 공대를 표시하고는 술을 한잔씩 들군 하였다. 이런 일은 불어난 강물이 줄어들 때까지 여러날 계속되였다.

이것을 보고있던 군사들과 백성들은 이 두사람을 가리켜 《사돈》이라고 불렀다.

이 말이 후에 혼인한 두 집안사람들의 관계를 이르는 말로 씌여지게 되였다.

사라지다

이미 있던 어떤 현상이나 사람, 물체의 자취, 생겼던 느낌이나 생각, 감정, 표정 등이 없어지거나 죽음을 에둘러 이르는 말이다.

《사라지다》는 동사 《살다》와 《지다》가 합쳐져 《살아지다》를 발음그대로 적은 합성단어이다.

여기서 《살다》의 뜻은 현실적이며 생동한것으로 남아있다는 뜻이며 《지다》의 뜻은 지평선너머로 떨어져 보이지 않게 되였다는 뜻이다.

사랑이

사람이 사춘기에 들어선 다음 입안의 좌우 두끝에 나는 네개의 어금이를 말한다.

이 말은 사람이 이성에 대하여 생각하는 시기에 나오는 이발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였다.

사복철조망

철조망은 가시줄이나 쇠줄을 늘이거나 얼기설기 엮어서 만든 차단물을 말한다.

철조망은 여러가지 모양으로 만드는데 가시돋은 쇠줄을 둥글게 틀어서 늘여놓은 철조망은 그 대표적형식의 하나이다. 그 형태가 마치도 우불구불 기여가는 뱀의 모양과 같다고 하여 《사복철조망》이라고 한다.

사주팔자

사주를 적을 때 간지를 이루는 여덟 글자, 사람이 태여난 해와 달과 날자와 시간에 따라 좋고나쁜것이 정해진다는 일생의 《운명》을 이르는 미신적인 말이다.

사주팔자란 말그대로 네개의 기둥과 여덟개의 글자라는 뜻이다.

사주란 사람이 태여난 해, 달, 날, 시간을 말하며 팔자란 그것을 간지로 표현한 여덟개의 글자를 말하는데 거기에 동물의 이름을 붙여놓고 《범의 해》, 《원숭이해》 하는 식으로 표기해놓았다.

사행식포복

군사행동에서 배를 땅에 붙이고 엎드려 두손과 두발로 기여가는것을 이르는 말이다.

《사행식포복》이란 말에서 《사》는 뱀이란 뜻이고 《행》이란 간다는 뜻이며 《식》이란 방법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포복》이란 긴다는 뜻으로서 결국 《사행식포복》이란 《뱀이 기여가는것처럼 삐뚤삐뚤 기는 방법으로 앞으로 기여나가는것》이란 뜻이다.

삼길수

우리의 조상들이 오랜 옛날부터 수자 3을 행운과 만복의 상징이라는 의미에서 길수로 일러오는데서 생긴 말이다.

《삼길수》란 말에서 《삼》은 수자 셋을 의미하고 《길》은 좋다는 뜻이며 《수》는 수자라는 뜻으로서 《3》이라는 수자가 제일 좋다는 뜻이다.

우리 민족이 수자 3을 길수로 여겨온것은 먼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이 세상은 《천, 지, 인》 즉 하늘과 땅과 사람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아온 인식론적관념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 여기로부터 수자 《3》은 이 세상이 이루어진 근본리치와 같은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길수로 여기는 관습이 생기게 되였으며 《길수》라는 말도 쓰이게 되였다. 그리하여 녀성들이 즐겨 입는 치마저고리도 깃, 소매끝, 겨드랑이 세 부위는 바탕색과 다른 색천을 대여 아름답게 장식한 저고리라고 하여 《3회장저고리》라고 하였고 우리 민족의 고유한 인사법인 절도 큰절, 반절, 선절 세가지로 하

였으며 상가집에 가서 조의를 표시할 때도 술잔에 술을 세 번에 나누어 붓고 그것을 향불우에서 세번 돌린 다음 고인을 추모하여 절을 세번 하군 하였다. 그리고 시집온 새색시가 새서방과 함께 친정집에 첫나들이를 가는것도 3일신행이라고 하여 결혼식을 한 날로부터 사흘이 되는 날에 갔고 술좌석에 늦게 참가한 사람에게 술을 권하는것도 《후래삼배》라고 하여 석잔을 권하였다.

이처럼 수자 3을 길수로 여긴데로부터 그것을 일명 《복삼》이라고도 하였는데 그것은 《복이 있는 3》 또는 《복받은 3》이라는 뜻이다.

길수는 나라와 민족에 따라 서로 달리 쓰이고있다.

삼지구엽초

우리 나라 중부 이북의 산에 사는 여러해살이풀의 한가지이다.

이 풀을 삼지구엽초라고 하는것은 줄기가 올라가다가 세개의 가지를 치며 그 가지마다 각각 세개씩 잎이 붙어서 아홉개의 잎으로 되여있는데서 유래되였다.

삼오야

달밝은 보름날을 말한다.

여기서 《삼오》는 수자 셋과 다섯을 말하는데 셋에 다섯을 곱하면 열다섯 즉 보름날이 된다.

《야》는 밤이라는 뜻이다.

《삼오야》를 《십오야》라고도 하는데 이것도 음력으로 보

름날 밤이라는 뜻이다.

상감마마

봉건사회에서 임금을 높이여 부르던 말이다.

《상감마마》에서 《상감》이라는 말은 우에서 아래를 내리살핀다는 뜻으로서 곧 왕의 행동을 높여 이르는 말이고 《마마》란 어머니라는 뜻을 강조하는것으로서 결국 《백성들을 내리살펴주는 어머니》라는 친절하고 존귀한 부름말로 된다.

《마마》라는 말은 봉건사회에서 왕과 그 가족들의 칭호뒤에 붙여서 대방을 매우 높여주는 때에 쓰이였다.

서울

나라의 수도를 옛스럽게 이르던 말이다.

《서울》이란 말은 옛날말 《사바라》의 형태변화인 《서버러》가 변화된것이다.

《사바라》에서의 《사》는 새롭다는 뜻의 옛 형태이며 《바라》는 벌, 벌판의 옛 형태로 되여 새 벌, 새 고을 등을 나타내던 말이였는데 점차 어음변화를 가져와 《서울》로 되였다.

석담구곡

황해남도 벽성군 석담천지역에 있는 명승지이다.

석담구곡은 맑고 정가로운 내물, 갖가지 모양을 이룬 바위들과 벼랑들로 하여 절승일뿐아니라 골짜기마다 푸른 소

나무와 단풍나무가 무성하여 또한 절경의 골짜기로서 그 이름이 높다.

예로부터 《석담》(돌못이라는 뜻)과 《구곡》(9개의 골짜기라는 뜻)이 절경을 이룬다고 하여 《석담구곡》이라 불리워왔다.

관암(1곡)은 구곡이 시작되는 곳이다. 산마루에 있는 큰 바위가 갓처럼 생겼다 하여 관암이라 불리우는 첫 골짜기의 아침풍경은 볼수록 신비롭다. 꽃바위같다고 하여 화암이라 불리우는 2곡에는 여러가지 모양의 바위들이 많은데 봄이면 꽃바위를 이루어 그 모습 볼수록 아름답다.

취병(3곡), 송애(4곡), 은병(5곡), 조협(6곡), 풍암(7곡) 등 골짜기마다 자기의 아름다운 특징을 가지고있다.

금탄(8곡)은 풍암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맑은 여울이다. 마치 여울가의 거문고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와 같다고 금탄이라 불리워온다. 문산(9곡)은 금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다. 문산은 예로부터 경치가 아름답고 조용하여 글읽기에는 좋은 곳이라 하여 부르는 이름이다.

설렁탕

소의 내장, 대가리, 사등뼈, 발쪽, 뼈다귀 등을 함께 넣고 푹 끓인 국 또는 그 국에 밥을 만 음식을 말한다.

《설렁탕》이라는 말의 어원과 관련하여서는 여러가지 설이 전해지고있다.

그 하나는 조선봉건왕조시기 세종왕과 관련된 이야기이다.

한번은 세종왕이 나라에 풍년이 들기를 기원하여 선농단

이란 곳에 가서 농사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의식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밭갈이모의 의식을 한창 진행하고있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그 비는 끼니때가 퍼그나 지나도록 그치지 않고 그냥 내리였다. 배가 몹시 고파난 왕은 시장기를 더 참지 못하고 밭갈이하던 소를 잡아 맹물에 끓여가지고 뚝배기에 담아 파와 소금으로 간을 맞추어 먹었다고 한다. 여기로부터 선농단에서 끓인 국이라는 뜻에서 처음에는 《선농탕》이라고 하던것이 점차 말소리변화를 입어 《설렁탕》이라고 부르게 되였다는것이다.

다른 하나의 이야기는 소의 내장, 대가리, 사등뼈, 발쪽 등 음식감들을 약한 불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설렁설렁 끓인 국이라는 뜻에서 《설렁탕》이라고 한다는것이다.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는 설렁탕의 국물빛이 눈과 같이 희뿐아니라 오랜 시간 끓였기때문에 음식감들이 푹 익었다는 뜻에서 눈을 의미하는 《설》자와 무르녹음을 뜻하는 《농》자를 써서 《설농탕》이라고 하던것이 점차 《설렁탕》이라고 발음이 바뀌여졌다는것이다.

설빔

설날에 몸차림을 위한 옷, 모자, 신발 등을 통털어 이르는 말이다.

《설빔》은 《설비음》에서 《비음》이 줄어들어 생긴 말이다. 설을 맞으며 새 옷가지들을 마련하는 일을 옛날에는 《빗다》라고 하였다.

《빔》은 《빗다》의 말뿌리 《빗》이 명사화되여 생긴것이

며 그것이 일부 명사의 뒤에 붙어서 명절이나 잔치때 새옷으로 몸을 치장하는 일 또는 그 옷을 가리키는 말로 《명절빔》, 《잔치빔》과 같이 쓰이였다.

《동국세시기》에서는 예로부터 남녀로소가 모두 설날에 새옷을 차려입는것을 《설빔》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성냥

불을 일으키는데 쓰는 물건의 하나이다.

《성냥》은 《석류황》이라는 말에 기원을 두고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이 쓰던 석류황은 엷은 나무쪼각끝에 류황을 묻혀 불이 옮겨붙게 한 물건이였다.

초기에는 말소리변화규칙에 따라 《성뉴황》으로 발음되였다. 그후 이 단어가 자주 쓰이게 되는 과정에 그것이 말소리사이에서 《ㅎ》소리가 빠져나가 《성냥》으로 변하였다.

소나기

갑자기 몰아쳐 쏟아지다가 곧 멎는 비를 말한다.

소나기와 관련한 옛이야기가 전해지고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였다. 어떤 늙은 중이 시주받은 쌀을 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다가 원집(려행하는 사람들이 묵어가는 집)을 만나 그 집마당에서 쉬게 되였다. 그때 그 주변 농군들이 소를 가지고 밭일을 하다가 거기에 와서 함께 쉬게 되였다. 농군들은 하늘도 무심하게 비를 내려주지 않아 올농사를 망치게 되였다고 하면서 탄식을 하는데 덤덤히 앉아서 듣기만 하던 중이 자기가 입고있던 장삼을

만져보더니 이제 곧 비가 올거라고 말하였다.

하늘엔 구름 한점 없는데 비가 온다고 하니 농군들은 정신나간 소리를 한다고 했다.

중은 고집스레 비가 온다고 하고 농군들은 그들대로 청청하늘인데 무슨 도깨비같은 소리를 하느냐고 우겼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소임자인 농군이 《만일 스님의 말대로 비가 오면 난 내 집 소를 내놓겠소.》라고 했다. 중은 중대로 비가 오지 않으면 《소승은 쌀바랑도 바치고 한두해 그대의 집에서 일해주겠소.》라고 하여 내기가 벌어졌다.

시간이 흘러 해가 서산쪽으로 기울려는데 난데없이 하늘로 먹장구름이 밀려드는것이였다.

여기에서 번쩍, 저기에서 번쩍 번개불이 일고 우뢰소리 요란하더니 대줄기같은 비가 억수로 쏟아졌다.

그만에야 농군들은 중에게 비가 올줄 어떻게 알았는가고 물었다.

중은 웃으며 《소승은 옷을 자주 빨아입지 못해서 늘 땀에 젖어있지요. 땀은 곧 염기라 그러니 옷에 누기가 닿으면 눅눅해질것이 아니겠소. 아까 장삼자락을 만져보니 몹시 축축하기에 인차 비가 올줄 안거지요.》 하고 대답했다.

내기에서 진 소임자는 소를 내놓게 되였다.

소고삐를 받아쥐였던 중은 다시 그걸 주인에게 넘겨주며 말했다.

《이 소를 도로 드리겠으니 농사를 잘 지으소서. 승에겐 별로 소용없지만 농사군들에게야 소보다 더 요긴한 물건이 있겠소.》

중이 쌀바랑을 지고 일어서는데 억수로 퍼붓던 비가 뚝 그치고 언제 비가 왔더냐싶이 하늘이 청청해졌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부터 여름철에 갑자기 쏟아지다가 뚝 멎는 비를 가리켜 소를 걸고 내기를 한 비라는 뜻에서 《소내기》라고 하다가 그후 세월이 흐르면서 《소나기》로 변하였다고 한다.

소주

담근 술을 고아 알콜성분을 따로 증발시켜 얻은 술을 말한다.

이 술이 《소주》로 불리우는것은 탄다는 의미의 《소》자와 술이라는 의미의 《주》자를 썼기때문이다.

소주를 《화주》라고도 하였고 《백주》라고도 하였다. 《화주》는 불을 때서 만든 술이라는데서 만든 말이고 《백주》는 맑고 희다는 뜻에서 만든 말이다.

력사기록에 의하면 고려시기(13세기 중엽)의 문헌들에 소주라는 말이 쓰이였는데 약으로 썼다고 했다. 이것은 소주가 처음에는 약으로 조금씩 생산되였다는것을 말해준다.

소쩍새

우리 나라의 전국 산야에서 널리 번식하는 철새의 하나이다.

이 새의 울음소리를 따서 만든 이름이다. 일명 《접동새》라고도 한다.

15～16세기의 옛 문헌들인 《악학궤범》, 《훈몽자회》 등

에서는 《접동새》로 쓰고있으나 18세기의 문헌들인 《청구영언》, 《해동가요》에는 《솟적다새》로 씌였다.

전설에 의하면 《접동새》란 말은 이 새가 갑자기 부모를 잃은 아홉이나 되는 오랍누이가 가난하게 사는것을 보고 불쌍하게 생각하여 구슬프게 《접동— 접동—》 하고 울었다는데로부터 불리워진 이름이라고 한다.

한편 《소쩍새》란 말은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빈 솥을 놓고 먹을것이 없어 한숨만 짓는것을 보고 《솥적다— 솥적다—》 하고 구슬피 운데로부터 불리워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밤에만 운다고 하여 《밤새》라고도 부른다.

손

옛날에 미신적관념에서 날자를 따라 네 방위(사방)를 다니면서 사람의 활동을 방해한다는 귀신을 이르는 말이였다.

옛날 어느 한 지방 절에 중들이 많이 살고있었는데 이들은 대사집이라는 대사집은 빠짐없이 찾아다니며 절에 불공을 드려야 한다고 하면서 많은 쌀과 고기, 음식들을 걷어가군 했다.

중들은 음력으로 1일과 2일은 동쪽마을, 3일과 4일은 서쪽마을, 5일과 6일은 남쪽마을, 7일과 8일은 북쪽마을… 이런 식으로 날자를 따라 네 방위로 다니면서 물건을 거두어들이였다. 그러다 음력 9일째 또는 10일째 되는 날에는 절에 모여앉아 그동안 끌어들인 음식을 진탕치듯 처먹으며 저희들끼리 즐기였다.

그리하여 그 지방에서는 결혼식을 포함한 모든 대사를 중

들이 오지 않는 날에 하였는데 중들때문에 그렇게 한다고는 차마 말할수 없어 귀신과 결부시켰던것이다.

결국 중들이 마을에 나타나는 날은 《손이 있는 날(손해를 보는 날)》, 안 오는 날은 《손이 없는 날(손해가 없는 날)》로 되였던것이다.

이 말들은 사실상 지금에 와서 아무런 의미도 없다.

손돌이추위

음력 10월 20일경에 맵짠 바람과 함께 닥치는 추위를 이르던 말이다.

《손돌이추위》에서 《손돌이》란 고려시기의 배사공으로서 통진과 강화사이의 나루가에서 원통하게 죽은 전설적인물로 알려진 사람의 이름이다. 그가 죽은 날이 음력 10월 20일이였다. 이무렵은 대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는 때이다. 이때 추위를 손돌이의 넋이 일으키는 추위라고 하여 예로부터 《손돌이추위》라고 말하는것이다.

《동국세시기》에서는 음력 10월 20일에 해마다 큰 바람과 추위가 있게 되는데 이날의 추위를 《손돌이추위》라고 한다고 하였다.

이 추위를 《손돌이추위》라고 하는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있다.

고려때에 있은 이야기이다.

어느날 임금이 란을 피해 강화도로 배를 타고 가는데 모진 바람과 파도가 닥쳤다. 이때 손돌이라는 배사공이 잠시 풍파를 피하여 가자고 하자 임금이 그를 의심하고 당장 목을

베게 하여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하였다.

그후로 해마다 10월 20일이 되면 억울하게 죽은 손돌이의 원한이 맺혀 바람이 일고 추워진다고 전해오고있다.

손돌이가 참형을 당한 그때로부터 이 물목을 《손돌목》 또는 《손돌이목》이라고 하였고 손돌이가 죽은무렵에 있게 되는 추위를 《손돌추위》 또는 《손돌이추위》라고 하였던 것이다.

솟을대문

지붕이 우뚝 솟게 지은 큰 대문을 말한다.

《솟을대문》은 《솟다》의 말뿌리 《솟》과 《대문》사이에 토 《을》이 끼여들어가 이루어진 합친말이다.

《솟을무늬》란 말도 있는데 이 단어는 도드라지게 놓은 무늬를 말한다.

송곳

구멍을 뚫는데 쓰는 손도구를 말한다.

송곳의 옛날말은 《솔옷》이다. 그후에 《송곳》으로 변했는데 이것은 소나무라는 의미의 《송》에 뾰족하다는 의미의 《곶》이 변한 《곳》이 첨가된 합친말이다.

《송곳》이란 말은 본래 옛날에 소나무를 뾰족하게 깎아 지금의 송곳처럼 리용한데서부터 불리워진 이름이다.

송편

우리 나라에만 있는 민족음식의 하나이다.

쌀가루를 끓는물에 반죽하고 거기에 소를 넣어 반달모양으로 빚어 만든다. 소로는 팥, 콩, 대추, 참깨, 밤 같은것을 넣는다.

이 떡을 《송편》이라고 하는것은 그것을 익힐 때 솔잎을 깔고 찌기때문이다.

수라장

수라가 싸운 전투장이라는 뜻인데 이 말은 불교에서부터 나온 말이다.

싸움을 일삼고 살륙을 즐긴다는 귀신이 있는데 이 귀신을 《아수라》라고 했다. 《수라》란 《아수라》의 준말이다.

이 아수라는 얼굴이 세개고 팔이 여섯개라고 한다.

그는 불법을 지키는 신인 제석천과 싸웠는데 그 전투장의 광경이 살벌하기가 이루 형용할수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수라장》이라는 말은 바로 여기에서 유래되여 모든것이 뒤범벅이 된 상태를 이르는 말로 쓰인다.

수작

남의 말이나 행동, 서로 말을 주고받는것 또는 그 말, 음흉한 속궁궁이나 속셈, 술잔을 서로 주고받는것을 말한다.

《수작》이란 원래는 주고받는다는 뜻으로서 술잔을 돌려가며 마신다는 말에서부터 유래되였다.

옛날부터 술을 마시는 방법을 그 형태에 따라 세가지로 갈라보았는데 자기가 자기 술잔에 마시고싶은 량만큼 따라서 마시는 방법을 《자작》, 상대방의 잔에 서로 부어주면

서 맞잔을 찧으며 마시는 방법을 《대작》, 제가 마시고나서 그 잔을 옆사람에게 돌려 권하며 마시는것을 《수작》이라고 하였다. 《수작》에서 《수》는 갚는다, 권한다는 뜻이고 《작》은 잔이라는 뜻이다.

결국 《수작》이란 《술을 권하면서 하는 말》이란 뜻이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흘러오는 과정에 그 말뜻도 많이 달라졌는데 지금은 나쁜 색채를 띠고 주로 그릇된 목적으로 이루어진 내용의 말을 주고받는것으로 되여있다.

수염

사람의 입가나 코밑, 턱, 볼에 나는 털이나 낟알끝에 달린 까끄라기를 이르는 말이다.

《수염》이란 말은 입가에 난 털을 이르는 《수》와 뺨턱에 난 털을 이르는 《염》으로 이루어진 말이다.

옛날말로는 《나룻》이라고 하였다.

오늘날에 와서 《나룻》은 아직도 부분적으로 쓰인다. 례컨대 귀밑에서 턱까지 난 수염을 《구레나룻》이라 하고 두 뺨과 턱에 다보록하게 난 수염을 《다박나룻》 또는 《다박수염》이라고 하며 때로는 《탑삭나룻》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더부룩하게 난 수염을 《텁석부리》라고 하며 한곳에 모여난 수염은 《모다기수염》이라고 한다.

숭늉

밥을 지어내고 가시지 않은 솥에 덥힌 물을 말한다.

《숭늉》이란 말은 《숙랭》의 말소리가 변한것이다. 오늘

도 지방사투리들에서는 《숭냉》, 《숭냥》, 《숭넝》, 《숭농》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숙랭》의 말소리들이 각이하게 변했기때문이다.

《숙랭》에서 《숙》은 익는다는 뜻이고 《랭》은 차다는 뜻이다.

결국 《숙랭》은 찬물을 익혀 식힌것이라고 볼수 있다.

숭어

바다연안과 강하류일대의 짠물과 민물이 섞이는 곳에서 사는 물고기의 하나이다.

숭어를 가리켜 1433년에 나온 《향약집성방》에서는 물의 고기라는 의미의 《수어》라고 하였으나 1530년에 나온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뛰여난 고기라는 의미의 《수어》라고 하였다. 이 《수》자가 후에 《숭》자로 발음되였다. 따라서 맛이 대단히 뛰여난 물고기라는 말이다.

시정배

지난날에 장사치를 얕잡아 이르던 말이다.

《시정배》란 말에서 《시》는 장마당이란 뜻이고 《정》은 우물이란 뜻이며 《배》는 무리 또는 사람이란 뜻이다.

사람들의 생활에서는 쌀이나 불과 함께 물이 매우 중요하므로 옛날에는 우물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부락도 형성하고 장마당도 차려놓았다.

《시정배》는 이런 생활과정에서 생긴 말인데 이것은 장마당과 우물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사람을 의미

한다. 그런데 시정배들은 품은 적게 들이고 돈은 많이 벌자고 하니 자연히 남을 속이기도 하고 그들의 등을 치기도 하면서 사기나 협잡행위를 일삼게 되였다. 그들은 또한 몇푼의 돈이라도 더 벌수만 있다면 자존심도 량심도 도덕도 체면도 다 집어던지고 손님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비굴하게 행동하였다.

여기로부터 《시정배》라는 말은 장사치라는 본래의 말뜻에서 점차 벗어나 저속하고 추악한 무리라는 뜻으로 통용되게 되였다.

시호

죽은 다음에 봉건국가가 이름난 정치가, 학자, 장수 등에게 그들의 《공》과 《덕》을 칭송하여 주는 칭호를 가리키는 말이다.

임진조국전쟁때 가장 큰 군공을 세운 리순신장군의 시호는 《충무》였고 고려말에 리성계일파의 왕위찬탈(신하가 왕의 자리를 빼앗는것)을 반대하고 고려왕조에 대한 《충의》와 절개를 끝까지 지킨 정몽주의 시호는 《문충》이였다.

시호는 《공》을 붙여 《충무공》 또는 《문충공》 등으로 부른다.

신기루

흔히 지평선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대상들이 온도와 습도의 관계로 대기의 밀도가 층층이 서로 달라질 때 광선의 굴절로 대기층에 높이 떠보이거나 거꾸로 보이는 현상

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을 《신기루》라고 부르게 된것은 옛날사람들이 그것을 그 어떤 동물의 신비로운 조화로 잘못 인식한것과 관련된다.

그들은 신기루를 대합조개나 이무기(룡이 되려다 못되고 물속에서 산다는 여러해 묵은 큰 구렝이)가 기운을 뿜어서 만들어낸 공중루각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큰 조개를 의미하는 《신》, 기운을 의미하는 《기》, 다락을 의미하는 《루》를 써서 《신기루》라고 부르게 되였다.

《신기루》를 《해시》라고도 하는데 《해》는 바다라는 뜻이고 《시》는 장마당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신기루가 마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와글거리는 장마당처럼 보인다는데로부터 불리워진 이름이다.

신민요

1920년대말부터 조국이 해방될 때까지 우리 나라에서 널리 창작보급된 민요풍의 노래를 말한다.

《신민요》는 우리 나라의 이름난 작곡가 리면상에 의해 1933년에 처음으로 쓰기 시작한 말로서 그 이전시기에 나온 구전민요와 대비해볼 때 새로운 내용과 형식을 가진 민요라는 의미에서 나오게 되였다.

신민요는 직업적인 작곡가들이 지은 창작민요와 전통적인 조선민요의 형식을 시대의 요구와 인민들의 미감에 맞게 계승발전시킨 현대화된 민요를 다 포괄하는 개념으로 쓰인다.

당시는 민요에 구전민요만 있다는 낡은 관습이 지배적이

였다.

리면상은 전통적인 조선민요의 특징을 살려 새로 창작한 민요풍의 노래들은 곡조의 선률음조나 양상도 다르고 가수들의 창법까지도 엄연히 구별되는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류행가라고 하는것은 잘못된것이라고 반박하면서 민요도 시대의 변천과 함께 발전하는것이며 거기에 작곡가들이 새로 지은 창작민요들까지 보충되면 우리 음악이 보다 풍부한 발전을 이룩할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꽃을 잡고》와 같은 노래는 전통적인 구전민요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민요라는 의미에서 《신민요》라고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그의 의견은 즉석에서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리하여 《포리돌》레코드회사에서 제작한 소리판에 처음으로 《신민요》라는 새로운 용어가 붙게 되였다.

신민요의 대표적작품들로는 《노들강변》, 《조선팔경가》, 《평북녕변가》 등이 있다.

신선로

상우에 올려놓고 고기붙이와 여러가지 고명을 담아 끓이는 음식그릇 또는 그 음식을 말한다.

신선로와 관련하여 두가지 이야기가 전해지고있다.

그 하나는 15세기말～16세기초 정희량이란 사람이 산속에서 살면서 독특한 화로로 음식을 끓여먹었는데 그 화로에 신선을 형상한 그림이 새겨져있었다고 하여 그렇게 불리웠다는것이다.

다른 전설에 의하면 옛날에 신선들이 이 로를 놓고 음식을 끓여먹었다고 하여 《신선로》라고 했다는것이다.

신선로를 《열구자탕》이라고도 하였다. 이것은 글자그대로 입을 기쁘게 하여주는 국이라는 뜻이다. 이 이름은 신선로의 진귀한 맛과 관련하여 불리워진 이름이다.

심부름

남의 시킴을 받아 그 일을 해주는 일을 이르는 말이다.

《심부름》이란 말에서 《심》은 《힘》이 어음변화를 일으킨것이고 《부름》은 동사 《부리다》가 명사화된것이다.

결국 《심부름》은 남의 힘을 부린다는 뜻에서부터 그 의미가 파생되였다.

새벽

날이 어슴푸레 밝아지면서부터 아침해가 떠오를무렵까지를 말한다.

보통 《새벽》, 《새벽녘》이라고 한다.

같은 《새벽》이라도 날이 새기 시작하는 이른새벽은 《첫새벽》, 《꼭두새벽》, 《어둑새벽》, 《신새벽》이라고 한다. 또한 아직 어두운 이른새벽이라 하여 《어둑새벽》, 《어뜩새벽》이라고도 하며 사위가 어슴푸레하게 밝기 시작한다고 해서 《어둠새벽》, 《어슴새벽》이라고도 한다. 아침밥을 먹기 전의 이른새벽을 《식전새벽》이라고 하며 새벽으로 보아서는 좀 느지막한 때를 《늦새벽》이라고 한다.

본래 조선말에서는 《새벽》, 《새쪽(동쪽)》, 《새롭다》,

《새뜻하다》 등이 모두 어원적으로 같은 말들이였다.

《훈몽자회》에서는 새벽을 《새배》라고 쓰고있는데 이것은 《새벽》의 옛날말이다. 날이 밝는것을 《날이 샌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침이 동쪽에서부터 밝아오기때문이다.

조선말에서는 동쪽을 본래 《새쪽》이라고 하고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새바람》이라고 하며 날이 밝는것을 《새날》이라고 한다.

이 《새》는 다 동쪽을 이르는 말이다. 《새벽》의 《벽》은 《밝다》의 말뿌리가 변한것으로서 《새벽》이란 결국 《동쪽이 밝는것》을 말한다.

세배

설에 웃사람에게 하는 인사를 말한다.

《세배》의 《세》는 《설》이란 말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 《배》는 절이라는 뜻을 가진다.

결국 《세배》는 《설날절》이라는 뜻으로서 예로부터 설날에 친척들과 동네늙은이들을 찾아하는 인사를 이르는 말이다.

ㅈ—ㅎ

잡가

18~19세기에 가사의 형식이 분화되면서 나온 민족시가형식의 하나이다. 당시 도시평민계층들의 자유분방한 생활감정을 담아 본래부터 전해오던 전통적인 곡을 무시하고 잡탕으로 부른다는 의미에서 《잡가》라고 하였다.

잡가로는 《륙자배기》, 《토끼타령》, 《새타령》, 《십장가》 등을 들수 있다.

잡동사니

여러가지가 잡다하게 뒤섞인것 또는 잡다한 여러가지 물건을 말한다.

《잡동사니》란 말은 《잡동산》에서 유래되였다.

《잡동산》이란 말에서 《잡》은 섞인다는 뜻이고 《동》은 함께 또는 한군데라는 뜻이다. 그리고 《산》은 흩어진다는 뜻이다.

지금에 와서는 발음되는대로 《잡동사니》로 적는다.

장돌뱅이

낡은 사회에서 이 장, 저 장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장사군을 얕잡아 이르던 말이다.

《장돌뱅이》에서 《장》은 장마당을 뜻하고 《돌》은 돈

다는 뜻이며 《뱅이》는 사람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뒤붙이이다.

장돌뱅이의 중요한 특징은 우선 어느 한자리에 고정적으로 앉아서 물건을 파는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파는것이고 다른 특징은 제 물건을 사라고 계속 싸구려를 불러대는것이다.

여기에 비유하여 한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여기저기 돌아치거나 중이 념불외우듯 쉴새없이 무엇이라고 중얼거리며 다니는 사람을 가리켜 《장돌뱅이》 또는 《장돌뱅이같은 사람》이라고 한다.

저녁

해가 질무렵부터 밤이 되기까지의 동안을 말한다.

《저녁》이란 말은 떨어진다는 뜻을 가진 《지다》의 말뿌리 《지》와 《무렵》이라는 뜻을 가진 《녁》으로 이루어진것으로서 《해가 진무렵》이란 뜻이다.

저녁을 지방사투리에서는 《지녁》 또는 《지낙》이라고 하는데 《지》가 《저》로 변한것은 언어에서 현재와 과거를 나타내는 시간관계와 관련된다.

《저녁》이란 말은 해가 지는 녘이 아니라 《진녁(전녁)》이란 뜻을 가진다.

《해가 진무렵》을 의미하는 《전녁》은 혀소리 《ㄴ》의 되풀이를 피하기 위하여 《저녁》으로 변하였다고 볼수 있다.

《저녁》이란 말을 1527년에 나온 《훈몽자회》에서는 《나죄》라고 하였는데 지금도 륙진방언에서는 그렇게 부르

고있다.

《나죄》란 《날이 진것》이라는 뜻이다.

《저녁》의 옛날말인 《나죄》의 《나》는 《ㅈ》앞에서 《ㄹ》이 빠진것으로서 《날》이라는 말이고 《죄》는 《지다》의 말뿌리 《지》에 뒤붙이 《오》가 줄어든것으로서 《진것》이라는 뜻이다.

결국 《저녁》이란 《해가 진무렵》을 말하고 《나죄》는 《날이 진것》을 의미하므로 다 같은 뜻의 말이다.

저승

지난날 불교에서 사람이 죽은 뒤에 이른바 넋이 가서 있게 된다고 하는 곳을 이르는 말이다.

《저승》이란 가리킴대명사 《저》와 《삶》, 《생명》이란 뜻을 나타내는 《생》이 변한 말이다.

《저승》에 상대하여 불교에서는 사람이 사는 이 세상을 《이승》이라고 한다. 이승이란 말은 《이생》이 변한것이다.

적자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서 모자라는것을 말한다.

《적자》란 글자그대로 붉은 글자라는 뜻으로서 회계에서 모자라는것을 붉은색으로 표시한데로부터 생긴 말이다.

지난날 회계를 할 때에는 수입을 나타내는 차방은 왼쪽에, 지출을 나타내는 대방은 오른쪽에 쓰고 대조하여 모자라는것은 붉은색으로 표시하였다. 이로부터 《적자》라는 말은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서 모자란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

로 쓰이게 되였다.

정자나무

집가까이나 길가에 있어 사람들이 그늘을 찾아 모여드는 큰 나무를 이르는 말이다.

《정자나무》라는 말은 어떤 종류의 나무의 이름이 아니라 정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나무라는 의미에서 불리워진 이름으로서 그늘을 지을수 있는 나무면 아무것이나 될수 있다.

《정자》란 주로 경치가 좋은 곳에 쉼터나 놀이터로 쓰기 위하여 벽이 없이 기둥과 지붕만 있게 지은 집을 말한다.

사람들은 먼길을 가거나 밭에서 일을 하다가 휴식을 할 때에는 해가 비치지 않게 그늘을 주는 나무를 찾게 되는데 제일 적당한 장소가 바로 나무밑이다. 무더운 여름철에 더위를 피해 나무그늘밑에 들어가면 한결 시원하고 상쾌해지는데 그 기분은 마치 정자에 올라있는듯 한 느낌을 준다.

이로부터 집가까이나 길가의 그늘을 주는 큰 나무들을 정자에 비기여 《정자나무》라고 하였다.

정자나무로는 그늘을 잘 지어주는 나무라면 어떤 나무든지 다 리용될수 있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느티나무가 정자나무로 제일 많이 리용되여왔다.

정장어

청어과에 속하는 민물고기의 한가지이다.

우리 나라의 토배기물고기라고 말할수 있다. 찬물을 좋

아하는데 성질이 매우 사나와서 《물속의 호랑이》라고 불리우는 맹어이다. 길이는 보통 70∼80㎝이며 1m를 넘는것도 있다.

우리 나라 민물고기가운데서 가장 큰 종으로서 장진강수역에 많이 분포되여있다. 기름이 많고 고기맛이 좋다.

이 물고기의 이름과 관련한 유래가 있다.

옛날에 정장이라는 이름을 가진 늙은이가 있었다. 하루는 그가 강에 나가 낚시질을 하다가 그만 물에 빠지였다. 이때 먹이를 찾아 물밑의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던 큰 물고기 한마리가 그를 잡아먹었다. 이때부터 정장로인을 잡아먹은 물고기라는 뜻에서 그 물고기를 《정장어》라고 부르게 되였다.

정장어를 《자치》라고도 한다.

정월대보름

음력으로 1월 15일을 말한다.

이날을 정월대보름이라고 하는것은 그날이 일년에 열두번 맞게 되는 보름중에서 새해의 첫달에 맞는 보름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였다.

정월대보름명절은 보통 14일부터 시작되는데 그날은 작은보름이라고 하고 15일은 대보름 또는 큰보름이라고 하였다.

옛날부터 우리 인민들은 정월대보름이 되면 새해에 행운과 풍년이 들기를 바라는 소박한 념원을 반영한 여러가지 행사와 민속놀이들을 진행하였으며 저녁에는 동리사람들이 모두 뒤동산에 올라가 솟아오르는 쟁반같은 둥근달을 구경

하였다. 그리고 그 전날에는 국수를, 당일 아침에는 찬 술을 마시는 풍습도 있었다.

정월대보름은 우리 인민이 대대로 내려오면서 즐겨 쇠는 민속명절의 하나이다.

조금날

달모양이 반달로 되는 때에 나타나는 미세기차가 가장 작은 날을 말한다. 음력으로 매달 7일경이 상현(초생반달)이고 27일경이 하현(그믐반달)인데 이날들을 일컫는 말이다.

《조금》이란 말은 《조감》이란 말이 변한것이다. 《조감》이란 말에서 《조》는 밀물이라는 뜻이고 《감》은 덜다, 줄다는 뜻으로서 밀물이 제일 적은 때라는 의미로 된다.

조개

물에 사는 연체동물의 한가지를 말한다.

《훈몽자회》에서는 모든 조개에 한하여 《죠개》라고 새기고있다.

《죠개》는 《죡+애》로 이루어진 단어인데 《죡》은 형용사 《젹다》의 변화형인 《죠고맛간》에 어원을 두고있다.

《죠고맛간》은 《조그마한》의 옛날말이고 그 말뿌리인 《죡》은 본래 적은것이란 뜻이였는데 오늘은 쪼개진 작은 부분을 이르는 말로 되였다.

결국 《조개》란 그 어원으로 볼 때 《쪼개지는 작은것》이란 뜻이다.

조무래기

어린아이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좀》과 《우래기》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좀》은 《줌》이 변한것으로서 주먹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있다.

《우래기》는 뒤붙이로서 매우 작은것을 말한다.

따라서 《조무래기》는 본래 줌안에 넣을수 있는 자질구레한 작은 물건을 이르던 단어였는데 비유적으로 자주 쓰이면서 점차 아이들을 가리키는 말로 되였다.

종로

종각이 있는 거리라는 뜻이다.

종각은 옛날에 종을 달기 위하여 성안에 지어놓은 루각을 말한다. 종각은 주로 도시의 번화한 네거리에 짓는데 거기에서 성문을 여닫는 시간, 여러가지 사건과 사변들을 알리는 종소리를 울리군 하였다. 그러므로 《종로》라는 이름은 어느 한 도시에만 있는것이 아니라 큰 도시(주로는 수도)에는 거의다 있다.

종바리

작은 밥그릇의 한가지를 말한다.

《종바리》를 《종발》이라고도 한다.

《종바리》의 《종》은 자그마하다는 뜻을 나타낸다. 《바리》는 쏟아지거나 흐르는것을 담는다는 뜻을 나타낸다.

주먹

손가락을 다 모아쥔 손을 말한다.

《주먹》이란 말은 《줌+억》으로 이루어진 단어로서 옛 문헌 《훈몽자회》에서는 《주머귀》라고 기록하고있다.

《줌억》에서 단위명사 《줌》은 사람이 손가락을 맞붙여 량껏 잡을수 있는 용적의 단위이다.

《억》은 《주걱》(죽+억), 《부엌》(붗+억)의 《억》과 같은것으로서 《어구》가 변한 뒤붙이이다.

《주먹》은 본래 잡거나 쥐는것이라는 뜻이였는데 오늘은 손가락을 다 모아쥔 손을 가리킨다.

중계업

되거리무역의 하나를 말한다.

《중계업》이란 가운데서 이쪽과 저쪽을 서로 이어주는 일이란 뜻인데 무역에서는 이 나라의것을 가져다 저 나라에 넘기고 저 나라의것을 가져다 이 나라에 넘기는것을 의미하게 되였다.

중계업은 원래 자연부원도 많지 못하고 인구도 적으며 자립적인 민족경제의 토대가 미약한 나라들에서 자기 나라가 처한 지리적위치의 특성을 살려 어느 한 나라에서 물건이나 원료를 받아다 다른 나라에 비싼 값으로 넘겨주는 방법으로 무역을 하면서부터 생겨났다.

진달래

진달래과에 속하는 잎지는 떨기나무의 한가지를 말한다.

이 꽃나무를 진달래라고 부르는것과 관련하여 두가지 이야기가 전해지고있다.

하나는 전장으로 오가는 우리 군사들에 대한 이 나라 녀인들의 갸륵한 마음씨와 관련된 이야기이다.

먼 옛날부터 우리 나라 청장년들은 외적들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하여 백두산을 넘나들었다. 그때마다 그들의 어머니들과 안해, 누이들은 멀리까지 나가 그들을 바래주기도 하고 마중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처음 그곳의 땅은 습기가 많아 떠나는 사람도, 바래주는 사람도 다닐수가 없었다. 더우기 그들이 전장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진펄을 밟게 하는것이 제일 마음에 걸리였다. 그래서 녀인들은 젊은이들이 전장으로 오갈 때 진펄을 밟게 하지 않으려고 천지쪽에서 여기에 수많은 꽃나무들을 옮겨다 심었는데 그가운데서도 제일 많고 사람들의 눈에 환히 안겨오는것이 바로 진달래였다.

그때는 이 꽃나무를 《천지꽃》이라고 하였다. 백두산천지주변에 피는 꽃이라는 뜻이였다.

그러던것이 달래각시들이 진펄에 심은 꽃이라는 뜻에서 《진펄달래각시꽃》이라고 부르게 되였다. 달래각시란 본래 어린 나이에 시집간 녀자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어머니와 안해, 누이 등 녀자일반을 두루 이르는 말로 쓰이였다.

그러다가 오랜 세월이 흘러오는 과정에 《진펄》의 《진》자와 《달래각시꽃》의 《달래》자만을 따서 《진달래》라고 부르게 되였다는것이다.

다른 하나의 이야기는 조국방위를 위해 한목숨 서슴없이

바친 두 청춘남녀의 애국심과 관련한 이야기이다.

고구려의 외진 산골인 현무봉밑에 달래라는 이름을 가진 처녀가 부모를 여의고 홀로 외롭게 지내면서 산나물을 뜯어 겨우 살아가고있었다. 이웃동네에는 역시 부모를 일찌기 잃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품팔이하는 진평이라는 총각이 살고있었다. 그 총각은 무예와 병법을 가르치는 로인을 만나 그에게서 무술을 배우기로 하였다. 그러다나니 달래와 진평은 자주 현무봉밑에서 만나게 되였는데 그것이 인연이 되여 그들은 한가정을 이루게 되였다.

그러던 어느날 진평과 달래는 나라의 변방에 외적들이 침노하여 주민가옥을 불태우고 재물을 로략질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였다. 진평은 더 생각할 여유도 없이 전장으로 달려나갈 결심을 하였다.

그의 마음을 잘 알고있는 달래는 날래고 튼튼한 룡마와 함께 멋진 갑옷과 투구를 마련하여주었다.

전장에 달려나간 진평은 평시에 련마한 무술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외적들을 삼대베듯 쓸어눕히고 승리의 개가높이 고향마을로 돌아오게 되였다. 남편이 승리하고 돌아온다는 기별을 받은 달래는 웃음과 눈물이 뒤섞여 범벅이 된 얼굴로 남편이 돌아올 길로 냅다 달려갔다. 먼발치에 말을 타고 달려오는 진평의 모습이 나타났을 때였다. 달려가던 달래는 수많은 외적들이 바위뒤에 숨어 진평에게 화살을 겨누고있는것을 발견하였다. 달래가 있는 힘을 다하여 《적이다!》 하고 소리쳤으나 진평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

놈들은 진평을 향해 련속 화살을 날렸다. 진평은 치명상

을 입고 쓰러졌다. 이 광경을 목격한 달래는 두주먹을 부르쥐고 진평에게로 달려갔다.

놈들은 달래를 향해 또 화살을 쏘았다.

우리 군사들이 바위뒤에 숨어있는 놈들을 발견하고 모조리 쏘아눕혔지만 이미 치명상을 입은 진평과 달래는 다시 눈을 뜨지 못하였다.

군사들과 마을사람들이 그들의 죽음을 애석해하면서 현무봉 양지바른 산기슭에 진평과 달래의 시신을 안치하고 봉분을 하였다.

다음해 이른봄 분묘에서는 울긋불긋 연분홍꽃들이 아름답게 피여났다.

사람들은 그 꽃을 진평과 달래의 우국충정과 변치 않을 사랑을 상징하여 부부의 이름을 합쳐 《진달래》라고 불렀다고 한다.

진산

도읍이나 성시의 뒤쪽에 있는 큰 산을 도읍이나 성시를 지키는 주산이라는 의미에서 이르던 말이다.

옛날에는 《선조가 내려온 산》이라는 뜻으로 쓰이였다. 옛날사람들은 산을 자기들의 선조에 대한 존경과 함께 가장 숭고한것으로 생각하였다. 그것은 선조들이 하늘로부터 산에 내려왔다고 믿고있었기때문이며 또 그 산이 외적의 침해로부터 자기들을 지켜준다고 여겼기때문이다.

여기서 《진》은 《진압한다》는 뜻과 함께 《지킨다》는 의미를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결국 《진산》이란 지켜주는

산이란 뜻으로 된다.

조선봉건왕조때에는 북쪽의 백두산, 동쪽의 금강산, 남쪽의 지리산, 서쪽의 묘향산을 나라의 진산이라고 하였다.

진산은 나라만이 아니라 지방에도 있었다. 자기네 고을을 재난과 불행으로부터 지켜준다는 의미에서 선정하여 부른 이름이다.

질곡

《질곡》이란 발전을 가로막고 자유를 얽매는것을 말한다.

《질곡》이란 말에서 《질》은 죄인들이 달아나지 못하도록 두발목에 채우는 쇠고랑을 말하고 《곡》은 두손목에 채우는 쇠고랑을 말한다. 사람의 손과 발에 쇠고랑을 채워놓으면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며 두손을 자유롭게 움직일수도 없다. 또한 마음대로 앉을수도 없고 누울수도 없으며 일어설수도 없게 된다. 결국 손발이 구속당하여 무슨 일이나 제대로 할수 없게 된다.

여기로부터 나라와 민족, 개별적사람들의 발전을 가로막고 자유를 얽어매는것을 사람들의 손발을 얽어맨 쇠사슬에 비유하게 되였다.

제비

우리 나라의 전 지역에서 번식하는 여름새의 한가지이다.

《훈몽자회》에서는 제비를 《져비》라고 새기고있다.

《져비》는 《졉+이》로 이루어진것으로서 《졉》은 《졉－졉－》 하고 우는 제비의 울음소리를 나타낸것이고 《이》는

명사를 만드는 뒤붙이이다.

제비가 우는것을 《지지배배》라고 하는데 《졉졉비비》가 오랜 세월을 거쳐 점차 변화되여 이루어진것이다.

잰내비

원숭이를 달리 부르는 《잰내비》란 옛날말 《잰납》이 변한것이다.

《잰》은 빠르고 날쌔다는 뜻을 가진 《재다》의 규정형이고 《납》은 《낯》이 변한것이다.

이로부터 《잰내비》란 말은 《낯》(얼굴)의 변화가 매우 민첩하다는 뜻으로 붙은 이름이다. 한편 《납작납작》의 《납》으로 보면서 날래게 나무에 납작납작 달라붙는 원숭이의 특성에서 나온 말로 보는 견해가 있다.

청주

낟알을 기본원료로 하여 만든 발효술을 말한다.

이 술을 《청주》라고 하는것은 낟알누룩과 찐 밥에 물을 잡아 발효시켜 술만 뽑아낸 맑고 투명한 술이라 하여 맑다는 뜻의 《청》자와 술을 의미하는 《주》자를 썼기때문이다.

지난날 청주를 《약주》라고도 불렀다.

그것은 술가운데서도 몸에 특효가 있는 좋은 술들에 붙인 말로도 리해된다.

청어

청어과에 속하는 바다물고기의 한가지이다.

《청어》란 푸른 물고기라는데서부터 지어진 말이다.

청어의 본래의 고유어는 《비웃》(비웃)이였다.

현재 《비웃/비웃》은 고기의 몸결에 씌여있는 《비늘》 또는 《비리다》를 의미하는 말로 보는 견해가 강하다. 그러던 《비읃》, 《비웃》이 조선봉건왕조 후반기에 와서 《청어》로 쓰이였다. 아마도 푸른 물고기라는 의미에서 지어졌다고 보아진다.

18세기의 책인 《물보》에도 《청어》로 씌여있다.

촉석루

경상남도 진주시에 있는 오랜 력사유적이다.

《촉석》이라는 말자체가 바위가 찌를듯이 높이 솟은 모양을 이르는 말이다. 이로부터 강기슭에 높이 솟은 바위우에 선 다락이라고 하여 《촉석루》라고 이름을 지어 불렀다.

임진조국전쟁시기 애국녀성 론개가 바로 이 촉석루에서 자기의 아름다운 절개와 애국적지조를 보여주었다.

친척

자기의 혈족과 혼인관계를 통하여 혈연적으로 가까운 일정한 범위의 사람들을 말한다.

친척관계의 기초로 되는것은 피줄과 혼인이다.

우리 나라 실학자의 대표적인물의 한사람인 정약용은 《아언각비》라는 자기의 책에서 《우리 나라 풍속에서 전해오기를 성이 같으면 족이라고 하고 성이 다르면 척이라고 한다.》라고 썼다.

여기서 《족》이란 같은 성의 한피줄로 련결된 사람들을 말하고 《척》이란 성이 다른것 즉 혼인으로 련결된 사람들을 말한다.

그런데 1527년에 나온 《훈몽자회》라는 책에서는 《족》과 《친》을 다같이 《어버이》라는 뜻으로 새기고있다. 여기로부터 《족척》이란 말이 《친척》으로도 쓰이게 되였다.

칠궁

낡은 사회에서 음력 7월에 당하는 어려움이란 말이다.

지난날 음력으로 7월이 되면 묵은 곡식은 다 떨어지고 햇곡식은 아직 나지 않아 심한 식량난을 겪게 되군 하였다.

《칠궁》이란 말은 여기에서부터 유래되였다. 칠궁을 당하는 기간을 《칠월궁절》이라고 한다.

칠반천인

조선봉건왕조시기에 가장 천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을 일곱가지 부류로 갈라서 부른 말이다.

칠반천인에는 백정, 장인바치, 기생, 노비, 중, 무당, 광대가 속한다.

칠반천인이란 말은 지배계급들이 만들어낸 말로서 사회의 최하층에서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천하게 여긴데서 붙여진 말이다.

칠성문

평양의 모란봉에 있는데 고구려시기 평양성 내성의 북문

으로 쌓은것이다.

《칠성문》이란 이름은 그것이 북문이라는 의미에서 북쪽을 가리키는 별인 《북두칠성》에서 《칠성》을 따서 지은 것이다.

칠성문은 옛 기록에 6세기 중엽에 세워진것으로 적혀있다.

《칠성문》은 예로부터 《행복의 문》으로 불리웠다. 그것은 나라를 지켜싸운 한 젊은이에 대한 전설이 전해지면서부터였다.

먼 옛날 고구려때에 평양성안에는 돌범이라는 총각과 시내라는 처녀가 살고있었다.

세월이 흘러 그들이 시집장가갈 나이로 자라났을 때였다. 어느날 돌범은 마음씨곱고 얌전한 시내에게 사랑을 고백하였다. 그러나 시내의 아버지는 칠성문도 나들지 못한 녀석에겐 딸을 묵이는 한이 있더래도 못 주겠다는것이였다.

돌범은 곧 무술을 닦으러 떠났다. 돌범은 어떤 일이 있어도 3년이 되면 기어이 돌아오리라고 약속을 하고 시내와 헤여졌다.

돌범이 무술을 배워주는 장수를 찾아가서 3년동안 무술을 다 닦고 집으로 돌아올무렵이였다. 한 무관이 찾아와 지금 변방에 외적이 침입하여 나라에 위기가 닥쳐와 무술을 닦은 젊은이들을 데리러 왔다고 하였다. 돌범의 마음은 안타까왔다. 3년을 하루와 같이 손꼽아 기다렸을 시내가 몹시 걱정되였기때문이였다. 그러나 돌범은 무관을 따라가 변방을 침입해온 적들과 용감히 싸워 적을 물리쳤다.

근 1년간의 싸움이 승리로 끝나자 나라에서는 군공을 세

운 돌범에게 변방장수의 벼슬을 주었고 그에게 1년동안 더 변방에 눌러있으면서 방어진을 축성하게 하였다. 이리하여 돌범은 또 시내에게 돌아가지 못하였다. 방어진을 축성할 새로운 군사들이 왔다. 그가운데 평양에서 온 젊은이들도 많았는데 한 총각이 하는 말이 시내는 얼마전에 시집을 갔다고 했다. 돌범은 처음 미덥지 않았으나 자기가 이미 약속한 기일을 어겼고 또 그의 아버지도 자기를 마음에 없어하였으니 그대로 있을리 만무하리라고 생각했다.

그후 방어진을 계획대로 1년동안 다 쌓은 뒤 나라에서는 돌범이가 큰일을 했다고 그를 승급시켜 평양으로 소환하였다.

그는 관청에 가서 벼슬을 인계받고 홀어머니가 있는 집으로 찾아갔다. 어머니는 뜻밖에 무관의 관복을 입고 온 것이 자기 아들인것을 알고 달려나와 붙안고 기뻐했다. 그리고는 집안을 향해서 소리쳤다. 《얘야! 왔구나, 왔어! 어서 나오너라!》 돌범은 웬 일인지 몰라 어머니가 부르는 곳으로 얼굴을 들어 바라보았다. 자기 집에서 웬 녀인이 달려나왔다. 그 녀인은 다름아닌 바로 그처럼 애타게 그리던 시내였다. 돌범이가 무술닦기를 끝내고 변방으로 곧 떠나게 된 일을 무술을 배워주던 장수가 시내의 집으로 찾아와 알려주었다. 그 말을 들은 시내 아버지는 자기가 한 말도 있고 시내가 이미 약속을 했다기에 나라위해 나선 사람을 위한 마음으로 홀어머니를 돌보라고 돌범의 집에 보냈다는것이였다. 이리하여 돌범이와 시내는 어머니를 모시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칼

물건을 베거나 썰거나 깎는데 쓰는 날이 있는 도구의 한 가지이다.

《칼》이라는 말은 옛날말 《갈》에서 온것이다.

《훈민정음언해》와 《훈몽자회》에서는 《칼》을 《갈》이라고 새기고있다.

옛날에는 우리 말에 거센소리가 없었다.

원시사회에서는 무엇을 자르는데 쓰기 위해 돌을 갈아 뾰족하게 만들었는데 그것을 《갈》이라고 하였다.

그후 거센소리가 생기면서 《갈》이 《칼》로 변하였다.

지금도 일부 방언에서는 칼처럼 생긴 물고기 칼치를 《갈치》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옛날말로 된다.

클락새

딱따구리과에 속하는 리로운 사철새를 말한다.

클락새는 딱따구리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산종이다. 개성지방의 송악산일대와 황해북도 장풍군, 린산군, 평산군, 황해남도 봉천군일대에 퍼져있다.

아침과 저녁에 《클락-클락-》 하는 특이한 소리로 운다고 하여 《클락새》라고 한다.

이 새를 달리 《큰악새》라고도 한다. 《악》은 입을 의미하는 말로서 결국 큰 입을 가진 새라는 뜻으로 된다.

토시

손목과 팔을 보호하고 추위와 더위를 막으며 손동작을 간

편하게 하고 팔소매가 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팔에 끼는 보조적차림새의 한가지이다.

토시를 끼는것은 우리 선조들의 오랜 풍습이였다. 함경남도 북청군 토성리의 고대유적에서는 청동토시가 발견되였다. 이것은 벌써 고대시기에 우리 선조들이 금속으로 만든 토시를 리용하였다는것을 말해준다.

토시는 세나라시기에 많이 리용되였다고 한다. 고구려의 무덤벽화들에는 무사들과 사냥군들이 얇은 금속판이나 가죽으로 만든 토시를 낀 그림들이 많다.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와서 토시의 형태와 종류들이 더욱 다양해졌다. 일상생활에서 쓰는것, 사냥군들이 쓰는것, 군사들이 훈련 또는 전투때에 쓰는것 등이 있다.

일상생활에서 끼는 토시는 대체로 털가죽, 천 등으로 만들어서 추위막이용으로 쓰므로 주로 북부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겨울에 많이 썼다.

토시라는 말의 본래형태는 《토수》였다. 《토》자는 《투》자의 변형으로서 장갑이나 버선 등의 손이나 발에 끼는것을 말하며 《수》는 손 또는 소매를 가리키는 뜻이다.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이다.

《평양》이란 지명은 력사적으로 내려오면서 여러가지로 씌여왔다. 옛날의 많은 력사기록들에서는 《평양》, 《평천》으로 쓰고 후기에는 《류경》이라고도 하였으며 고려시기에는 《서경》, 《서도》라고도 불렀다. 평양은 이 여러가지 이름

가운데서 가장 오래고 대표적인 《평양》의 글자음에서 유래된 유서깊은 이름이다.

류경의 《류》는 《버들》의 옛 형태인 《버더리/버러리》의 현대변종인 《바라라/바라나》의 뜻옮김으로 되고 《경》은 《수도》라는 뜻으로서 버드나무가 많은 수도라는 의미이다. 《서경》은 고려때에 수도를 개성으로 옮긴 뒤에 《평양》을 우리 나라의 서쪽에 있는 옛 수도라 하여 서쪽수도라는 뜻으로 부른것이다.

풀무

숯불 같은것에 바람을 불어넣어 쇠를 세게 달구거나 녹일수 있도록 열을 올리게 하는 도구이다.

풀무의 옛날말은 《불무》였다. 옛 문헌인 《두시언해》와 《훈몽자회》에서는 풀무의 뜻을 《불무》라고 새기였다.

옛날 조선말소리에는 《ㅋ, ㅌ, ㅍ, ㅊ》와 같은 거센소리가 없었다. 그렇기때문에 《풀무》의 《풀》은 《불》이란 말이 거센소리로 변한것이다. 《풀무》의 《무》는 움직이게 한다는 뜻을 가진다.

《풀무》란 결국 《불을 움직이는것》이라는 뜻으로 된다.

풍산개

조선의 국견으로서 량강도 개마고원일대에서 퍼지기 시작한 순종개의 한가지이다.

짐승에게는 더없이 사납고 사람에게는 온순하다. 우리 나라에 고유한 종이므로 나라의 천연기념물로 보존하고 기른

다. 그가운데서도 풍산군(지금의 김형권군) 광덕리를 중심으로 한 개마고원이 이 개의 기본산지로 되고있다.

《풍산개》라는 말도 여기에서 유래된것이다.

하늘

지평선이나 수평선의 우로 아득히 높이 보이는 무한대한 공간을 말한다.

《하늘》이란 말의 어원과 관련하여서는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전해지고있다.

그중 《커다란 우리》라는 뜻을 가진 말에서 유래된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그것은 《하늘》이란 말에서 《하》는 크다는 뜻을 가진 앞붙이이며 《우리》는 짐승의 우리와 같은 말로서 어떤 테두리의 범위안에 드는것을 폭넓게 나타낸것이라는것이다.

결국 《하늘》은 《한+우리》가 《한울→하눌→하늘》로 된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옛날사람들은 자기를 둘러싼 주위의 넓은 공간을 하나의 큰 우리로 생각한데로부터 무한대한 공간을 커다란 우리 즉 하늘이라고 하였던것이다.

다른 한편 명사 《하늘》은 형용사 《하다》의 규정형태 《한》과 명사 《울》이 합쳐져 이루어진 단어로 보는 견해도 있다.

《한울》에서 《한》은 크다는 뜻을 가진 옛날말 《하다》의 규정이고 《울》은 덮개, 씌우는것을 의미하는 명사이다.

그리하여 《한울》은 《큰 덮개》, 《크게 씌워놓는것》이

란 뜻으로 된다.

그후 《한울》은 모음의 어울림현상을 거쳐 《하늘》로 변화되였다는것이다.

하루살이

몸이 가늘고 연하며 한쌍의 날개와 꼬리에 두개의 긴털이 있고 입은 퇴화되여 흔적만 있는 벌레의 한가지이다.

아침에 생겼다가 저녁에 죽는다. 하루를 산다는 의미에서 《하루살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벌레가 성충으로 지내는 기간이 하루이지 실지 사는 기간은 하루가 아니다. 하루살이는 평균 1년, 긴것은 3년간이나 유충으로 지낸다.

한강

강원도(남) 태백시 대덕산에서 시작하여 개성시와 경기도 김포사이에서 조선서해 강화만에 흘러드는 강이다.

우리 나라에서 네번째로 긴 강이다.

한강의 이름은 이 강의 하류에 자리잡고있는 지역의 옛 이름에서 딴것이다. 세나라시기로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한강하류지역을 《한》 또는 《한산루》라고 하였다. 한강의 이름은 바로 이 지역을 흐르는 강이라고 해서 붙인 이름이다. 한강으로는 북한강, 림진강, 한탄천을 비롯한 수백개의 지류들이 흘러들고있다.

한뉘

한평생이란 뜻이다.

《한뉘》에서 《한》은 옛날말 《하다》(크다, 많다)의 규정형으로서 력사적으로 내려오며 추상화되여 앞붙이처럼 변하면서 오래다는 뜻을 가지게 되였다. 《뉘》는 세상이라는 뜻을 가진 《누리》가 변화되여 이루어진것이다.

《누리》라는 말은 력사적으로 보면 세나라시기에도 쓰이였는데 그후 《뉘》로 되였다.

할미새

자그마한 실꾸리모양의 아름다운 새의 한가지이다.

할미새는 꼬리를 아래우로 또는 가로흔드는 습성이 있다. 꼬리를 아래우로 살살 흔들면서 찌쿵찌쿵 걸어다니는 모습이 할미(할머니)의 걸음과 같다고 하여 《할미새》라고 하였다.

《할미》는 《할머니》의 옛날말인데 결국 《할미새》란 말은 《할머니처럼 걷는 새》라는 말이다.

함박

통나무를 파서 바가지처럼 만든 그릇을 말한다.

《함지박》이라고도 한다.

《함박》의 옛날말은 《한박》이였다. 크다는 뜻을 나타내는 《한》과 바가지를 의미하는 《박》이 어울려 이루어진 말로서 《큰 바가지》란 뜻이다.

함박을 《이남박》이라고도 한다. 《이가 난 박》이란 뜻

으로서 안쪽에 여러줄의 이를 층층이 세워서 만든 함박을 말한다. 《함지박》이란 말도 있다.

또 《쌀함박》이란 말도 있는데 이것은 쌀을 이는데 쓰는 함지박을 말한다.

호남

전라남북도지방을 이르는 말이다.

《호남》이라는 말은 호수의 남쪽지방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호수는 충청북도 제천시에 있는 의림호(의림저수지)를 말한다. 의림호를 중심으로 하여 그 남쪽을 말한다.

효시

울부짖는 화살이란 뜻으로서 어떤 사물현상이 생기거나 나타나게 된 맨 처음을 이르는 말이다.

옛날에는 전장에서 싸움을 시작할 때 먼저 소리를 내는 화살을 적진에 쏘아보냈다고 한다.

그러나 《효시》라는 말은 소리를 내면서 날아가는 화살이라는 본래의 뜻을 잃고 어떤 사물이나 현상의 첫시작 또는 시초를 이르는 말로 되였다.

후레자식

버릇이 없고 막되게 자란 자식을 가리키는 말이다.

후레자식은 《홀애비 아들》이라는 뜻과도 통하여 쓰이면서 부모의 보살핌이 없이 마구 자란 자식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그 어원을 보아도 《홀아비자식—홀애비자식—호레자식—후레자식》으로 변한 단어이다.

그러던 이 단어가 그 음과 뜻이 비슷한 《후레》(제가 나서 기르지 못하고 후에 맞아들인 새 남편 또는 새 안해가 데리고 온)로 해석되여오는 과정에 버릇도 없고 교양도 잘 받지 못한 자식이란 뜻으로 전의되였다.

이 말과 관련된 옛이야기가 있다.

옛날 한 선비가 상처하여 홀로 살던 송아지적 친구가 새 안해를 맞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시골로 찾아간 일이 있었다. 막역한 사이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가는줄 모르는데 어느새 친구의 새 안해가 성의있게 준비한 푸짐한 밥상을 들여왔다.

《시골이라 희한한 음식은 없네. 이곳의 특산인 이 꿩고기나 맛보게.》

그래 내려다보니 상우에는 김이 물물 나는 꿩고기료리가 올라있었다.

선비는 맛을 보고는 별맛이라고 하면서 호기심이 동하여 물었다.

《이곳에 꿩이 많다는 말은 들었는데 도대체 그걸 어떻게 잡나?》

그러자 왕청같이 일곱살 난 이 집 이붓자식이 난딱 나서서 대답했다.

《우리 집에 소가 있는데 꼬리에는 방망이를 매달고 소잔등에는 흙매질하고 거기에 콩알을 드문드문 박아 들에 내놓지요. 그러면 꿩들이 날아와 그 콩을 쪼아먹느라 정신없이

덤벼쳐요. 바로 그 순간 소가 꼬리를 마구 둘러치면 방망이에 꿩들이 맞아 너부러지지요.》

곁에서 이 말을 듣다못해 이붓아비가 웃으며 꾸짖었다.

《애야, 그거야 누가 우스개소리로 만들어낸 말인데… 다신 어른들앞에서 그런 거짓말하면 안돼.》

그래도 아이는 수그러들지 않고 변명했다.

《아니예요, 지금은 그렇게 잡지 못해도 아버지가 태여나기 전엔 그렇게 했대요.》

계속 둘러치는 아이의 말에 어이가 없었던지 선비는 코방귀를 치며 한마디 했다.

《너 이놈 보통이 아니로구나. 후레자식같은 놈.》

이때부터 이붓자식으로 들어온 자식들은 배운것도 버릇도 없다는 말이 떠돌았으며 이런 아이들을 후레자식이라고 불러왔다고 한다.

흥부동

평양시 모란봉구역 룡남산의 남쪽기슭인 대동강가에 자리잡고있다.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오고있다.

옛날 고구려의 어느 왕이 하루는 한 신하를 불러다 이르기를 《우리는 수도를 남쪽으로 옮겨야 하겠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평양이 산천이 아름답고 땅이 비옥하여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들 한다. 네가 평양에 가서 수도로 될만 한 지세를 갖추고있는가를 보고 오너라.》라고 하였다.

왕의 명을 받은 신하는 곧 행장을 갖추고 평양을 찾아 초

행길을 떠났다. 강을 건느고 준령들을 오르내리면서 남쪽으로 내려가던 어느날 그는 강가의 오붓한 곳에 있는 한 농가에 들리여 주인에게 이 지방의 이름이 무엇인가고 물었다. 주인은 평양이라고 하였다. 신하는 기쁜 마음을 금할수 없어 주인에게 물 한그릇을 청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방안에서 빈 술잔을 가지고 나와 집앞에 있는 샘터의 맑은 물을 떠주었다. 그런데 관리가 잔으로 마시고보니 물이 아니라 술이였다. 그 다음날 평양의 지세를 돌아보고난 신하는 곧 돌아가 왕에게 평양을 돌아보고 온데 대하여 아뢰였다. 왕은 신하가 내미는 술잔으로 샘물을 받아 마셔보고 경탄하며 기뻐하였다.

《평양이야말로 수도로 될만 한 곳이로다. 사람의 몸에 흥을 돋구어주고 원기를 왕성하게 해주는 그런 술이 거기에서 솟는다는것은 바로 평양이 나라를 흥하게 할 곳임을 보여주는것이 아니겠느냐!》

이리하여 수도를 곧 평양으로 옮기게 되였다.

평양에 수도를 옮긴 후 로인이 술잔을 주었던 마을을 《흥배》(흥을 돋구어주는 술잔이라는 뜻)라고 불렀다. 그것이 그후 오랜 세월 전해오는 과정에 《흥부》로 전의되였다고 한다.

화승대

불심지에 달린 불이 화약을 터치면서 총알이 나가게 만든 옛날식의 총을 이르는 말이다.

《화승대》라는 말에서 《화》는 불이라는 뜻이고 《승》이란 노끈이라는 뜻이며 《대》란 가늘고 긴 물건을 이르는

고유조선말이다.

결국 《화승대》란 노끈에 붙은 불로 화약을 터쳐서 쏘는 총이라는 뜻이다. 흔히 우리가 총을 쏘는것을 《불질한다》고도 하는데 이 말도 지난날에 화승대로 총을 쏠 때 심지에 불을 달아가지고 사격하였다는데서부터 쓰이게 된 말이다.

화전놀이

화창한 봄날 경치좋은 곳을 찾아 화전을 부쳐먹으면서 노는 들놀이나 산놀이를 말한다.

《화전》이란 말에서 《화》는 꽃이란 뜻이고 《전》은 달인다거나 볶는다는 뜻이다. 화전은 찹쌀가루에 진달래꽃(또는 개나리나 국화잎)을 섞어 반죽해서 기름에 지진 둥글넙적한 지짐을 말한다.

《꽃전》이라고도 한다.

황소

큰 수소를 말한다.

《황소》의 옛날말은 《한쇼》이다.

황소는 누런 소를 말하는것이 아니라 큰소를 말하는것으로서 여기서 《황》은 크다는 뜻을 나타내는 앞붙이이다.

15세기 《룡비어천가》에서 쓰인 《한쇼》는 후에 《한소》, 다시 《황소》로 변화되였다. 《한》도 역시 크다는 뜻이다.

황아장사

잡화를 등에 지고 팔러 다니는 사람을 말한다.

《황아장사》는 낡은 사회에서 쓰이던 《황화장수》란 말이 변한것이다.

《황화》라는 말에서 《황》은 거칠다는 뜻이고 《화》는 재물, 물건이라는 뜻으로서 거친 물건 즉 담배쌈지, 바늘, 실, 끈 같은 잡화를 이르는 말이다. 《황화》라는 말은 점차 《황아》로 변화되였다.

《장사》는 물건을 팔거나 사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이 두 말은 흔히 같은 뜻으로 쓰인다. 즉 장사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ㄲ—ㅇ

까마귀

까마귀과에 속하는 사철새이다.

《까마귀》의 어원은 《가막》이다. 《가막》이란 말은 《감(다)+악》으로 이루어진것이다.

여기서의 《감다》는 《검다》와 같은 뜻의 말이다. 《악》은 명사를 만드는 뒤붙이이다. 《가막》에 다시 뒤붙이 《외》가 붙음으로써 《훈몽자회》에서는 《까마귀》를 《가마괴》라고 새기고있다.

이 단어는 《가막→가마괴→가마귀→까마귀》로 변화되였다.

따라서 《까마귀》는 몸이 온통 까맣다고 하여 불리우는 이름이다.

꽃샘

봄날의 꽃필무렵에 변덕스럽게 추워지는 현상을 대상화하여 이르는 말이다.

《꽃샘》에서 《샘》은 남이 자기보다 잘되는것을 싫어한다는 뜻을 가진 《시암》이 줄어든 말이다.

결국 《꽃샘》이란 꽃을 시암(샘)한다는 뜻으로서 봄철 꽃이 필무렵에 갑자기 추워지는 자연현상을 말한다.

예로부터 음력 2월과 3월사이에 찬바람이 불고 찬비가 내려 겨울날씨와 같이 차지는것을 꽃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찬바람, 찬비가 꽃을 시암(샘)한다는데서부터 생긴 말이다.

꿩

새의 한가지를 말한다

꿩은 날 때 활개치며 큰소리로 《꿔ㅡ꿔꿩》 하고 운다. 그래서 그 울음소리를 본따 《꿩》이라고 한다. 꿩은 암수컷의 크기와 몸색갈이 몹시 다르다.

수컷은 변두가 높고 귀깃이 뿔처럼 뻗어있으며 흰 목도리무늬를 두르고 붉은 가슴이 구리빛으로 번쩍이기때문에 장해보인다고 하여 장끼라고 하며 암컷은 몸통이 작고 까칠하게 보인다고 하여 까투리라고 한다.

따발총

똬리모양의 둥글납작한 탄창을 끼운 기관단총을 달리 이르는 말이다.

《따발》은 물건을 일 때 머리우에 받치는 물건인 《똬리》에 대한 사투리였다. 기관단총에 똬리와 같은 탄창이 달렸다 하여 이 총을 《따바리》라고 하였는데 오늘 《따발총》(따바리란 말이 《따발》로 말소리가 줄어져 《총》과 어울려 이루어진 합친말이다.)이란 말은 통속적으로 쓰는 문화어로 되였다.

기관단총을 통속적으로 《뚜르래기》라고도 한다. 그것은 이 총이 련발로 발사될 때 뚜룩뚜룩 소리를 낸다는데로부터 붙인 이름이다.

땅거미

저녁해가 진 뒤에 차츰 어두워지는것을 이르는 말이다.

《땅거미》는 《땅검(다)+이》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명사는 끝소리마디가 《이》로 끝나는것이 적지 않다. 동사나 형용사를 명사로 만들 때에는 뒤붙이 《이》를 많이 붙인다.

《땅거미》는 땅이 검게 되는것을 말하는 명사로서 해진 뒤에 어둑어둑해지는것을 의미한다.

《땅거미지다》란 말은 《땅거미가 스며들다.》, 《땅거미가 깃들다.》라는 뜻이다.

떡

낟알을 가루내여 반죽하여 만들거나 찰떡과 같이 밥을 지어 떡메로 쳐서 만드는 우리 나라의 고유한 민족음식을 말한다.

《떡》이란 말의 어원과 관련하여 두가지 설이 전해지고있다.

하나는 《떡》이란 말이 동사 《찌다》가 명사화되여 이루어진것이라는 설이다. 옛날에는 《찌다》를 《띠다》라고 하였다.

《떡》은 《띠다》가 명사화되여 《띠기→뗴기→떠기→떡》으로 변화된것으로서 찐것이란 뜻이다.

사투리들에서 떡을 《뗴기》라고 하는것은 이 단어의 변화과정을 보여준다.

다른 하나의 설은 떡의 질적특성과 결부시켜 해석하는것이다.

어떤 떡이나 다 풀기가 있어 떡떡 붙는다는데로부터 《떡》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떡떡 붙는것》이란 뜻이라고 한다.

뚝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흙이나 돌, 세멘트 같은것으로 높이 쌓아올린 둔덕을 말한다.

《훈몽자회》에서는 이를 《두듥》이라고 하였는데 바로 여기에서 《뚝》이 나온것이다.

《두듥》은 《밭두둑》에서처럼 《두둑》으로 되기도 하고 《뚝》으로 되기도 하였다.

《두듥》은 원래 언덕과 같은 의미였는데 오늘 《두둑》은 논밭가운데서 골을 타 두둑하게 된 곳을 의미하고 《뚝》은 물이 넘어나지 않도록 높이 쌓아올린 곳을 의미한다.

뜸부기

여름새의 한가지이다.

물닭과 비슷하나 그보다는 좀 크고 이마에 뾰족하고 빨간 볏이 있다.

이 새는 이른아침부터 저녁 어두워질 때까지 《뜸북－뜸북－》 하고 특이한 소리를 내며 운다. 《뜸부기》는 이 새의 울음소리 《뜸북》에 뒤붙이 《이》가 붙어 이루어진 이름이다.

싸락눈

싸래기같은 눈이라는 말이다.

《싸락눈》(쌀악눈)에서의 《악》은 《아기》가 줄어들어 뒤붙이가 된것으로서 작다는 뜻을 나타낸다.

따라서 《쌀악》은 부스러진 쌀알같이 작은것이란 뜻이다.

《싸락눈》의 본래 말은 《쌀눈》이였는데 력사적으로 내려오면서 변화되여 이루어진 말이다. 이 단어는 《쌀눈→쌀아기눈→쌀악눈→싸락눈》으로 변하였다.

썰물

바다물이 밀려나가서 낮아지는 현상 또는 그 물을 말한다.

《썰물》은 밀려들어왔던 물(밀물)이 줄어나간다는 뜻을 나타내는 《썰》과 《물》이 어울린 합친말이다. 썰물이란 밀물의 반대말로서 바다물이 줄어나가는 현상을 말한다.

《썰물》을 《날물》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나가는 물이란 뜻이다.

쏘가리

민물고기의 하나이다.

지느러미에는 가시가 돋아있는데 성질이 사나와서 다른 물고기들을 쏘아주기를 잘한다.

《쏘가리》라는 이름도 《쏜다》는 말에서 유래되였는데 《쏘아주는 고기》라는 뜻이다.

아낙네

집안에 있는 녀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안악네》가 변한 단어이다. 여기서 《안》은 집안을 의미하고 《악》은 뒤붙이이며 《네》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오늘 《아낙네》는 남의 집 부녀자를 통속적으로 이르는 말로 쓰인다.

아성

성곽안의 가장 주되는 본거지를 이르는 말이다.

《아성》이란 말에서 《아》는 어금이라는 뜻이고 《성》은 옛날에 적을 막기 위하여 도시나 산의 둘레에 흙 또는 돌로 높이 쌓아올린 담 혹은 구조물을 말한다.

사람이 넘어지거나 얼굴에 타격을 받으면 앞이발이 부러지거나 흔들리는 일은 있어도 어금이가 상하는 일은 거의 없다.

여기에 비유하여 이몸처럼 둘러있는 성곽안에서도 가장 견고한 본거지를 《어금이와 같은 성》이라는 의미에서 《아성》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그 《아성》이 뜻폭과 쓰임이 넓어지면서 적의 가장 중요한 근거지라는 의미로도 쓰인다.

아지미

아주머니를 가리켜 친근하게 허물없이 특히 어린이들이 부르는 말이다.

원래는 동생어미란 뜻으로서 존경을 나타내지 않는 말로 쓰이였다. 그러나 지금은 작은어머니를 이르기도 하고 자기

어머니보다 나이어린 시집가지 않은 젊은 녀자를 친근하게 이르는 말로도 쓰인다.

악마구리

개구리의 한 종류로서 《참개구리》를 달리 이르는 말이다.

《악마구리》의 《마구리》는 개구리의 옛날말인 《머구리》가 변한것이다. 《두시언해》와 《훈몽자회》에서 《머구리》라 하던것을 1610년에 나온 《동의보감》에서는 《개구리》라 하였다.

옛날에는 머굴머굴한다 하여 《머구리》라고 했는데 그후 개굴개굴한다고 하여 《개구리》로 되였다.

《악마구리》의 《악》은 입이란 뜻이다.

결국 《악마구리》란 《입개구리》(입이 큰 개구리)란 뜻이다.

압록강

백두산의 천지에서 시작하여 조선서해로 흘러드는 우리 나라에서 가장 긴 강이다.

예로부터 2천리장강이라고 하였다.

압록강은 고구려시기에 《아리나리》라고 불리웠다. 여기서 《아리》는 길거나 크다는 뜻이고 《나리》는 강이나 나루라는 뜻이다. 즉 이 강의 이름은 《큰강》 또는 《나루가 있는 큰강》이란 뜻에서 붙인 이름이다.

그후 강이름을 《압록강》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물이 맑고 푸르게 보이는 강이라는 뜻이다. 고구려건국설화에 《청

하》라는 강이름이 나오는데 그것은 압록강의 다른 이름으로서 역시 푸른 강이란 뜻이다.

압록강으로는 가림천, 허천강, 장자강, 자성강, 장진강, 위원강, 납교천 등 수많은 지류들이 흘러들고있다.

압록강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의 영광찬란한 력사와 투쟁업적이 깃들어있고 주석님의 일가분들의 투쟁의 자욱이 력력히 새겨져있는 강이다.

야담

민간에서 돌아가는 옛날 력사이야기를 기본줄거리로 하는 산문의 한 형태를 말한다.

《야담》이란 말에서 《야》는 들판이란 뜻인데 낡은 사회에서 정권을 잡지 못했거나 정사구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버림을 받아 들판으로 배척당했다는 의미로 쓰이는 말이며 《담》은 이야기라는 뜻이다.

야삼경

야밤삼경을 이르는 말이다.

지난날에는 하루밤을 5경으로 나누었다.

초경; 20시－22시, 2경; 22시－24시, 3경; 0시－2시, 4경; 2시－4시, 5경; 4시－6시

지난날에는 하루밤에 다섯회의 야번(밤에 서는 근무)이 교체되였는데 이로부터 《오경》 또는 《오야》라는 말이 생겼다. 오경이란 결국 야번이 하루밤에 다섯번 바뀌는데로부

터 불리운 이름이다.

《야삼경》이란 밤의 3경이니 그것은 0시로부터 2시를 이르는 말로서 《가장 깊은 한밤중》이란 뜻이다.

약과

우리 나라의 고유한 민족과자의 한가지를 말한다.

약과는 예로부터 민족단음식가운데서도 으뜸으로 일러주던것이다. 약이라고 일러주던 꿀을 넣어 만들었기때문에 약이 되는 과자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름지었다고 한다.

《오주연문장전산고》와 《지봉류설》에서는 약과가 약으로 되는 리유에 대하여 《그 재료인 밀은 춘하추동을 거쳐서 익기때문에 사시의 기운을 얻어 정이 되고 꿀은 백약의 으뜸이고 기름은 살충하고 해독하기때문이다.》라고 설명하였다.

한 력사기록에는 약과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모든 재료는 급히 섞되 오래 주무르면 진이 나서 연하지 못하니 홍두깨로 사뿐히 밀어라.》고 하였다.

약과는 처음에는 《유밀과》로 불리우면서 배, 감 등 과일모양으로 만들어져 제사상에 놓이였는데 점차 둥글납작한 모양으로 변하였다. 그것을 상에 쌓아올리기 불편하여 네모난 모양으로 만들다가 다시 약과판에 박아낸 둥근 모양으로 변하였다고 한다. 약과는 예로부터 정월명절, 잔치, 제사때 많이 쓰이였다.

약산동대

평안북도 녕변군 녕변읍에 있는 명승지이다.

예로부터 관서팔경의 하나로 불리웠다.

《약산》이라는 말은 약초가 많은데다가 약수까지 나는 산이라고 하여 불리워진 이름이고 《동대》라는 말은 녕변이 무주, 연주, 위주로 나누어져있던 옛날 무주 즉 구룡강 건너편에서 볼 때 약산이 동쪽에 있는 높은 대로 보인다는데서 불리워진 이름이다.

약산동대가 오늘의 녕변에서는 사실상 서쪽에 위치하고있지만 예전이름을 그대로 부르고있다. 약산동대를 산이름으로만 부를 때는 보통 약산이라고 한다.

양각도

평양을 감돌아흐르는 대동강복판에 있는 섬이다.

이 섬을 《양각도》라고 하는것은 섬의 생김새가 양의 뿔처럼 두가락으로 갈라졌기때문이다.

어리광대

막간에 우스운 말이나 행동을 하여 사람들을 웃기는것을 전문으로 하는 배우를 이르는 말이다.

15세기 문헌에서는 미친다는 의미를 《어리운》, 《어리이》란 말로 표현했는데 이 말들은 《어럽다》의 규정형과 상황형들이다. 《어럽다》는 본래 정신이 없다는 뜻이다.

《어리광대》란 말에서 《어리》는 여기서 나온 말인데 정신이 없거나 미쳤다는 의미이고 《광대》란 지난날에 잡가나 판소리를 부르며 줄을 타고 땅재주를 하는것을 업으로 하던 사람을 말한다.

결국 지난 시기의 《어리광대》란 미친 광대란 뜻이지만 지금은 교예의 막간극에 출연하여 사람들을 웃기는 배우를 이른다.

어사또

봉건사회때 지방에 파견된 관리를 높여 이르던 말이다.

《어사또》에서 《어》는 임금을 말하며 《사또》는 관리를 의미하던 《사도》가 변한것으로서 임금이 파견한 관리라는 뜻을 가진다.

《어사》는 《암행어사》의 준말로도 된다.

언문금란

조선글의 사용을 금지시키는 란이라는 뜻으로서 조선봉건왕조시기 폭군의 하나였던 연산군이 1504년에 조선글로 된 모든 책들을 불살라버리고 조선글을 쓰지도 배우지도 못하게 한 사건을 말한다.

《언문》이란 훈민정음 즉 조선글을 말하고 《금란》은 금지시키는 란이라는 뜻이다.

연산군은 자기의 가지가지의 죄행을 폭로한 편지가 조선글로 씌여졌다고 하여 이러한 반인민적인 폭행을 감행한것이다.

얼음

물을 비롯한 액체가 얼어서 굳어진것을 말한다.

《얼음》을 15세기에는 《어름》으로 표기하였다.

《어름》은 어우른다는 뜻의 옛날말인 《어울다》에 그 어원을 두고있다.

여보

부부사이에 또는 남자들사이에 서로 상대편을 부르는 말이다.

《여보》는 《여기 보오.》가 줄어든 말이다.

오늘은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자들사이에서도 상대편을 허물없이 부르는 말로 쓰인다.

《여보게》는 《여기 보게.》가 줄어든 말이고 《여보시오》는 《여기 보시오.》가 줄어든것이다.

여우

개와 비슷하나 몸이 가늘고 꼬리가 긴 산짐승의 한가지이다.

여우라는 말은 《여스—여수—여우》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말이다.

《여스》는 《여스다》(엿다)와 어원이 같은 말로서 《엿보다》의 뜻을 가진 말뿌리였다. 그러므로 여우의 시초형태 《여스》는 《엿보는것》이라는 뜻을 가진다. 15～16세기에만 하여도 지금의 《엿보다》라는 말을 《여스다》(엿다)라고 하였다.

옛 기록에 쓰인 《엿우미》는 《여스—음—이》(엿—음—이)가 변화된 형태이다.

현대말에서는 《엿다》(여스다)에 동사 《보다》가 합쳐져

《엿보다》의 형태로만 쓰인다.

여우란 말을 《엿보다》, 《엿어보다》라는 말과 관련시켜 이름지었다는것은 우리 선조들이 여우행동의 특징을 잘 반영했음을 말해준다.

사실 여우는 언제 봐야 이쪽저쪽으로 고개를 돌리면서 옆에 무엇이 있는가를 엿보는 습성이 있다.

여름

한해가운데서 봄 다음에 오는 더운 철을 말한다.

본래 열매가 열리는것이란 뜻으로서 《열매》, 《열리다》, 《여물다》 등과 한갈래의 말이였다.

옛날에는 《열매》를 《여름》이라 하고 《농사짓는 일》을 《여름지이》라고 하였다.

이로부터 열매가 열리는 철, 곧 봄 다음에 여름지이하는 철을 《여름》이라고 하였다.

연공

여러가지 건설공사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기능공을 말한다.

《연공》이라는 말에서 《연》은 소리개라는 뜻이고 《공》은 어떤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임을 나타내는 뒤붙이이다.

소리개는 사나운 새의 한가지로서 맑게 개인 하늘에 높이 떠서 맴돌기를 잘한다.

《연공》이란 소리개의 이런 특성에 비유하여 생긴 단어이다.

연백벌

연안과 배천에 있는 벌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연안은 옛날 소금생산의 력사가 오랜 곳이다. 그러므로 연안군의 옛 이름은 《고염성》, 《염주》 등 소금을 의미하는 《염》자로써 불렀었다. 《연안》은 원래 《염안》이 변한것이고 《배천》은 《백천》이 변한것이다.

연풍호

평안남도 안주시와 개천시사이에 있는 호수이다.

이 호수는 1947년에 건설을 시작하였다가 미제가 1950년에 일으킨 전쟁으로 일시 중단하였던것을 전후에 다시 시작하여 1956년에 완공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1956년 5월 30일 완공된 평남관개시설들을 돌아보시기 위하여 현지에 나오시였다. 그때 일군들은 **김일성**주석님께 저수지의 이름을 지어주실것을 말씀드렸다. 주석님께서는 저수지이름이야 저수지를 건설한 동무들이 지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시며 좋은 이름을 함께 지어보자고 하시였다.

주석님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였다가 우리 나라의 관개에서 《맏아들》이라고 할수 있는 평남관개가 완공된 결과 이제는 열두삼천리벌에 해마다 풍년이 들게 되였으니 이 저수지를 《연풍호》라 부르자고 하시였다.

《연풍호》란 말에서 《연》은 《끊지 않고 길게 잇달린다.》는 뜻이고 《풍》은 《풍년》이란 뜻이다.

결국 《연풍호》란 해마다 풍년이 들게 하는 호수라는 뜻이다.

열두삼천리벌

평안남도의 서북쪽에 있는 벌이다.

안주벌이라고도 한다.

이 벌은 문덕군, 청남구, 숙천군의 대부분 지역과 평원군과 안주시의 일부 지역을 포괄한다.

《열두삼천리벌》이란 이름은 삼천리와 같은것이 열두개나 될만큼 넓은 벌이라는 뜻에서 불리워진 이름이다.

실지는 북남길이 약 35㎞, 동서너비 20㎞이다.

이 벌의 유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지고있다.

고구려때 평양에 사슴발을 가진 록족부인이 살았다. 록족부인은 끌끌한 아들 열두형제를 두었는데 이들모두가 신통히도 어머니를 닮아 사슴발이였다. 아들들이 커서 모두 이름난 장수가 되였는데 그들 열두형제는 이 벌에서 군사를 각각 3 000명씩 거느리고 진을 치고있으면서 농사를 지어 군량을 충당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설이고 실지는 벌이 매우 넓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본다.

영춘화

봄을 맞아 다른 꽃들보다 일찍 피는 개나리꽃나무를 이르는 말이다.

《영춘화》란 개나리꽃나무를 달리 이르는 말이다.

《영춘화》에서 《영춘》이란 봄을 맞는다는 뜻이고 《화》는 꽃이란 뜻이다.

결국 《영춘화》란 여기서 유래되였다.

《개나리꽃나무》를 간단히 《개나리》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 나리과에 속하는 《개나리》와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나리꽃나무》와 《개나리》는 엄연히 서로 다른 것이다.

오가산

자강도 화평군과 량강도 김형직군의 경계에 솟아있는 산으로서 해발높이는 1 227m이다.

해발고 1 000m이상 되는 5개의 아름다운 산봉우리들이 태고연한 밀림속에 자리잡고있다고 하여 《오가산》이라고 불리운다.

산의 남쪽에는 **김일성**주석님께서 열두살 어리신 나이에 배움의 천리길을 걸으실 때와 열네살 나시던 해에 원대한 뜻을 품으시고 광복의 천리길을 걸으실 때 친히 넘으신 유서깊은 오가산령(1 119m)이 있다.

오가산은 우리 나라 자연보호구의 하나이다.

그가운데는 나무의 나이가 300～400년 된것이 많으며 1 000년이상 되는 나무도 적지 않다. 그리하여 여기에는 잣나무, 신갈나무 등 천연기념물로 설정된 나무들이 많다.

오동지달

음력으로 5월과 동지달을 함께 이르는 말이다.

5월과 동지달을 함께 붙여 《오동지달》이라고 하는것은 동지달에 눈이 많이 내리면 다음해 5월에 비가 적절히 내려 곡식이 잘 자라며 동지달에 눈이 적게 내리면 다음해 5월

에 비가 적게 내려 농사가 잘 안된다는 오랜 생활관습에서 유래되였다.

음력 11월 상순에 동지날이 오면 《애동지》라고 하고 11월 상순이 지나서 오면 《로동지》라고 하였는데 애동지가 드는 해는 겨울이 몹시 춥고 로동지가 드는 해는 비교적 푸근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오동지섣달이라고 할 때의 《오동지》는 동지달을 강조하는 뜻으로 쓰인것이다.

《오동지섣달》은 년중 제일 추운 음력 11월과 12월이라는 의미에서 한개의 단어처럼 쓰이는데 《동지섣달》이라고도 한다.

오라버니

오빠를 정중히 이르는 말이다.

《오라버니》의 어원은 《오랍》이다. 《오랍》은 지금도 《오랍동생》, 《오랍누이》라는 말로 쓰이고있다. 《오랍》은 본래 《올압》이라는 말에서 온것인데 《올》은 《일찍》 또는 《이르게 되는》이라는 뜻을 가진 앞붙이이다. 《올》은 《아비》, 《아버니》, 《아버님》이라는 말과 어울려 《오라비》, 《오라버니》, 《오라버님》이라는 단어를 이루게 되였다.

이 단어들은 다 《올》이라는 앞붙이를 가지고있기때문에 자기보다 일찌기 또는 먼저라는 뜻을 가지고있다.

오막살이

허술하고 초라하게 지은 작은 집 또는 그런 집에서 하는 살림살이를 말한다.

《오막살이》란 말은 《움막살이》란 말에서 《움》이 《옴》으로 변한것이다. 《움》은 땅을 파서 우를 덮어 비바람이나 추위를 막게 만든 곳을 말하며 《움막》은 움으로 지은 막을 말한다. 《움막살이》란 말은 모음조화현상에 의하여 《옴막살이》로 되였다가 다시 《오막살이》로 변하면서 그 뜻도 달라지게 되였다.

오복탕

영양가가 높은 다섯가지의 음식감을 넣고 끓인 국을 말한다.

《오복탕》이란 말에서 《오》는 다섯이란 뜻으로서 여기에는 도라지, 닭고기, 돼지고기, 해삼, 전복이 속한다. 《복》이란 말그대로 복이란 뜻이고 《탕》은 국이란 뜻이다.

이것을 《오복탕》이라고 하는것은 이 다섯가지의 음식감을 한데 넣고 끓인 국을 먹으면 건강회복, 피로회복, 가래삭이기, 기침멈추기, 피줄넓히기, 피순환잘되기, 열물내기, 균의 번식억제, 독풀이 등에 특효가 있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살수 있게 해주기때문이다.

오징어

바다에서 사는 연체동물의 한가지이다.

낙지와 비슷하나 발이 10개이다. 오징어가 물에 가만히 떠있으면 그것이 죽은줄 알고 까마귀가 달려든다. 그 순간 오징어는 까마귀를 발로 감아서 잡아먹군 한다.

이처럼 까마귀를 해치는 도적이라는 뜻에서 까마귀를 의

미하는 《오》자와 도적을 의미하는 《적》자에 물고기를 의미하는 《어》자로써 《오적어》이라고 하던것이 후에 점차 《오징어》로 발음을 바꾸게 되였다.

옹노

새나 짐승을 옭아서 잡는 올가미를 말한다.

이 말은 《옭다》의 말뿌리 《옭》과 노끈과 같은 뜻의 단어인 《노》가 합쳐져 《옭노》로 된것인데 지금은 발음되는대로 《옹노》라고 적고있다.

요람

애기들을 잠재우는 자장그네를 달리 이르는 말이다.

《요람》이란 말에서 《요》는 흔든다는 뜻이고 《람》은 대바구니라는 뜻이다.

먼 옛날에는 아낙네들이 밭일을 하거나 집안일을 할 때 대바구니에 애기를 눕혀놓고 거기에 끈을 달아 나무가지 같은데 걸어놓고 흔들어주어 잠을 재우군 하였다.

《요람》이란 말은 여기에서 유래된것인데 《흔드는 대바구니》 또는 《대바구니를 흔든다.》는 뜻이다.

《요람》이란 말은 점차 그 쓰임의 폭이 넓어지면서 지금은 어떤 력사적인 일이 처음으로 시작되고 자라난 곳이나 그 시원을 이르는 말로도 쓰인다.

우두머리

일정한 패나 분야에서 으뜸가는 사람 또는 집단의 맨 웃

자리에 있는자를 이르거나 우듬지를 달리 이르는 말이다.

《우두머리》는 《웃》과 《머리》사이에 두 단어를 이어주는 모음 《ㅜ》가 덧끼운 합친말이다.

오늘날에 와서 《우두머리》라는 말은 주로 부정적인 뜻으로 반동적인 집단 또는 단체의 괴수를 이르는 말로 되였다.

우뢰

벼락이나 번개가 칠 때 울리는 소리를 말한다.

《우뢰》는 고유조선말이다.

《우뢰》의 옛날말은 《울에》였다. 15~16세기에 쓰인 이 말은 동사 《울다》의 말뿌리 《울》에 명사를 만드는 뒤붙이 《에》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이다. 《울에》는 운다는 뜻이다.

《울에》는 그후 《우레→우래→우뢰》로 변화되였다. 17세기말에 와서 문헌상에 《우뢰》라는 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우뢰를 《천둥》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하늘이 움직인다는 뜻이다.

윤년

양력에서 1년이 366일로 되는 해를 이르기도 하고 음력에서 윤달이 있는 해를 이르기도 하는 말이다.

윤년이 있는 해는 1년이 365일이 아니라 366일이고 윤달이 있는 해는 2월이 28일간이 아니라 29일간이다.

《윤년》이란 불어난 해란 뜻이고 《윤달》이란 불어난 달

이란 뜻이다.

지구가 자기 축을 중심으로 한바퀴 도는 시간을 하루라고 하며 해의 둘레를 한바퀴 도는 기간을 1년이라고 한다. 그런데 지구가 해의 둘레를 한바퀴 돌 때 지구는 자기 축을 365번 돌고 4분의 1을 더 돈다. 말을 바꾸어하면 지구가 해의 둘레를 한바퀴 돌 때 365일 5시 45분 46초가 걸린다. 그래서 한해를 365일로 정했다. 이렇게 정하다보니 한해에 6시간씩 남게 된다. 4년이면 24시간이 남는다. 그리하여 4년에 한번씩 윤년이란것을 정했고 2월을 하루 불구어 29일간으로 만들었다.

을밀대

평양의 명산 모란봉에 있는 루정을 말한다.

6세기 중엽에 고구려 평양성 내성의 북장대로 세워졌다.

고구려때는 《밀덕》이라고 하였다. 《동국여지승람》에서는 고려시기에 을밀대를 《상밀덕》이라고 하였다.

《을밀대》의 《을》은 《웃》이 변한것으로서 꼭대기를 의미하며 《밀》은 《미르》가 줄어든것으로서 룡을 말한다. 즉 《을밀대》는 산꼭대기가 룡과 같은 대라는 뜻이다.

《을밀대》와 관련하여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을밀장군이 국방의 중요임무를 맡고 이곳을 지켜 싸워온 곳이라 하여 그렇게 불러왔다고 하고 옛이야기에 나오는 《을밀선인》들이 자주 하늘에서 내려와 놀던 곳이라 하여 불렀다고도 한다.

이것들은 다 말소리가 같은데로부터 나온 민간어원들이다.

을밀대를 가리켜 높은 축대우에 덩실하게 솟아 사방이 허

공으로 탁 트인 곳에 자리잡고있다 하여 일명 《사허정》이라고도 불렀다.

을씨년스럽다

쓸쓸하고 썰렁하거나 으쓸하고 소름이 끼칠 정도로 싫거나 지긋지긋하며 살림이 가난하여 스산함을 이르는 말이다.

《을씨년스럽다》는 명사 《을씨년》에 형용사만들기뒤붙이 《스럽다》가 합쳐져 이루어진 형용사이다. 우리 말의 형용사만들기뒤붙이 《스럽다》는 《같다》, 《비슷하다》, 《답다》의 뜻을 가진다.

《을씨년스럽다》의 《을씨년》은 《을사년》에서 온 말이다.

을사년은 일제가 조선봉건왕조의 통치배들을 위협공갈하여 《을사5조약》을 강압적으로 날조한 해로서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치욕스럽고 저주로운 해였다. 여기로부터 마음이나 기분, 날씨 같은것이 어수선하고 흐린 기운을 《을씨년스럽다》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을사년스럽다》는 말이 변한것이다.

음치

소리에 대한 음악적인 감각이나 지각이 매우 무디여 음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음치》라는 말에서 《음》은 소리를 의미하고 《치》는 어리석다는 의미이다.

결국 《음치》란 정확한 음조에 맞게 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을 야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음양5행설

사물현상의 발생과 운동변화의 시원을 서로 상반되는 《음》과 《양》의 호상작용과 물질적인 다섯가지의 요소에서 찾는 철학리론이다.

음양이란 만물이 발생하는 두 기운을 말하는데 《음》은 소극성을 띤것 즉 고요함, 어두움, 추움, 암컷, 땅, 달 같은것을 가리키고 《양》은 적극성을 띤것 즉 움직임, 밝음, 더움, 수컷, 하늘, 해 등을 가리킨다.

5행이란 세계의 만물을 이룬다고 보는 다섯가지의 물질적요소를 말하는데 그것은 곧 금(쇠), 목(나무), 수(물), 화(불), 토(흙)를 의미한다.

음양5행설은 처음에 소박한 유물론과 자연발생적인 변증법적사상으로 나왔으나 봉건사회에 들어오면서 봉건통치배들이 여기에 있는 유물론적이며 변증법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숙명론적인 요소들을 종교신비설과 결부시키는 방향으로 개작하였다.

이팔월

기상학적으로 볼 때 2월과 8월은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것을 이르는 말이다.

이 말은 지난날에 2월에 눈비가 많이 오면 8월에도 비가 많이 오고 2월에 눈비가 적게 내리면 8월에도 비가 적게 온다고 한데서 유래되였다.

이깔나무

북부의 높은산지대에 자라는 잎지는 키나무의 한가지이다.

《이깔나무》의 《이깔》은 본래 《잎갈》로서 두개의 형태부였으나 점차 본래의 형태부와 인연을 끊고 《이깔》이라는 말뿌리로 되였다. 《갈》은 《고깔》과 같은 말로서 뾰족하다는 뜻이다.

결국 《이깔》(잎갈)이라는 말은 잎이 고깔처럼 뾰족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깔나무는 잎이 뾰족한 나무를 이르는 말로 된다.

인삼

깊은 산에 절로 나거나 밭에 심는 여러해살이약초의 한가지이다.

인삼은 조선의 특산약용식물로서 보약가운데서도 제일 효과가 높아 많이 쓰이는 중요한 보약식물이다.

《인삼》이란 말은 그 뿌리가 사람모양을 한데서 지어진 이름이다.

산에서 스스로 자라는 삼은 《산삼》이라고 하며 재배하는 삼은 《양삼》이라고 한다.

우리 나라 개성지방에서는 오랜 옛날부터 인삼을 재배하였는데 이것을 《개성고려인삼》이라고 부른다. 인삼은 그 가공방법에 따라 여러가지로 불리워진다. 말리지 않은 인삼은 《수삼》이라고 하고 해빛에 말리운것은 흰색이 난다고 하여 《백삼》이라고 한다. 일정한 가공법에 따라 처리가공한것은

붉은색이 난다고 하여 《홍삼》이라고 하고 수삼을 진한 사탕물에 졸인것은 《당삼》이라고 하며 잔뿌리를 해볕에 말린것은 《미삼》이라고 한다.

《인삼》이라는 말은 오래전부터 쓰이였다.

우리 나라는 예로부터 인삼산지로 알려졌기때문에 《인삼》이라는 말은 세계적으로 조선말이름그대로 쓰고있다.

인풍루

자강도 강계시 인풍동에 있는 루정으로서 1472년에 장자강이 굽이쳐 감도는 절벽우에 세워져있다.

전설에 의하면 인풍루에서 강건너 바라보이는 곳에 높이 솟은 산이 있었는데 그것을 독산이라고 하였다. 독산은 원래 자강도 위원땅에 있었는데 강계 남산의 아름다움에 끌려 하루밤사이에 달려오다가 장자강의 거센 흐름에 길이 막혀 강을 건느지 못한채 지금 있는 자리에 주저앉았다고 한다.

아름다운 경치에 멀리 위원에 있던 독산이 이끌려올 정도로 풍경이 황홀한 남산에 세워진 루각이라고 하여 《인풍루》라고 하였다.

인호대

묘향산 상원동에 있는 명소를 말한다.

《인호대》라는 이름의 유래는 다음과 같다.

전설에 의하면 옛날에 어떤 사람이 눈내리는 날에 묘향산중에서 길을 찾지 못해 모대기다가 눈우에 난 범의 발자국을 발견하고 그 발자국을 따라갔는데 가보니 거기에 경치가

매우 좋은 전망대가 나졌다고 한다.

범의 안내로 찾았다는 전망대라는 의미에서 《인호대》라고 일러온다고 한다.

입술

입의 가장자리를 말한다.

《입술》이란 《입》과 《술》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말이다.

《술》이란 말은 《시울》에 어원을 둔 단어이다. 《시울》은 구멍의 가장자리를 의미한다. 그래서 옛날에는 《입술》이라고 하지 않고 《입시울》이라고 하였다. 옛날책들인 《훈민정음언해》, 《월인석보》, 《훈몽자회》에서 모두 그렇게 썼다.

그후 《시울》에서 모음 《ㅣ》가 빠지고 두 글자가 합쳐지면서 《술》로 되였다.

에구머니

놀라거나 몹시 감동되였을 때 쓰이는 감동사이다.

이 말은 갑자기 놀라거나 급작스런 느낌을 받았을 때 쓰는 감동사 《어이구》와 명사 《어머니》가 합쳐져 이루어졌다.

보통 사람들은 기쁘거나 슬프거나 놀랍거나 할 때 무의식중에 본능적으로 어머니부터 찾게 된다. 《에구머니》의 뜻은 본질에 있어서 심하게 흥분되였을 때 쓰는 감동사로서 이로부터 《에이구, 어머니!》라고 부르게 되는것이다.

외쏙도기

크기가 비둘기만 하고 색갈이 부엉이와 비슷한 새의 한가지를 말한다.

초저녁이나 이른새벽에 《쏙독—쏙독—》 하고 우는데 그 울음소리가 마치 칼도마우에 외(《오이》의 준말)를 올려놓고 쏙독—쏙독 써는듯 한 소리를 낸다고 하여 《외쏙도기》라고 한다.

본래는 《외쏙독이》였는데 후에 《외쏙도기》로 바뀌였다.

월천군

옛날에 내물이 깊은데서 사람을 업어 건늬여주는 일을 하던 사람을 이른 말이다.

《월천군》이란 말에서 《월》은 넘는다, 건느다는 뜻이고 《천》은 내물이란 뜻이며 《군》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뒤붙이이다.

옛날에는 내가에 지금과 같은 다리들이 없었다. 그래서 물이 깊은 곳이 나지면 바지를 벗거나 걷어올리든가 아니면 물이 얕은 곳을 찾아 멀리 에돌군 하였는데 그것은 매우 시끄럽고 불편하였다. 그래서 사람을 업어 건네주고 그대신 돈이나 물건을 받는 사람(월천군)들이 생겨나게 되였다.

성구 및 속담편

가는 날이 장날

예견치 않은 뜻밖의 계기에 마침 좋은 일이 생기게 되는 경우를 비겨 이르는 말이다.

실례로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마침 다들 여기에 와있었군!》을 들수 있다.

가타부타 말이 없다

좋다거나 싫다거나 아무런 의사도 나타내지 않는것을 비겨 이르는 말이다.

여기서 《가타부타》는 《옳다거니 그르다거니》라는 뜻을 가진다.

《가타부타》에서 《가타》는 옳다거나 무엇을 한다는 뜻이고 《부타》는 아니라는 뜻이다.

갈가마귀 병아리 채가듯

감쪽같이, 가뭇없이 빼앗아가는 모양을 비유하는 말이다.

갈가마귀는 먹이사냥을 할 때 땅에 닿을듯말듯이 낮추 떠서 날아가다가 순간에 먹이를 채가지고는 하늘로 날아오른다. 이런 방법으로 마을주변에서 병아리를 순간에 덮치는 속도가 신기할 정도로 빠른 갈가마귀의 습성으로부터 이 성구

가 나오게 되였다.

고양이와 개

사이가 나빠 만나기만 하면 다투기를 잘하는 사람들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다.

성구의 유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옛날에는 고양이와 개가 서로 사이가 좋았다고 한다.

먼 옛날 고양이와 개는 한 농부의 집안에서 함께 지내며 다정하게 살았다.

그런데 어느날 주인집에서 도깨비에게서 얻은 보물인 요술방울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겼다. 고양이와 개는 즉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애를 썼으나 헐한 일이 아니였다. 결국 고양이가 보물을 찾아내게 되였다.

그때부터 개는 주인을 볼낯이 없어 눈치를 보면서 바깥에서 먹고 자게 되였으며 고양이는 주인의 사랑을 받으며 방안에서 호강하게 되였다.

그믐밤에 홍두깨 내밀듯

전혀 예견하지 않았던 일을 갑자기 당하는 경우를 형상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홍두깨는 옷감을 감아서 다듬이질하는 도구로서 다른 말로 《다듬이방치》라고도 한다.

그믐밤은 달이 떠오르지 않아 지척도 분간하기 어렵다. 이처럼 캄캄한 밤에 아무 예고도 없이 갑자기 홍두깨를 내밀

면 상대방의 의도를 알수 없고 몹시 당황하며 놀라게 된다.

개밥의 도토리

다른 사람들과 한축이 되지 못하고 배척받으며 외톨로 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

개밥에 도토리를 넣어주면 개가 그걸 먹지 않고 마지막까지 밀어버린다.

이로부터 《개밥에 도토리》신세가 되였다고 하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면서 사람들 축에 어울리지 못하거나 어디에도 관여하지 못하는 사람의 처지를 비유하여 강조하는것으로 된다.

귀막고 방울 도둑질하기

얕은수로 어리석게 행동하는것을 야유하여 이르는 말이다.

성구의 유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고조선때의 일이다.

어느 한 마을 산자락에 앞집은 부자, 뒤집은 건달군이 살았다. 건달군은 늘 앞집을 건너다보며 너만 잘살란 법 없지, 좀 나누어먹어야지 하고 늘 기회를 노리는데 대문에 방울을 달아매놓아서 그것부터 훔쳐야 했다.

드디여 건달군은 결심하였다.

밤에 방울을 벗기려고 더듬더듬하다가 그는 방울을 잘못 다쳐서 그만에야 《뎅그렁—》 소리가 울렸다. 도둑은 두손으로 귀를 막으며 주저앉았다.

가슴이 덜컹 했는데 이상하게도 사위는 여전히 조용했다. 귀를 막았으니까.

웬걸, 내 귀 막았다고 네 귀도 못 들을가, 야차같은 머슴들이 벼락같이 달려들어 오라를 지웠다.

눈에 가시

그지없이 미워한다는 뜻의 성구이다.

먼 옛날부터 아래의 이야기에서 전해져온다.

흡혈귀로 소문난 황주목사 최가가 안변부사로 전직되자 백성들은 눈에 든 가시를 뽑은것 같다고 환호를 올렸다.

했더니 기어코 다시 황주목사로 온 최가는 《가시뽑이값》이라는 명목으로 호당 200냥씩 세금을 물려 온 고을이 또다시 눈물을 뿌렸다.

그 광경을 보고 최가는 《울어라 울어, 눈에 가시가 빠지나 보자!》 하고 이를 갈았다.

닭알장사 속구구

현실적가능성과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타산이 없이 그 어떤 성공과 발전을 허황하게 기대하는것을 비웃어 이르는 말이다.

이 성구는 다음의 민화에서 유래되였다.

옛날에 어떤 장사군이 닭알 한 꾸레미를 들고 얼음판우를 걸어가면서 이 닭알로 병아리를 깨우고 그 병아리를 엄지닭으로 키운 다음 거기에서 다시 닭알을 받아 병아리를 깨우는 식으로 한다면 한 10년후에는 큰돈을 벌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대단히 흐뭇해하였다. 그는 그 돈으로

큰 기와집을 살것인가 아니면 열마지기 옥답을 살것인가 하고 생각하다가 그만 얼음판우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바람에 닭알은 모두 깨여지고 기와집도 옥답도 순간에 산산쪼각이 나고말았다고 한다.

도감포수의 오줌짐작

무슨 일을 분명치 못하게 자기 짐작대로 처리하는 경우를 비웃어 이르는 말이다.

성구의 유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조선봉건왕조시기 도감포수(훈련도감에 소속된 군사)들은 병영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밖에서 오줌을 누는것이 습관적인 일과로 되고있었다.

그들이 오줌누는 시간과 병영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언제나 일치되여있었다.

훈련도감은 대체로 일정한 이 계기를 시간처럼 느끼면서 그에 따라 모든 일과나 지시를 조직하고 내렸다고 한다.

이로부터 《도감포수의 오줌짐작》이라는 말이 쓰이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두더지혼인

수준이 지내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고르다가 결국 다 실패하고 자기와 같거나 비슷한 대상끼리 혼인하게 되는것을 비겨 이르는 말이다.

이 성구는 다음의 민화에서 유래되였다.

한 어미두더지가 다 자란 새끼를 시집보내려고 지체가 높은 상대를 고르기로 작정하였다.

어미두더지는 처음에 생각하기를 하늘이 가장 높으렷다 하고 하늘에게 청혼을 했다.

하늘이 말하기를 내가 비록 모든것을 둘러싸고있으나 해와 달이 없으면 내 덕을 나타낼수 없으니 해와 달이 나보다 더 높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번에는 해와 달에 청혼을 하였다.

해와 달이 말하기를 우린 비록 만물을 비치나 다만 구름이 가리므로 빛을 뿌릴수 없다고 하였다.

그래 다음은 구름에 청혼을 했다.

구름이 말하기를 내가 비록 해와 달을 가리나 바람이 나를 내몰기때문에 바람이 나보다 낫다고 하였다.

어미두더지는 또다시 바람에 청혼을 하였다.

바람은 내가 비록 구름을 흐트러지게 하나 밭가운데 있는 돌부처만은 넘어뜨리지 못하니 돌부처가 나보다 낫다고 하였다.

어미두더지는 다시 돌부처에게 청혼하였다.

돌부처는 나는 바람은 두려워하지 않으나 단지 당신네 두더지가 내 발밑을 뚫으면 곧 넘어가니 차라리 당신네 두더지가 나보다 낫다고 하였다.

그러자 어미두더지는 《그러니 천하에 나보다 높은자가 없도다. 짧은 꼬리와 뾰족한 주둥이야말로 실로 내 위신을 높이는 귀물이로다.》 하고 드디여 같은 두더지와 혼인을 하게 되였다.

돼지우리에 주석자물쇠

격에 어울리지 않아 부자연스럽거나 꼴불견인 경우를 비겨 이르는 말이다.

《개발에 버선》, 《개대가리에 옥관자》라는 말과 같은 뜻이다.

지난날에는 지금과 같은 자물쇠는 없었고 구조가 간단한 자물쇠를 썼는데 그것을 주로 주석으로 만들었다. 주석은 동에 석을 섞어서 만든 동합금이다. 당시에는 주석을 형타에 부어낸 다음 줄칼이나 다른 기재를 가지고 연마하여 주로 붕어모양으로 자물쇠를 만들어 집안의 장농이나 나들문에 채웠는데 그것을 돼지우리에 걸면 어찌될가.

룡강올꾼이 장에 다녀오듯

목적도 없는 무의미한 행동을 하는 꼴을 비웃어 이르는 말이다.

성구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에서 유래되였다.

옛날 룡강읍에서 멀리 떨어진 한 시골집에서 있은 일이다. 하루는 그 집 아버지가 퇴마루에 걸터앉아 낫을 갈면서 《오늘은 장날이니 누구든 장에 갔다와야 할텐데…》 하고 혼자소리로 중얼거렸다.

이윽고 아침밥을 먹으려는데 웬 일인지 아들이 보이지 않았다.

《고양이손도 빌려야 할 때에 이녀석은 어디 가서 오지 않누?》

아버지는 나무라면서 식사를 마치자 식구들을 데리고 발

으로 나갔다.

저녁늦게야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그때에야 아들이 헐떡거리며 삽짝문으로 들어서는것이였다.

《이녀석, 한창 바쁜 때에 어딜 싸다니다가 이제야 오느냐?》

아버지가 꾸짖자 아들이 제편에서 볼이 부어 말하는것이였다.

《아니 아버지, 아침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누구든 룡강장에 갔다와야겠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그래서 아침, 점심도 다 건느고 고생스레 갔다왔는데 그렇게 나무라시면 섭섭하지 않나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한결 목소리를 누그러뜨렸다.

《원, 녀석두… 그럼 간다고 말이나 하고 갈게지 그렇게 훌쩍 갔다오는 법이 어디 있느냐. 그래, 장에 가서는 뭘 했느냐?》

《예?》

눈이 올롱해진 아들이 오히려 놀란다.

《난 그저 아버님이 누구든 장에 갔다와야겠다기에 그냥…》

《뭐라구? 이런 답답이라구야. 아침에 내가 말한건 장에 가서 낫자루를 더 사와야 하겠기에 한 말인데 그냥 갔다오다니. 이런 맹랑할데라구야. …》

아버지는 어이가 없어 입만 쩝쩝 다시고 아들은 발끝으로 돌부리만 긁을뿐이였다.

민심은 천심이라

백성의 마음이 곧 하늘의 의사와 같다는 뜻으로서 인민의 의사가 가장 옳다는것을 이르는 말이다.

《삼국사기》(상)에서는 고구려의 모본왕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일화를 전하고있다.

…고구려시기 모본왕은 천성이 횡포해서 나라일을 돌보지 않고 잔악무도한짓만 일삼았다. 민심이 흉흉했다. 이 해가 언제 지려나… 이런 풍요가 거리에 나돌았다.

민심이 하늘에 닿아 변괴가 꼬리를 물었다. 봄에 폭풍이 불어 나무를 뽑고 여름에 서리와 우박이 내렸다. 거리엔 시체가 널렸다.

두로라는 사람이 있었다. 원래는 동향사람으로 왕의 측근이였으나 언제 죽을지 몰라 엉엉 울고 앉은 그를 보고 누군가 《장부가 울고 앉았다? 옛글에 나라를 사랑하면 임금이요, 학대하면 원쑤라 했거늘 저게 무슨 임금인가, 원쑤이지. 용기를 내라구.》 해서 기운을 가다듬고 왕을 처단하니 온 나라가 환호, 재변이 가시고 년년 풍년이 들었다.

《민심은 천심이다!》라고들 했다. …

메추리 소발쪽에 디디운다

지내 약바르게 놀다가는 큰 랑패를 보게 됨을 교훈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원래 메추리는 꼬리가 수닭처럼 보기가 좋았다고 한다.

눈이 강산같이 쌓인 어느 추운 겨울 메추리가 먹을것을 찾아 인가로 내려왔다.

인가의 소들이 먹느라 마구 헤쳐놓은 마른 풀단속에 메추리가 좋아하는 풀씨가 많았다. 작고 동작이 매우 빠른 메추리는 소가 발을 옮길 때마다 발쪽에 깔리우는 일이 없이 요리조리 몸을 피해가며 풀씨를 쪼아먹었다.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재미를 본 메추리는 거기서 살다 싶이 하면서 풀씨를 쪼았다. 그러던중 어느날 동작이 느릿느릿 움직이는 소의 계속되는 동작에 긴장이 풀려 그만에야 소발쪽에 꼬리를 밟히우게 되였다.

당황한 메추리는 힘껏 날개를 흔들며 날아가려고 안깐힘을 썼다.

결국 그렇게 보기 좋던 꼬리가 쏙 뽑히운채 메추리는 살아나게 되였다.

이때부터 메추리의 꼬리가 뭉툭해졌다고 한다.

바가지를 긁다

주로 안해가 남편에게 불평과 잔소리를 하는것을 이르는 말이다.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못했던 옛날사람들은 병이 발생하면 미신적관념에서 그 치료대책을 찾군 했다.

그때에는 눈병이 발생하면 귀신을 쫓아버린다고 하면서 상우에 바가지를 엎어놓고 긁어대는 풍속이 있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매우 시끄럽고 청승맞게 들렸다.

오늘날에 와서 그러한 미신적풍속은 가뭇없이 사라지고 주로 안해가 남편앞에서 시까스르며 지청구하는것을 비유하여 이르는 성구로 되였다.

박쥐같다

자기에게 유리함에 따라 이 편에도 붙고 저 편에도 붙는것에, 밤에만 활동하거나 잘 돌아다니는것에 비겨 이르는 말이다.

박쥐는 앞발과 뒤발 및 꼬리사이에 엷은 막이 있어서 공중으로 날아다니는 쥐와 비슷한 동물이다.

때문에 길짐승에도 속할수 있고 날짐승에도 속할수 있다.

버새같다

똑똑하지 못하고 부실한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이다.

버새란 말과에 속하는 짐승의 하나이다.

버새는 몸집이 작으며 새끼를 낳지 못한다. 기후변화와 거친 먹이에 잘 익숙되지 못하여 몸이 약하며 부림능력이 적어 실용적가치가 없다.

범의 차반

아끼지 않고 망탕 랑비하는 현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성구이다.

유래는 아래의 사실로써 알수 있다.

예로부터 례의로 맛있게 잘 차린 음식을 차반이라고 불러왔다.

날고기만 먹고사는 범에게 해당되는 차반이면 고기를 두고 이르는 말이다. 범은 매일 고기를 먹는것이 아니라 한번 실컷 먹으면 그 영양분이 다 없어질 때까지 먹지 않고도 산다. 대체로 다 큰 범은 한번에 50kg의 고기를 먹는데 그렇

게 먹으면 한주일간을 견디여낸다.

범은 아무리 큰 짐승을 잡았다 해도 실컷 먹은 다음 나머지는 보관하지 않고 버린다. 그러다가도 먹은 고기가 다 소화되여 배가 고프면 다시 사냥을 시작하며 사냥에서 실패하여 출출 굶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럴지언정 먹던 고기를 둬두지 않고 버리는 버릇이 범의 섭생방식이다.

신주모시듯

무엇을 매우 귀중히 여기며 소중히 다루거나 간직한다는 말이다.

《신주》란 지난날에 죽은 조상들의 벼슬이름이나 이름을 나무패(주로 밤나무로 만듦.)에 적어서 사당에 보관하였는데 바로 이 나무패를 신주라고 하였다.

물론 죽은 조상이 살아있는 자손들의 생활에 관여할수 없었지만 믿을것이 없었던 지난날에는 조상을 잘 모시고 조상만 마음속으로 잘 받들면 모든 일이 잘된다고 믿어왔다.

따라서 신주를 자기 집의 가장 귀중한 물건으로 받들어 모셔왔다.

우리 말 어휘의 뜻과 유래

집 필 박사 부교수 김인호, 부교수 오정환,
교수 박사 김범주
심 사 박사 부교수 안경상, 박사 부교수 최병수,
박사 부교수 서학순
편 집 신 홍 섭
장 정 김 영 일
교 정 김 철 준
낸 곳 평 양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09(2020)년 8월 19일
발 행 주체109(2020)년 8월 22일

ㄱ－1482ㄷ

© Pyongyang Publishing House
DPR Korea
ISBN 978－9946－31－138－8